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1월 15일 수요일 (주간) 제 294 호

금주 법구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바친다.
-중일아함경-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식집행식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시 청운대불

자기를 바로 봅시다

兎



군대를 흔히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군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타종교는 막대한 물량과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교계에서의 군불교 지원은 아직까지는 단발성 혹은 이벤트성 후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육해공군 약 69만명의 군인 가운데 불교인 구 가 15만 2백 명(25.3%), 개신교가 31만 2천명(52%), 천주교가 7만8천명(12%)이다. 이 자료는 불교계가 다른 종교에 비해 얼마나 군포교에 소홀하고 있는

군포교

군종법사 수급 어려워
스님들 인식전환 절실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포교원이 군포교 제도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산하기구로 준비중인 군불교위원회도 재정적, 인적, 사업정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군포교를 위한 가장 큰 현안은 군종법사의 수급 문제다. 조계종 포교원이 17일까지 올해 임관할 군종법사를 모집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보한 인원은 모두 10명 정도. 95년 군종법사 정원을 18명으로 어렵게 늘려놓고도 아직까지 단 한번도 정원을 채워보지 못했다. 현재 군종법사는 144명으로 개신교 307명에 비해 절반도 안된다. 군법당이 비인가 법당까지 합해 700개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군종법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군종법사가 없다는 것은 바로 포교의 부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졸비장학생을 군종법사로 파견하거나 위덕대에 군종법사의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

겨불어 스님들의 인식 전환도 절실하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신도들이 찾아오는데 왜 군대까지 가서 고생하느냐는 생각은 분명 버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많은 스님들이 군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종단 또한 더 많은 지원을 한다면 군대는 대중불교, 거사불교, 생활불교의 터전이 될 것이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사이버 세계의 장경각! 책방 여시아문
www.yosiamun.com
www.yosiamun.com
국내최대불교서점 여시아문 닷 컴
Tel:02)737-0695 Fax:02)737-0696

교회 15:절 1…"불교 열세"

기획연재



❶부처님 만나기 힘들어요
② 중산층 포교거점인데…
③ 누가 어떻게 해야하나

최근 충남 공주에서 산본 신도시로 이사 온 장윤석(31)씨는 아내와 함께 다닐 사찰을 찾느라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동사무소에 문의했으나 등록된 사찰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고, 이곳저곳 뒤져봤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교회뿐이었다. 한달여 가까이 지나 두 곳의 사찰을 알아냈지만 '교회는 많은데 절 찾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씁쓸함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경험은 신도시로 이주한 불자들이라면

종교부지 거의 교회
말로만 포교황금지대
"정책도 의욕도 실종"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다.

신도시에 불교가 없다. 신도시 어디엘 가도 사찰이나 포교당을 찾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사찰(포교당)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교회는 많다. 조금 부풀려 말해 몇 발짝만 움직이면 교회를 볼 수 있을 정도다. 밤이 되면 신도시는 십자가로 불야성을 이룬다. 신도시는 이미 '기독교의 땅'이 돼 버렸다.

서울 인근 6개 신도시의 사찰(포교당 포함) 수는 모두 42곳. 교회 611개와 비교하면 15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신도시 중 불교세가 가장 우수한 곳으로 꼽히는 일산의 경우 사찰 수는 20여 곳에 불과하지만 교회수는 363곳이나 되며, 분당의 경우도 사찰 7곳에 교회 135개로, 사찰수에 비해 교회수가 20여배에 달한다.

또한 평촌, 산본, 중동, 수지의 사찰수는 2~5개에 지나지 않으며, 이곳의 교회수는 적게는 20곳에서 많게는 40곳이나 된다. 부산 해운대 신도시 역시 사찰 7곳에 교회는 60여 곳이 넘는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속된 말로 '게임'이 안된다.

신도시는 예외없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조성돼 있으며, 적게는 10여만 명에서 많게는 40여만 명에 이루는 인구가 거주한다.

인구수로만 보면 웬만한 중소도시 규모다. 특히 다른 지역과는 달리 30~40대 젊은층에, 샐러리맨과 언론인, 예술가 등 지식수준이 높은 계층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때 신도시 포교는 단순히 몇 명의 불자를 늘리는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파트단지라는 공간적 특성은 혼자보다는 몇몇이 모인 그룹형태의 종교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종교의 전파력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왕성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인구수가 중소도시와 맞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포교시장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젊고 지식수준이 높은 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불교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들은 기복위주에서 탈피, 종교에 대한 합리적 사고와 실질적인

☞2면으로 계속

신도시 사찰·교회·성당 현황

지역명	사 찰	교 회	성 당
일 산	20	363	4
분 당	7	135	4
중 동	4	20	5
평 촌	2	23	1
산 본	4	41	1
수 지	5	29	4
해운대	7	60	-

(2000 10월 현재)

포교학회 내년초 창립
포교학 연구 등 활동

포교학회(가칭)가 내년 초 창립된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학과장 홍선스님)와 조계종 포교승가회(회장 종후스님)는 29일 연석회의를 갖고 홍선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교학회 설립준비위원회를 12월까지 구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교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 교구본사 포교국장회의, 포교사단을 비롯하여 각 종단 포교실무자, 교계 포교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범불교적 포교학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포교학회는 내년 초 창립과 함께 포교 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포교학 연구 △상담·심리적 포교방안 연구 △어린이·청소년 등 분야별 포교방안 연구를 통해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포교방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창립준비위 실무간사 김용철(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교수는 "포교기법을 연구·개발하여 사찰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환경부장관 사과 요구
조계종, 공원재조정 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9일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국립공원 구역재조정 총괄협의회가 참조토록 한 의견서를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해 사찰과 지역주민간의 분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환경부장관의 공식사과를 요청했다.

조계종은 10월 5일 환경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지리산 백무동 계곡의 국립공원 편입, 쌍계사 집단시설지구의 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연공원과의 실무자는 "각계의 의견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합리적으로 관단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윤 기자



위용 드러낸 천태종 대조사전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오늘의 국보급 문화재'를 건립하겠다는 원력으로 종단의 총력을 모아 상월 원각 대조사전을 낙성, 5일 회향법요식을 성대하게 봉행했다. 〈관련기사 2면〉 이경숙 기자

관음종 종정 혜웅스님 열반



관음종 종정 운공 혜웅 스님이 5일 오후 6시 천안 보열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46세, 세수 73세. 혜웅스님은 1928년 천안生으로 55년 강원도 강선사로 출가, 59년 태허 홍선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관음종 호법원장, 원로원장을 거쳐 지난 해 7월 관음종 제5대 종정에 추대됐다. 스님의 영결식은 13일 오전 10시30분 보열사에서 종단장(葬)으로 봉행됐으며, 다비식은 오후2시 보명사에서 거행됐다. 이경숙 기자

개성지역 문화재 조사 '가시화'

남북한 합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북한 개성공단 지역에서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현대 아산과 통일부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개성 지역 문화재 조사'를 향후 남북 창관급 회담의 공식 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를 본격화하기 전 남북 학자들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부지를 공동조사하고, 매장 문화재와 유적 존재 여부 역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관계자들은 "시범공단은 11월에 착공, 내년 9월 가동을 목표로 하는 등 서두르고 있어 매장문화재를 확인하는 지표조사와 시굴, 발굴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지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개발예정지 중에는 흥왕사지, 천수사지 등 불교 유적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오종욱 기자

제 6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6회째를 맞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어 온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부터 응모를 총무원장상이 추가돼 신행수기 공모의 의의를 더하고 있습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입상작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되오니 이번 공모에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6일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2000년 12월 16일
△당선작 발표: 2001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시상내용
◇대상(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천태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관음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총화종 총무원장상 :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박물관 7개소, 1,621점, 3,674컷 수록)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識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이 불화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피어나고,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이 싹트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 석정 큰스님 -

◆ 한국불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이 불화집의 간행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 조선일보 -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논문, 회기 수록)
○ 장정 : 전면 컬러 - 양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연구원
○ 가격 : 각권 90,000원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10년의 조사와 편영 끝에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간을 기념하여 2개월 동안 특별 할인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범 하 합장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2, 팩스 (02) 586-9078

5년 전의 약속, 1차분 20권 마침내 완간!



『한국의 불화』 1차분 간행목록(1996년~2000년)

제1권 통도사 본사 편(상)
제2권 통도사 본사 편(중)
제3권 통도사 말사 편(하)
제4권 해인사 본말사 편(상)
제5권 해인사 본말사 편(하)
제6권 송광사 본말사 편(상)
제7권 송광사 본말사 편(하)
제8권 직지사 본말사 편(상)
제9권 직지사 본말사 편(하)
제10권 월정사 본말사 편
제11권 화엄사 본말사 편
제12권 선암사 편
제13권 금산사 본말사 편
제14편 선운사 본말사 편
제15권 마곡사 본말사 편(상)
제16권 마곡사 본말사 편(하)
제17권 법주사 본말사 편
제18권 대학 박물관 편(I)
제19권 대학 박물관 편(II)
제20권 사립 박물관 편

『한국의 불화』 완간 기념 특별가 200질 한정보급
기간 : 2000년 11월 2일 ~ 12월 31일
보급가 : 1백만원 (20권 1질, 현금결제에 한함)

사 설

조계종에 부는 화합바람

원로의장을 두고 서로 양보를 보인 아름다운 모습과 종회의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는 고무적인 소식에 모든 불자들이 찬탄하고 또 위안을 받았다. 조계종 내부에 독버섯처럼 그 화합의 틀을 깨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던 일종의 감투를 둘러싼 암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일소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실로 불교 종단 내부에서 감투를 둘러싼 알력과 불화가 노출된다는 것은 단순한 잡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하고 출가하였다는 스님들이 그런 행태를 보일 때마다 불교의 진리성 자체가 의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기억하고 있다.

스님들 사이에는 "중 벼슬은 닭 벼슬만도 못한 것이다"는 말이 있다. 진정 그러해야 한다. 수행을 위해서 출가한 스님들이 어찌 세속적인 일에 얽히는 것을 탈가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당연한 일들이 당연한 일들로 여겨지지 않는 자체가 조계종 종단이 그 청정성과 화합성을 상실하였다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교 자체의 사회적 위상에 그대로 반영되게 마련이다. 세속적 욕망을 초탈하여 수행한다는 것은 불교 출가 승단의 본질적인 이념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교 종단 내의 감투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치명적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신 종산 스님과 법전 스님, 그리고 지하스님과 청화 스님께 진심에서 우러난 큰 찬탄을 보낸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종단내의 소임을 둘러싼 일들이 이제는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스님들은 이번 일을 찬탄하기에 앞서 당연히 그러하여야 할 일이 이제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오욕락의 추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세속적 삶과는 다른 스님들의 청정한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불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큰 포교의 수단도 바로 그러한 스님들의 청정한 삶이다. 그리고 그러한 스님들이 어우러져 이루는 승단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아 지향해야 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교과서 불교오류 고치자

조계종 포교원이 2년여에 걸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과서에 불교와 관련해 잘못 서술된 항목이 무려 39군데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종교를 서구의 종교 개념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든지, 종교활동을 예로 들면서 불교신자인 어머니를 배타적 인물로 등장시켜 기독교도인 아들과 갈등을 겪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가 하면 불교용어 해설의 오류, 심지어는 연대와 인명이 잘못 표기된 곳도 적지 않다. 더군다나 도덕과 윤리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관련 오류는 무려 50%를 넘는다는 지적이다.

교과서는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장 객관적인 정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교과서의 편향, 왜곡된 항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나라 교과서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현재 7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쓰일 교과서 개정작업을 진행중인데, 이번에 불교계에서 지적한 불교관련 오류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시정이 있기를 촉구한다.

불교는 이 땅에서 1600여년간 민족의 사상과 문화를 일궈온 종교다. 이러한 불교와 관련해 교과서 오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교육부에 대한 신뢰에도 크게 손상을 입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과서의 종교관련 내용 편찬에 있어서 종교적 편견이나 무지한 인사의 참여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확한 서술을 위한 불교계의 자문을 구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교계의 권익을 옹호해 달라는 주문이 아니다. 오로지 객관적이고 정확한 서술이 교과서의 생명이며, 청소년의 바르고 편견없는 인성형성에 필수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불교계 또한 교과서의 불교관련 항목은 불교에 대한 인식과 명예에 관련한 문제로서 간과하거나 좌시해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는 교과서의 불교오류를 바로 잡는 일이 국민의식을 올바르게 형성해 나가는 작업의 일환으로 여기며, 교육부와 불교계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이다.

승복관장 가사원 추진

조계종 교육원 16일 '복식 세미나'서 구체화

승려의제인 가사와 장삼의 제작·공급 및 종단지정 승복점을 관리·감독할 조계종 가사원 설립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승복유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적으로 종단차원에서 승복유통을 관장할 사업팀 구성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관련기사 3면〉

이 같은 종단차원의 승복관리 방안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도원)가 16일 오후 1시 조계사 종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승가복식에 관한 세미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지난 6~7월 전국의 598명(주지 254명, 소임자 74명, 선승 97명, 학인 165명, 무응답 8명)의 스님을 대상으로 실시한 '승복에 관한 의식 및 유통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3%가 승복의 제작과 유통의 상업화에 대해 문제가 있으며, 종단차원에서 유통관리에 나서야 한다(87.8%)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은 승복이 상품화되면서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우며 △승복의 악용 및 남용 △치부의 수단 △승가의 위화감 조성 등에 대한 반감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 스님들은 승복을 3~5벌(59.6%) 6~10벌(30.1%) 1~2벌(8.2%)순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승복마련 방법은 승복점 구입(56.7%), 절에서 단체구입(15.4%) 신도보시(13.8%), 절에서 직접 만든다(7.1%) 은사나 도반에게 물려받는다(7.0%)고 응답했다.

스님들은 승복구입 이유로는 낡고 헤져서(73.1%), 은사나 신도의 보시(24.4%), 행사참석을 위해서(1.4%) 라고 답했다. 그러나 승복이 비싸고(92.8%), 승복에 깃 든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며(76.4%), 승복의 소재나 색상, 모양등에 통일성이 없다(79.4%)는 부정적인 입장이 강했다.

승복점의 승복제작에 대해서도 스님들은 88.5%가 여법하게 제작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승복점들이 승복을 제작하며 고급화 유도(36.4%), 의도적 변용(28.4%), 유행화(13.6%)가 심하다고 밝혀 승복의 위의가 손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승복유통의 개선방향으로 응답자의 87.8%가 종단의 관리하에 승복규정 마련 후 승복점 지도, 종단의 승복점 직영운영, 종단의 승복 무상지급, 규정에 맞게 개인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종단차원의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승복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가사와 장삼의 크기를 줄이고, 가사와 장삼색을 더 밝게 하며, 재료를 고급스럽고 활동성이 높게 해야 한다는 대답이 높았다.

조계종 고유승복을 갖자(70.5%)는 응답도 많았다. 방법으로는 가사에 표식(42.3%), 가사색 변화(21.6%),장삼의 표식(13.4%),장삼색 변화(5.6%)를 꼽았다. 모자, 신발, 가방 등의 기타의제에 관해서도 전체응답자의 63.1%가 종단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스님들은 승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청정한 위의 △포교의 수단 △외도와의 구분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반면 허름한 승복이나 고급스런 승복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 대 만 평 박구원



법당하나 없고…

상월 대조사전 낙성법회 성황

천태종 구인사 사부대중 5만여명 동참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5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5만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조사신앙의 상징인 중창조 상월대조사 존상 봉안과 함께 대조사전 낙성법요식을 봉행했다.

오전 6시 상월 원각 대조사 존상 봉안식에 이어 오전 10시30분부터 대조사전 낙성법요식이 거행됐다. 육법공양과 헌화 헌향에 이어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가 봉독됐고 재무부장 남궁도재스님의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은 법어를 통해 "상월원각 대조사님께서 정착시킨 수행종풍으로 종단의 교세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성하여 오늘의 대종단으로 발전하였으니 우리 불교의 활력이요 서광"이라 전제하고 "대조사전 건립의 공덕으로 종단이 더욱더 광휘를 발하고 종도대중을 비롯 세계 인류의 삼업이 청정해지기를 축원한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운덕스님도 개식사에서 "조사전 건립이 9년여 공사끝에 역사적인 낙성을 보게되어 벅찬 감격과 환희를 금치 못한다"며 "대조사전 낙성을 계기로 조사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교화를 전개해 천태신앙을 꽃피워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택 조계종 총무부장, 태고종 지성 총무부장 등 각 종단 대표들과 문화관광부 김한길 장관, 이원종 충북도지사, 김기재 김태호 송광호 국회의원과 도술인 중국불교협 부회장, 일본 천태종 후지코겐 종무총장, 미얀마 불교종단협의회 바단타 구마라 대표단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무형문화재 74호인 대목장 신응수씨가 도편수를 맡아 건립한 대조사전은 총건평 167평에 3층 다포집으로, 높이는 국내 목조건물로는 최고인 27m이다. 조사전에 쓰인 목재는 태백산 적송으로 수령 300년 이상된 목재 50만재가 사용됐으며, 특히 일체 쇠못을 쓰지않고 전체를 나무로 짜맞춰 정교하게 건립했다.

이경숙 기자

☞1면 '신도시 포교'서 이어짐

종교공부 및 활동을 원하는 계층이다. 달리 말하면 선(禪)과 교리, 불교관련 문화프로그램 등이 이들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신도시 포교는 불교의 이미지와 사회적 영향력까지 높일 수 있는 계층을 확보하고 불교인재를 양성하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신도시 포교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물론 일산 여래사나 정혜사 등 신도시 포교에 발벗고 나선 사찰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책도 애정도 의욕도 없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물론 개신교의 '공격적' 선교 방식을 감안한다면 수적인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교회가 먼저 들어서고, 신도시가 자리잡기 전에 불하한 종교부지 중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넘는다는 사실은 분명 불교가 신도시 포교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산본 상연사 부선스님은 "대부분 사찰들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하고 "게다가 도심포교당도 부족한 실정이니 무슨 수로 (개신교) 당해내겠느냐"며 신도시 불교포교의 현실을 전했다.

한명우·김재경·김주일 기자 (mwhan@buddhapia.com)

조계종 148회 중앙종회 주요 답변

13일 속개한 조계종 148회 중앙종회에는 11명의 종회의원이 26건의 종책질의를 했다. 146, 147회보다 다소 적은 편이다. 종회사무처가 2일 배포한 '종책질의서/답변서'에 따르면, 집행부는 총무원의 btn 이사 참여 검토, '사찰 예산·회계령' 제정 등을 추진한다. 총무원은 우담바라에 대한 견해, 민영교도소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보충 질의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요 쟁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불교TV 정상화 대책

btn 정상화를 위한 종단 차원의 대책을 묻는 법안스님의 질의에 대해 문화부는 "(btn과) 종단과의 연계성을 늘이기 위해서 총무원 집행부의 이사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화부는 이사 출연금이 2억원이나 이전의 종단 지분이 있어 실제 새로 출연할 액수는 1억 7700만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금융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안 마련

장적스님의 질의에 대해 재무부는 연말까지 '사찰 예산·회계령'을 마련,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재보고서(일일, 월 정산) 작성, 통장 도장의 책임관리자 선정, 잔고증명서 발급확인 등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불교시민단체 지원 방안

불교시민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을 마련할 용의가 있느냐는 법안스님의 질의에 사회부는 "지원법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친 후 제도적 보완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영교도소 대처 방안

종양승가대 이전 불사에 따른 종단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설 신축을 통한 교도소 운영이나 시설 위탁운영은 힘든 여건이라는 사회부의 입장이다. 사회부는 "즉각적으로 참여를 결정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교화인력의 확보를 위해 교화위원들과 불자교정인을 결집하여 포교원 산하에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분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회부는 500명 수용시설 건립시 35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담바라에 대한 종단 견해

우담바라에 대한 종단의 견해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현각스님의 질의에 대해 호법부는 "우담바라는 경전에 3000년만에 한번 피는 전설 속의 꽃"이라며 "신도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종교적으로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호법부는 이어 "실체성에 대한 판단과 종단 공식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총무원 불교TV 이사참여 하겠다"
"사찰회계령 제정 금융사고 예방"

기 획 특 집 불자만을 위한 시계 우리가 만든다!

불자들만을 위한 연꽃 불자시계 나와...

전 직원이 불자들만으로 구성된 업체에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연꽃 불자시계가 나와 화제다. 제조에서부터 판매, 아프터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가동 하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아놀드 바시니(arnaldo basini)社. 연꽃 불자시계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한 저렴한 가격과 연말연시를 맞이한 최고의 선물용으로 기획 제작되었다. 구입하는 고객들에게는 '달마 스포츠 레저용 시계'와 '수암옥 108염주'를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가격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무이자 3개월 할부도 가능하게 했다.

연꽃불자시계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계밴드에는 위쪽으로 광명 진언을 아래쪽에는 소원 성취진언을 새겨 넣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을 늘 가까이 신비로운 연꽃무늬 하늘을 뜻하는 옴자, 13개의 보석(큐빅)으로 꾸며진 시계 문자판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벽돌로 문질러도 흠집이 생기지 않는 강한 경도의 사파이어 유리와 첨단 소재인 지르코늄으로 만들어진 24각 베젤은 오래도록 견고하고 화려한 멋을 자랑한다. 생활방수는 물론 특수IPG 도금으로 처리되 수명이 오래가고 스위스 무브먼트로 이루어진 연꽃불자시계는 오차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용두(시간조정)는 18K 순금 금용두로 제작하여 품위를 더했으며 시계 뒷면에는 만자를 새겨넣었다.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튼튼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안성 맞춤인 시계이다. 전 직원이 불자들로만 이루어진 불자기업인 만큼 연꽃불자시계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일부는 불사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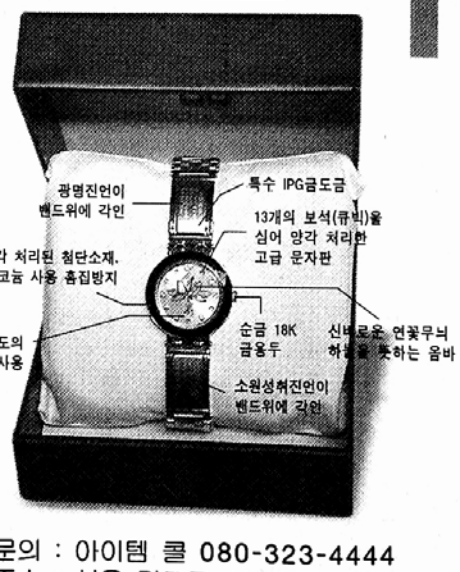

남성용 불자시계


여성용 불자시계



■가격 : 남성용·여성용 각각 119,000원
특별 사은품 (달마시계+수암옥 108염주)

arnaldo bassini



문의 : 아이템 콜 080-323-4444
주소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9-24 정명 빌딩 4층

목어

일본의 구석기 戀歌

고고학 발굴 역사상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조작은 '필트다운 인(人)'이었다. 이는 20세기초 영국 서섹스의 필트다운 하상(河床)퇴적지에서 발굴된 머리뼈 조각과 아래턱뼈 조각에 붙인 이름인데, 이 발굴로 자칫 영국이 세계 유일의 인류발상지가 될 뻔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필트다운인이 인정될 경우 현대인류의 조상이 되는 호모사피엔스 출현을 적어도 2백만년 전으로 잡아야 하며, 이 화석은 지금까지의 발굴 가운데 최고(最古)의 인류화석이 되기 때문이다.

학계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를 두고 논의를 계속해 왔고, 훨씬 뒤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두개골 부분은 구석기 후기의 것으로, 아래턱 부분은 현대를 살고있는 침팬지의 턱을 착색하여 화석처럼 보이게 교묘히 손질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영국인의 빗나간 애국주의가 만들어 낸 억지조작이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21세기 초, 비슷한 조작이 일본에서 다시 한번 연출되고 있다. 일본 고고학계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고 있는 고고학자 후지무라 신이치(藤村新一)씨가 3만년 전 정도로 밝혀져 있던 일본의 구석기 인류사를 5만년 전, 60만년 전, 70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밝히는 과정에서, 발굴지에 미리 마련한 석기들을 사전에 몰래 파묻어 왔다는 것이 탄로난 것이다. 여기에도 긴가민가하는 학계의 의문이 적지않게 제기돼 왔으나 일본 고고학계는 이를 무시해 왔다. 어쩌면 그들에게 감상적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만약 마이니치 신문의 몰래카메라가 조작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멀지않아 일본에서 '필트다운 인'에 버금가는 '일본원인(猿人)'이 탄생했을런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기야 한국에도 8년 전 남해에 몰래 던져 넣었다 건진 가짜 '거북선 별황자총통(別黃字銃筒)' 소동의 부끄러운 흔적이 없진 않다. 개인적 공명심에 맹목적 애국심의 합작이었다고나 할까. 그래도 정도의 문제다. 일본은 이번 일로 광개토대왕비의 비문 조작 등 동북아시아 상고사에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왜곡을 시도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계속할 것이라는 불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 설 고 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불기 2544년 동안거 결제법어

눈 밝은 큰 종사가 어째서 두려워 하는가?

혜 암 조계종 종정



임제의 喝은 번뇌를 끊고 성품을 봄이요,
덕산의 棒은 마음 밖에서 도를 찾음이로다.
뜰 앞의 잣나무는 사도를 쳐부수고 정법을 널리 폄이요,
개의 佛性이 없음은 바람 불지 않는데 파도가 치도다.
자유로운 선객은 위없는 正印을 깨닫고
斷溪의 정통제자는 화살같이 지옥에 떨어지도다.
눈 밝은 큰 종사가 어째서 두려워하는가?
(한참 묵묵한 후에 말하였다)
봄이 오니 자연히 푸르더니 가을이 되니 저절로 누렇구나
산은 청황의 뜻이 없건만 나뭇잎이 스스로 춘추를 알리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요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니
눈 속에서 불이 타고 재 속에서 불을 얻는다.
필경 이 무슨 뜻인가?

소 머리의 夜叉가 겨우 머리를 숙이니
말 얼굴의 옥졸이 문득 주먹을 드는구나
아 악--

臨濟喝은 斷煩見性이요, 德山棒은 心外求道로다.
庭前栢樹子는 破邪顯正이요, 狗子佛性無는 無風起浪이로다.
雲水衲子는 覺無上正印하고 曹溪嬭子는 入地獄如箭이라.
明眼大宗師가 爲什 하야 恐怖리요
(良久)
春來自然靑이오, 秋來自然黃이라. 山無靑黃意나 樹葉自靑黃이라.
文殊普賢이요, 普賢文殊니 雪裏에 發炎하고 灰中에 得火로다.
畢竟如何오.
牛頭夜叉가 才稽首하니 馬面獄卒이 便拳拳이로다.
喝 一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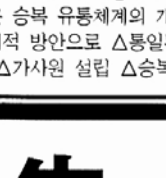
법 전 해인총림 방장



보기에 분명하고 알기에 친숙한데
말로서 들춰내면
여전히 도중에 있다.
아무리 털끝 하나 범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떡을 들고 손가락을 빠는 사람이네.

見得分明識得親이나
擧來猶自涉途程이로다.
直饒不犯毫芒者라도
也是拈餠舐指人이니라.

보 성 조계총림 방장



재물과 여색을
저버리지 못하건든 도를 묻지 말고
내 잘난 생각 가지고는
참선하지 말게
번뇌망상 끊어지면 생사도 끊어지나니
이 밖에 다른 법은 따로 일러줄 게 없네

財色不忘莫問道하고
貢高自是休參禪하라
煩惱斷盡生死斷이라
更無別法與人傳이로다

대중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
터럭 끝만치라도 어긋나면
하늘 땅이 거꾸로 매달릴 것이다.

大衆은 惺惺着하라
毫釐有差면 天地懸隔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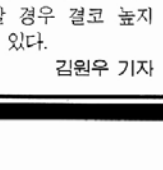
원 담 덕숭총림 방장



무슨 일로 때도 없이
청산에 오는고
이 산중에 백운이
첩첩함이로다.
만강으로 흐르는 물이
청천에 떠있음 이어늘
일념이 무시겁래로 흘러 오고감이로다.

何事無時靑山來
白雲疊疊此山中
流水萬江靑天浮
一念無始流來去

지 허 태고총림 중앙선원장



앉아서도 참선
다니면서도 참선하더니
추우면 불쬐고,
곤하면 잠자노라.
고향에 길길 알지만 말해줄 사람 없으니
달은 소나무 창에 지고
하늘은 밤중이로구나.
座也禪兮요 行也禪하니
寒時向火요 困時眠이니라
家山有路나 無人薦하니
月落松窓인데 半夜天이로구나.

열린 문으로 나가지 않고
창에 머리 부딪치는 어리석음이여
백년을 묵은 종이 뚫으려 한들
어느 때 머리밖에 나가겠느냐.
空門不肯出하니
投窓也大痴로다
百年盤古紙런들
何時出頭哉리요

색상-모양 제각각 '위상 실추'

조계종 '가사원' 설립추진 까닭

승복 유통 개선 절실
의제 통일 규정 제정
지정업체 선정 제작

승복은 검소하고 청정한 승가의 위의를 상징하며, 탐심을 버리고 수행에 정진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즉 승복은 수행자를 상징하는 표상인 것이다.

그러나 승복의 상품화로 고가화, 고급화, 패션화되면서 '분소의(糞掃衣)' '단삼의(單三衣)'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또 시중 승복점이나 길거리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해 입음으로 인해 불교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도 점차 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종단마다 법계에 따라 가사와 장삼의 크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자의 취향과 편의에 따라 승복점에 제작을 의뢰해 입고 있는 실정, 화려한 금란가사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통에 있어서도 승복점에서 임의로 생산하다보니 색상이나 모양, 옷감 등이 천태만상이며, 원단가격이 5~10만원에 불과하지만 승복가격은 수십 만원에서 백만원대에 이르고, 승복시장이 100~500억대의 시장으로 추산될 정도로 커져 승복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여론이 강하다.

승려의제는 1990년대 조계종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1순위로 거론돼 왔다. 1996년 5월 조계종 의제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999년 3월 전국교구본사 교무국장회의에서도 승복의 유통구조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승가의 위계와 청정승가 가풍 회복을 위해 승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합의를 이뤄냈었다.

이에 따라 조계종 교육원이 추진해온 승복 유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통일된 규정 마련 △가사원 설립 △승복 물려입기 정착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중 가사와 장삼의 제작과 공급, 그리고 위탁 및 지정 승복점을 관리하고 감독할 가사원의 설립 방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조계종의 승가복식 개선 추진안은 의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제에 대한 통일규정 마련, 가사와 장삼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해 의장등록을 필한 뒤 가사는 종단에서 직접 지급하고, 장삼은 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제작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안은 승가위계 및 승풍확립을 위해 앞으로 4급 이상의 승가고시를 시행한다는 계획에 따라 법계에 맞는 새로운 승복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조계종의 승가복식 유통개선에 대해 조계사 부근의 40여개 승복점들은 원단가, 수공비, 가게 임대료를 합산할 경우 결코 높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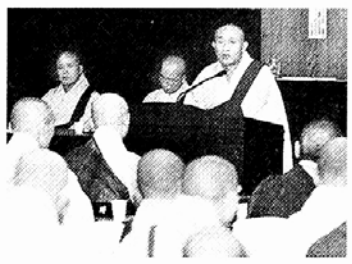
정대 총무원장 취임 1년

종단안정 '내치 성과'
청사신축-사면 '숙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15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정대스님은 이날 조계사 대웅전에서 집행부 부·국장과 재가종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회를 하는 것으로 1주년 행사를 대신했다.

정대스님 취임 이후 조계종은 일단 안정기조에 올라섰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정대스님은 지난 해 11월 15일 당선증을 수여받은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화합종단 구현을 위해 물러섬 없이 열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합의 한 방안으로 사면 실시를 제시했다. 지난 3월 사면 실시를 위한 종헌 개정안을 종회에 제출했고, 기회있을 때마다 사면 실시를 강조했다.

사면 실시는 '멸빈자 사면 제외'를 명시한 종헌의 규정을 푸는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은 종회에 넘어와 있다. 정대스님으로서는 '할만큼 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중앙종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정대스님.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을 위한 절차도 마무리했다. 1년여 동안 부실공사 보수, 공사비 삭감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여온 풍림과의 협상을 타결했다. 다만, 2002년까지 지급할 공사비 198억원을 무난히 마련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다. 내년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를 절약해 38억원을 마련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러나 흥천사 땅을 매각해 공사비 일부를 마련하려는 계획을 중앙종회에서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어려움도 예상된다.

애초 올해 안 착공 예정이었던 총무원 청사 신축은 2002년으로 넘어갔다. 청사 신축에 대해 정대스님은 매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자존심'으로 표현할 정도이다. 그러나 계획 발표가 있고 난 뒤에도 위원회 구성 등을 늦추고 있어 자칫 일방적인 진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100억원 가량의 재원 마련도 과제로 남아 있다.

종단 목적사업이었던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을 가시화하고, 총무원 청사 신축 계획 등을 차분히 진행시키고 있어 '내치'에는 적지 않은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사면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으며, 남북불교교류, 불교시민단체 지원 등 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높이기 위한 발걸음은 아직도 더디다는 평가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訃 告

大韓佛教 觀音宗 第五代 宗正 云工慧雄 大宗師께서 佛紀 2544年 11月 9日(음력 十月 一四日)
午後 6時 15分 天安 普烈寺에서 涅槃하시었기에 玆以 訃告합니다.

佛紀 2544年 11月 9日

◎ 永訣日時 : 佛紀 2544年 11月 13日(月) 午前 10時 30分(宗團葬)
◎ 永訣式場 : 충남 천안시 다가동 444-16 [보열사]
◎ 茶 毘 場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산 40 보명사 連花台 오후 2시

大韓佛教 觀音宗 第五代 宗正 云工慧雄 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李 泓 坡

연락처 : 總務院 02) 763-0054 · 3345 / 普烈寺 041)573-6027

일주문



중국 '선 이야기' 강의

인환 동국대학교 명예 교수는 12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동산반야회에서 '평생경전강의'에서 '선(禪)'을 주제로 강의한다.



서울 신도단체 임원 재교육

정련 조계종 포교원장은 11~12일 서울 봉은사에서 서울지역 사찰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 재교육을 가졌다.



제주불교총련 새회장에

중원 제주 관음사 주지는 1일 제주도내 5개 종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회의에서 제주불교총연합회 새 회장에 추대됐다.



일타대종사 열반1주기 추모재

세민 해인사 주지는 17일 오전 10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지난해 열반한 동곡당 일타 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재를 봉행한다.



포항 오어사 주지에 선출

장주 불국사 총무 스님은 6일 불국사 운영위원회에서 포항 오어사 후임주지에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 18일부터.



11월 다보법회

혜담 각화사 주지는 22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02)703-0108



성공회대 사회교육원서 특강

법륜 좋은벗들 이사장은 27일 오후 7시 성공회대 사회교육원 피츠버그홀에서 '아름다운 스승은 아름다운 삶을 산다'란 주제로 강의한다.



미륵불 봉안법회

경우 충주 신흥사 주지는 5일 경내에서 충주 사암연합회 회장 의천스님 등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륵불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청각장애인 돕기 하루찻집

해성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장은 19일 송파 사거리 프로작 커피숍에서 '청각 장애인 운전면허 비디오 제작기금마련 하루찻집'을 연다.



국회정보문헌연맹 총회 참석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은 7~1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국회정보문헌연맹(FID) 총회 및 이사회에 참가했다.



고승비문 총집 출간법회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은 7일 한국의 집에서 〈한국불교고승비문총집 조선조·근현대〉 출간 회향법회를 개최했다. 지관 스님의 봉헌과 혜암 스님의 법어 등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 석주 스님, 총무원장 정대 스님, 교육원장 일면 스님, 포교원장 정련 스님, 종회의장 지하 스님,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동국대 송석구 총장, 고려대 김정배 총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오종욱 기자

"문중·단체 벽 허물고 화합에 최선"

석림동문회 제9대 회장 법조스님



"문중과 소속단체를 뛰어넘어 신뢰와 따뜻함이 있는 동문회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일 열린 석림동문회 제18차 임시 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취임한 법조 스님(고운사 주지). 지난해 9월 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종단 사태 등의 파란을 겪고서 뒤늦게 취임한 탓인지 먼저 동문 도반들과 선·후배들의 화합을 강조했다.

1977년 결성된 석림동문회는 동국대를 졸업한 800여 명의 스님들이 현재 적을 두고 있다. 여기에 동국대 서울·경주 캠퍼스에 재학하고 있는 석림회 회원까지 합친다면 그 규모는 대단해진다.

"지난해 석림동문회는 인연법을 좇지 않아 좌초했던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제9대 회장단은 석림동문회의 전통성을 되살리고 하나의 구심점을 찾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님은 먼저 각 기별 모임을 파악해 선·후배간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동문회의 초석을 이루는 석림회가 캠퍼스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종단과 대학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다. "학인 스스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대학을 다녀야 한다"는 게 스님의 지론이다.

법조 스님은 "2001년 6월까지의 잔여 임기 동안 종단의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고 또 사회에서는 스님의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하는 석림동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림동문회 제9대 회장단은 회장 법조 스님 외에도 수석부회장에 지명 스님, 부회장에 일면 스님, 사무총장에 향적 스님, 기획실장에 현각 스님, 감사에 성관 스님과 상운 스님, 재무부장에 장적 스님 등으로 구성됐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동산반야회 청화스님 초청 법회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4일 서울 종로구 동산교육회관에서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8주년 기념 청화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개최했다. 경진년 조상 천도법회에 이어 청화 스님은 '염불과 극락세계'를 주제로 한 설법에서 "여러 수행법이 있지만 염불 수행이야말로 출·재가자를 떠나 가장 기본적인 수행 방편"임을 강조했다.



명재원 소년가장 등 36명에 장학금

주시회사 명재원(대표이사 최성지)과 (가칭)사회복지법인 명재원(원장 신유승)은 1일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관내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선행우수자 36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장학금 수여 학생과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금강경독송회 복지성금 전달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연중 한번 갖는 철야법회와 천도법회에서 모금된 5백만원을 2일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에 복지성금으로 전달했다. 이 성금은 신행연구원이 하고 있는 노인무료급식, 독거노인 생활비, 티베트스님 생활비보조, '효행의 집' 운영 등에 사용된다.



백두산부대 호국 법륜사 낙성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육군 백두산 부대는 4일 신병교육대 호국 법륜사 낙성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산 동국대 교수, 법춘 청도 북대암 주지, 혜원 환희사 주지, 이익수 근법사와 장병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주교 24명 통도사 참배

Focus

8일 통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예불에 신부복을 입은 한국과 일본의 주교들이 동참했다. 양산에서 열린 제6회 한일주교교류모임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의 주교 24명이 한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통도사측에 요청, 예불을 참관한 것.

한국 주교회의 의장인 박정인 주교와 일본주교회의 의장 시마모토 카나메대 대주교 등은 저녁예불을 마친 후 통도사 경내를 둘러봤다. 이어 어둠이 내린 통도사에서 손을 맞잡고 감로당에 마주앉은 스님과 주교들은 차담회〈사진〉를 갖고 마음을 나누었다.

부산=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행복을 주는 방송이 꿈이죠"

부산불교방송 주홍식 총괄국장



"청취자들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해 불자나 일반인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송을 제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2일 취임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주홍식(57·전 부산MBC 사업국장) 부산불교방송 총괄국장. 부산MBC에 기자로 입사해 보도, 편성, 광고 분야까지 두루 섭렵한 방송전문가 주홍식 국장은 그간의 경륜을 부산불교방송국 발전에 한껏 발휘하겠다는 강한 의욕에 차 있다.

주 국장이 부산불교방송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는 일은 관리팀, 기술팀, 방송팀 등 조직을 재정비 하는 일이다. 방송 전문가 없이 운영되다 보니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주 국장은 고품격 방송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살아 있는 방송을 하는 것이 방송의 생명이라고 강조하는 주 국장은 "뉴스를 강화해 현재의 관심사안을 집중 취재 보도하고, 청취자들의 관심사를 정확히 짚어내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총지종 묘회심 지수 입적



총지종 종의원을 지낸 묘회심(권혁남) 지수가 8일 세수 92세로 입적했다.

평생 중생 교화와 포교에 전념해온 묘회심 지수는 1910년 경북 영일군에서 태어나 1972년 총지종과 인연을 맺었으며 1973년 현곡 선교부 주교, 1973년 종의원, 1978년 대전수를 거쳐 1979년 총지종의 가장 높은 품계인 지수에 올랐다.

최동원 신도회장 별세



최동원 대구광역시 신도회장(법명 법장행)이 9일 경북대병원에서 76세로 별세했다. 영결식은 13일 오전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앞에서 열렸으며, 49재는 동화사에서 봉행된다.

1924년 출생한 고인은 15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역임한 후 35년간 세화기업사를 경영했으며 대구여성경영자회장, 대구여성단체협의회장, 선덕여왕숭모회장, 사회복지법인 동원어린이집 이사장 등을 맡아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왔다. 97년 제6대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및 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장에 취임했으며, 지난해 무료급식소 자비의집 원장에 취임했다.

공 고

삼보에 지심귀명하오며
대웅전 앞뜰에 노오란 국화가 일주청향(一炷淸香)과 함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추수동장(秋收冬藏)의 계절에 시방(十方)의 삼현천성(三賢千聖)이 동안거(冬安居)정진에 염염종심(念念從心)하시는 줄압니다.

본종(本宗)은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산하(구) 18개 종단 창종과 연혁(沿革)을 같이 해오면서 종단협 이사종단으로 그 위치를 지켜왔음에도 최근 종헌 종법에 위배된 일부 불순세력들의 해종행위로 거대한 폭풍앞에 가물거리는 등화(燈火)처럼 종단이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해 생사(生死)의 명운(命運)이 다해 가는 현실에 직면(直面)하여 부득이 다음과 같이 징계결정(懲戒決定)으로 종단의 사자신충(獅子身蟲)을 제거 하고 제종단(諸宗團·종단협의회)의 뜻에 부응(副應)하여 거룩한 불사(佛事)에 함께 동참하고자 단장(斷腸)의 아픔으로 공고 합니다.

다 음

1. 종헌종법 임의개정(공포,시행) 97. 12. 20
2. 중앙종회 해산명령 1999. 7. 23일字
3. 총무원장 해임통보 1999. 8. 6일字
4. 개정종헌 무효확인 결정 (부산지방법원 민사 6부) 1999. 10. 20일字
5.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부산지방법원 민사 1부) 2000. 6. 8일字
6. 총무원장(대행), 사무총장 임명
7. 내용증명서(법원결정)송달 (서울광화문 우체국소인) 2000. 9. 2일字
8. 1차 상벌위원회의 개최 2000. 9. 26일字
9. 상벌위원회 출두고지 송달 (종정예하 선계문 동봉) 2000. 10. 9일字
10. 2차 상벌위원회의 개최 2000. 10. 23일字
11. 종정예하 재가 2000. 10. 26일字

성명 : 송 거 욱 (법명·無盡)
직위 : 전 총무원장
징계결정 : 褫奪度牒 (체탈도첩)

佛紀 2544 (西紀 2000) 年 11 月 8日
대한불교 원효종 종정 이 법 홍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21세기를 선도해 갈 정보통신 분야 종사자들이 정보통신불자회(회장 윤창권·명신 하이넷 대표)를 창립하고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빠르고 폭 넓은 불법 홍포와 보살행 실천에 나섰다.

정보통신불자회는 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해인정사 주지 수진스님,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 회장, 주홍식 부산불교방송 총괄국장, 이하우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을 비롯한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법회를 봉행했다.

정보화시대 포교첨병 다짐

부산 정보통신불자회 창립…회원 160명

장학사업 · 사찰후원…전국조직도 추진



◇정보통신불자회는 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정보사회에 걸맞는 적극적인 신행과 실천행을 다짐했다.

정보통신 시설업체 및 정보통신 사업기관의 임직원과 가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불자회는 이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걸맞는 발빠른 포교와 신행활동을 다짐했다. 특히 수진스님은 '지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 법문을 통해 "정보나 지식에 의존하는 삶보다는 지혜로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며 "정보통신불자회가 지식보다는 지혜로운 삶을 가꾸고 전하는 모임"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 선출된 윤창권 회장을 비롯한 한재구 고문, 우순현 상임부회장 박찬호 간사장 등은 3개월 전부터 창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확보와 조직 구성에 힘써 왔다. 처음 불자회 창립을 발원했던 몇몇 불자들의 마음이 모여 지금은 회원수가 160명으로 늘어나 자연스럽게 창립을 맞은 것이다. 윤창권 회장은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인 만큼 적극적인 신행과 정진은 물론 사회를 밝히는 실천행에서도 앞장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정보통신불자회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품에서 정진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몇 가지 사업 계획을 다부지게 세워두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회원의 신행과 정진.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법회 일로 정하고 스님이나 불교 전문 강사의 초청 법문이나 강연을 갖는다. 12월 첫째 주에는 내원정사 정련스님의 법문을 요청해 놓고 있기도 하다. 또한 장학사업과 형편 어려운 사찰, 스님들에게 교육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편 부산을 모태로 전국 광역 지역단체별 정보통신불자회 창립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이자 빼놓을 수 없는 사업 계획이다.

정보통신불자회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는 것은 곧 빠짐없이 불법을 전할 수 있는 거대한 그물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2월까지를 구체적 준비기간으로 보고 있는 정보통신불자회의 행보에 모아질 관심은 날로 늘어나는 업체수와 종업원수에 비례한다. 정보통신 공사와 설비 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을 모두 망라하는 정보통신 관련 업체와 종사자는 부산에만도 8백개 업체에 2천5백여명, 전국적으로는 4천5백개 업체에 30만 명에 이를 정도.

"불심 강한 부산에서 먼저 출발했으니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등에서 활동하는 정보 통신분야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내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진단하는 윤회장은 "정보통신불자회의 창립이 정보통신의 세계에 부처님 법을 꽃피우는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우리모임에선

은평구청불심회 수계법회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10일 진관외동 삼천사에서 주지 성운스님을 모시고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이배영 구청장을 비롯해 불자 70여명이 계를 받고 참 불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석불선양회 평화발원 법회



한국석불선양회는 5일 강원도 영월 일대 석불을 친견하는 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이날 순례법회에 참석한 50여명의 회원들은 사자산 법흥사를 참배한 후 요선암 마애미륵존불 전에서 풍년농사 감사제 및 인류 평화를 발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 이어 안양 망해암 보명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를 들으며 불심을 다졌다.

대구북부경찰서 보리암 순례

대구 북부경찰서 법우회(회장 김유택)는 5일 남해 보리암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날 성지순례에는 4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신심을 키웠다.



KBS불자회 김용사 참배

KBS불교연구회(회장 박영석)는 대구방송총국, 안동방송국과 공동으로 지난 5일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200여명의 불자들은 이날 문경새재 도립공원 내 KBS 대하드라마 왕건 오픈 세트장과 김용사를 참배하며 신심을 키웠다. 이날 성지순례에는 KBS불교연구회 박영석 회장의 제안으로 MBC불교연구회와 SBS법우회원들이 동참, 처음으로 방송3사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3사 불자들은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위해 연합법회 및 합동성지순례를 각 방송사별로 돌아가며 개최하자고 입을 모았다.

박영석 회장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약간의 교류는 있었지만 방송 3사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행사는 없었다"며 "앞으로 연합모임을 자주 가져 조속한 시일내에 방송불자연합회가 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낙동강도보순례단은 8일 대구 홍사단에서 낙동강수계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생명수, 낙동강 살리자" 한목소리

도보순례단 대구환영대회

위천공단반대·결의문 낭독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낙동강도보순례단(단장 수경스님)은 8일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대구시 달성군 사나면 강정마을에 순례 15일만에 도착했다.

16개 지류중 11개가 5등급 이하로 오염됐다는 금호강, 낙동강오염의 주범이라는 금호강과 낙동강 본류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텐트를 친 순례단은 대구시내 홍사단에서 열린 낙동강수계 지역주민 간담회 및 낙동강 도보순례단 대구환영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구 위천국가공단 지정을 둘러싼 부산 시민과의 갈등 등 예민한 문제들이 많아 더욱 관심을 모았다.

대구경실련 김명한 상임대표, 대구환경운동연합 김춘희 공동의장, 김석봉 범영남권댐백지화투쟁위원장 등 지역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순례단이 그동안 낙동강을 끼고 걸어오며 조사한 환경오염 실태와 대구 시민단체들의 낙동강살리기에 대한 입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공동대표인 도법스님은 "대구지역 시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위천국가공단을 조성하려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을 회복불능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시민단체 대표들도 "위천국가공단 지정은 시민단체들도 꾸준히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지역언론과 주민들의 경제활성화 여론에 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서 "낙동강 도보순례단의 활동을 계기로 낙동강 네트워크를 구축, 낙동강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동화사 주지 성덕스님 등 300여명이 참석한 환경대회에서는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과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의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굳은 의지가 담긴 '공동 결의문'이 낭독됐다.

결의문에는 현재 환경부가 구성한 낙동강 물이용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낙동강 유역의 댐 건설계획의 백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탐욕 버리면 강산 맑아져요"

인터뷰 순례단장 수경스님



"낙동강을 따라 걸으면서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동체대비사상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환경운동을 떠나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참 수행을 위한 재 발심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낙동강 도보순례 15일째를 맞은 도보순례단장 수경스님은 고된 도보와 야영생활로 감기·몸살에 걸린 상황에서도 낙동강과 지리산을 살리겠다는 강한 원력을 발원했다.

새벽 5시에 기상, 16명의 순례단원과 함께 하루 30Km를 걷는 강행군에서 인간의 탐욕으로 죽어가는 국토의 신음소리를 느끼는 순례는 그야말로 '심청정 국토청정'을 몸으로 실현하는 수행의 과정이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강물의 자정능력을 확인할 때 기쁨을 느낀다'는 수경스님은 환경운동이 결국 마음 닦는 수행과 다를 바 없음을 강조한다.

"모든 국민들이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마음 공부를 한다면 정부의 정책도 친환경적으로 바뀔 것이고, 산하도 맑아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대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게시판

알림

▲인터넷 무료 정보센터 개설=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13일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한 정보터'를 개설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031)716-4215

▲한글대장경 발행 일일찻집=장애인포교 단체인 조계사 원심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한글대장경〉 발행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샘터다방(조계사 맞은편 신한은행 지하)에서 개최한다. (02)720-4528

강좌

▲불교 기본교육=조계사는 초심자를 대상으로 28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불교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강의시간은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시30분과 오후 7시이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주말반도 운영한다. (02)720-1390

▲무료 사회교육=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즐거운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가요교실, 단전호흡, 컴퓨터, 한지공예, 우리음악 등 무료 취미 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02)385-1351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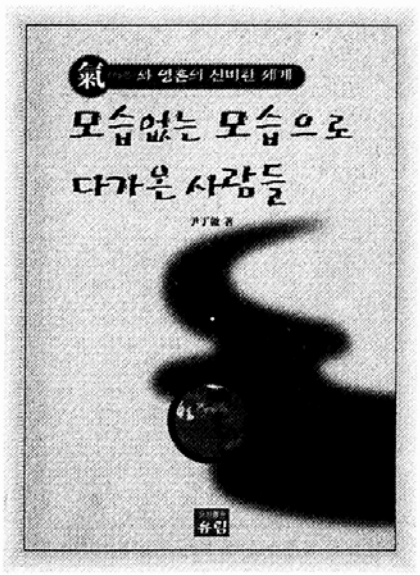
▲내원정사 종무원=부산 내원정사는 회계 및 관리직 여 종무원을 모집한다. 고졸 이상으로 불심이 돈독한 불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051)242-0691

▲결연 사업 동참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관내 무의탁 독거 어르신과 1대1로 결연을 맺어 정서적,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후원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대구 자비의 전화 후원자=대구자비의 전화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무료급식을 후원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053)753-9734

▲수지침서비스 자원봉사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수지침 서비스를 실시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365-3677

▲가릉빈가 소년합창단=수원포교당 불교문화원은 가릉빈가 소년소녀 합창단 신입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이며 지원자는 합창단 지원서 1통을 12월 중순까지 제출한 후 오디션(자유곡 1곡)을 거쳐 선발된다.(031)245-7048



윤정주 저 · 도서출판 유림
<값 15,000원>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있는 초월된 정신세계에 관한 아름다운 체험 이야기로 그에 뒤따른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이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밝혀놓은 도깨비방망이 책입니다.

氣(마음)와 영혼의 신비한 세계

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

신비한 기(氣)와 마음의 묘법을 밝힌『모습없는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들』(윤정주 著 도서출판 유림 펴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몸의 아픔이 천도가 안된 보이지 않는 영혼(靈魂)의 의식인 기(氣:에너지)체가 사람의 몸 속에 시공을 초월해 들락거리므로 인해서 비롯된다는 저자의 초능력적 체험 이야기를 세계역사상 최초로 그 이론을 세밀하게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히 밝혀놓고 있다.

저자는 그러한 초능력을 소유하고 나서도 저자의 능력에 관한 이론과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중국을 왕래하며 중국 원극학의 진인(眞人)인 장지상(張志祥)교수로 부터 기(氣)와 광(光), 음(音)의 이론으로 구성된 원극학(元極學)을 전공받았으며 원극학(元極學)연구와 수련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저자 윤정주는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아무 곳에서나 어떠한 의식(儀式)도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1~2초 내에 영가천도(靈駕薦度)를 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아픔을 원격(遠隔)으로 해결하는 수행(修行)에서 얻어진 독특한 초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원인과 이유를 알려 주고 심신의 안정을 바르게 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기(氣:저자의 마음에너지)를 서울과 대구의 수련원에서 시공을 초월해 나누어주며 해결해 주고 있다.

영남일보, 매일신문 논평기사중에서 -

지금도 우주공간에 떠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들, 그러나 나는 그보다도 또 그렇게 떠돌게 될 예비영혼들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자세)의 구제가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글 솜씨를 마다하지 않고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으며 또한 나름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빠르게 지름길로 인도하기 위한 생각에서 미흡한 실력이지만 수련원을 열었습니다.

- 책의 본문에서 -

영가천도에 관한 저자의 초능력 체험 이야기와 우리 인간의 아름다운 마음의 묘법을 아주 쉽고 정확하게 밝혀주는 신비하고 재미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서울, 대구 진여기 수련생일동 · 도서출판 유림

전화 : 02-736-7148, 723-3856
팩스 : 02-736-7148

※ 본인들의 의식수준에 따라서 개별적인 영가천도 초능력 전수도 가능함

연꽃마을 어린이 32명 경주나들이

신행현장 |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생회 3년째 초청

"둔어발이 재미나요. 다음에 오면 또 탈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노오란 생활한 복을 입고 연신 재잘거리는 다현이. 대학생 언니의 손을 꼭 잡고 놓을 줄 모른다.

슬비, 은지, 진기, 동호… 가을 들꽃 보다 예쁜 32명의 예천 연꽃마을 아이들이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생회(회장 조태영)와 불교도연합회(회장 박진현)의 초청으로 5일과 6일 이틀간 경주 나들이를 했다

맑은 눈망울의 구김살없는 행동을 보면 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를 잃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들, 그리고 다운증후군, 지체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장애아들이다.

94년부터 예천 연꽃마을과 인연을 맺고 매년 3~4번의 방문을 통해 정을 쌓아 오던 불교문화대학생회와 불교도연합회원들은 방문 때마다 각별하게 따르던 아이들의 눈망울을 못 잊어 경주로 초청하기 시작한 것이 올해로 3년째.

정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에게 색다른 기쁨을 주고 싶은 욕심에서 용돈을 아껴 모으고, 모금운동, 스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동분서주한 끝에 예천 연꽃마을 아이들의 경주 나들이가 시작된 것. 학생들의 힘으로 1박 2일 동안의 경비를 충당하고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보살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렵게 시작한 만큼 가을 햇살에 살랑거리는 단풍보다 고운 웃음을 아이들에게 안겨주어 아이들의 얼굴에는 경주남산 아기부처님 웃음같은 해맑은 미소가 상글거렸다.

"부족하지만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도리어 힘을 얻는다"는 강성현(동국대 국악과·22)씨는"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사는 아이들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부처님의 동체대비가 무엇을 말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고아의 외로움
장애의 서러움
잠시 잊어버리고
즐거운 古都구경

이번 행사에는 정재진(불교학과·25) 김연주(불교아동학과·22)등 15명의 대학생 불자들이 이들과 아이들의 엄마 아빠이자 언니 오빠로 나섰다.

첫날 경주 월드에 도착한 아이들은 조를 나누고 장기자랑과 촌극을 함께 하며 밤이 깊어 가는 것을 잊었다. 연꽃 마을을 떠나 본적이 없는 아이들은 시간이 달아나기라도 하듯 잠을 쫓으며 만화 주제가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캠프파이어로 사랑의 불꽃을 지폈다.



◇예천 연꽃마을 어린이들이 경주월드를 찾아 대학생불자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이튿날, 새벽같이 눈을 뜬 아이들은 연신 재잘거리며 경주월드 놀이동산으로 향했다. 문어발, 바이킹, 회전목마 등 갖가지 재미있는 놀이기구에 올라탄 아이들은 함성을 내지르며 불편한 몸도, 엄마 아빠 없는 슬픔도 날려 버렸다.

불교문화대학생회 조태영회장은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고 싶은데 재정적 어려움이 가로막을 때가 가장 안타깝다. 내년에는 많은 이들의 힘을 더 보태어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고 말하며 아이들을 향한 눈길을 떼지 않았다.

94년 처음 연꽃마을을 방문했을 때 연꽃 마을의 식구였던 박재성(불교학과·25)씨는 이제 불교학생회의 일원으로 성장했다. 동생들에게 잘해주고픈 마음은 태산같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경비 외의 사비는 절대 쓰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한다. 자칫 바라고 기대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는 걱정 때문. 회원들의 아이들 사랑은 이렇게 깊었다. 넓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장이 좁다 하고 휠체어를 밀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누볐다.

이틀간의 경주 나들이가 아이들과 회원들의 마음에 남긴 여운은 길다. 나들이에서 돌아간 회원들과 아이들은 편지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기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텅 비워야 가득 채울 수 있다

'나'가 있다는 생각이 굳으면 굳을수록,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진다. 그래서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된다.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내 것이 없는 데 대한 불안 또한 더 커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은 벌고 보는 것, 권력은 잡고 보는 것, 자리는 앉고 보는 것이라며 소유에 집착한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러나 개중에는 '나', '나의 것'으로부터 벗어난, 아니면 적어도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른바 무소유를 실천하는 이들이다. 그런 이들의 남다른 특징은 매사에 걸림이 적고 한결 자유로워 보인다는 점이다.

'나', '나의 것'을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는 한 우리들 자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존재와 소유라는 이름의 감옥에 꽁꽁 갇힌 꼴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자유를 팔아서 대신 '나의 모습, 나의 명예·권위·재산' 따위를 사들이고 있는 셈이다.

지혜란 '본래부터 나라고 내세울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어리석음이란 물질과 육신은 필경 멸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제법무아(諸法無我), 즉 인연 소산의 현상계에선 실체로서의 '나'란 것이 없다고 하셨다. 누구라도 '나'라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걸림없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엄연히 있는 것을 어떻게 없다고 하느냐는 반문에 있다. 살을 꼬집으면 분명히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슬프고, 재산을 잃으면 괴로운 것이 삶이 아니던가. 그러나 그것은 중생적인 생각일 뿐 부처님이 설파하신 참도리와는 아득히 걸다. 아니,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허상이요, 꿈이요, 물거품이라고 하셨다. 진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셨다.

부처님 말씀을 믿는 불자라면 먼저 그 '나'라는 생각,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버려보라. 자만심, 애착, 소유욕으로 꽉 찬 마음을 비워보라. 그리고 대신 무엇이 찾아오는지를 보라. 빈 그릇엔 새 것이 담긴다. 텅 비워야 가득 채울 수 있는 법이다.

龍眼

주계가 있는 법문

똑같은 시간 흘러가지만 어떻게 쓰느냐 천차만별



혜원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옛날, 카이시국의 어느 마을의 '바라문의 아들이 출가해서 히마라야산에서 수행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천녀(天女)가 그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자태로 변해서 유혹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행승은 자신에게 어느 만큼의 인생의 시간이 남아있는 지, 또 언제 죽음을 맞이할 지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게송을 외었습니다.

시간은 많으나 나는 볼 수가 없네.

그래서 달갑지 않는 탁발을 하는 것이다.

나의 시간이 무심코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되뇌이는 동안 천녀의 유혹은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 전생의 모습을 담은 〈자타카〉에 있는 이야기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시간의 길이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배움 회향하며 인간답게 사는길

예를 들면, 기분 좋은 시간은 '아' 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그지없이 천천히 흐를 뿐입니다. 또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충실하게 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헛되게 보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의 농도는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평소 아무런 느낌없이 시간을 쉽게 보냅니다. 각자에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음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직면했을 때, 우리들은 갑자기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확연히 인식합니다. 시간이 유한함을 인식할 때, 비로소 스스로 시간을 충실히 착실히 아주 중요하게 보내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일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내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즐거움을 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큰 즐거움을 결코 맛 볼 수 없으며 작은 즐거움도 오래 간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즐거움 뒤에는 언제나 불행과 고통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이나 어른들은 "참고 견디면 언제나 큰 행복이 돌아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중국 당(唐)나라의 선사들은, 말이 튀어나오기 전의 본래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평정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도인은 시간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유연하게 생과 사를 초월하고 이승과 저승을 초월한 '자연인(自然人)'일 것입니다.

자연인의 마음은 얽혔던 것을 풀고 뜻한 바 있으면 이루고 가길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별을 버리고 빈 그릇을 가지면 아무런 장애없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 컵이 있다고 칩시다. 이 컵에 새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선 컵에서 물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 물이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안 마음에 담아 두었던 경쟁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빈 마음이 돼야 다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분별이 없어져야 마음이 열리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연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은 그 동안 지나간 가을의 빛과 다를 것이고 올 겨울은 다음 해의 겨울 색과 다를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행캘린더

11월 15일 (수)

■ 청담대종사 29주기 추모법회= 도선사는 오후 11시 호국참회원 대강당에서 청담대종사 29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한다. (02)993-3161~3

■ 대구광역시 유마회 합동법회= 대구광역시청 유마회는 관내 구청 불자회와 오후 7시 삼덕동 관음사에서 원명스님을 법사로 합동법회를 봉행한다. (053)429-2617 박영홍

11월 16일 (목)

■ 조계종 교육원 승복세미나= 조계종 교육원은 오후 1시 조계사 종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승가복식의 의의와 승복의 유통 및 개선방향에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02)732-4923.

■ 법왕사 달서분원 7인 큰스님 초청대법회= 법왕사 달서분원은 22일까지 7일간 정무, 인환, 일진, 실상, 설호, 보각, 자광스님을 차례로 초청, 7인 큰스님 초청대법회를 봉행한다. (053)644-8108

11월 17일 (금)

■ 영락사 관음불상 봉안 및 원통보전 낙성식= 도계 영락사는 오전 10시 관음불상 봉안 및 원통보전 낙성식을 봉행한다. (033)541-0340

■ 일타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재=해인사는 동곡당 일타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재를 오전 10시 대적광전에서 봉행한다. (055)931-1001~2

■ 봉림사 백고좌법회=창원 봉림사는 오전 10시 30분 파계사 주지 성우스님을 초청해 백고좌 법회를 봉행한다. (055)267-6336

■ 진각종 부산 밀교교리대법회= 불교진각종 총금강회 부산지부는 오후 2시 부산일보 10층 강당에서 밀교교리대법회를 봉행한다. (051)464-0668

11월 18일 (토)

■ 부천남부경찰서 경승실 순직경관 위령재=부천남부경찰서 경승실은 서내 법당에서 호국순직 경찰관 위령재를 봉행한다. (032)612-9848

■ 수원 공소사 개원법회=수원 공소사는 오전 10시 금강선원 원장 혜거스님을 증명법사로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031)246-1001

11월19일 (일)

■ 강남구청 불심회 성지순례=강남구청 불심회는 원주 구룡사와 영월 법흥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출발은 구청앞 7시. (02)3463-0377 양승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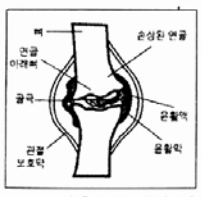
11월21일 (화)

■ 우곡선원 참선교실=우곡선원 서울본원은 오후 8시 선방에서 한달과정의 참선교실 입재식을 갖는다. (02)529-5027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칼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닭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간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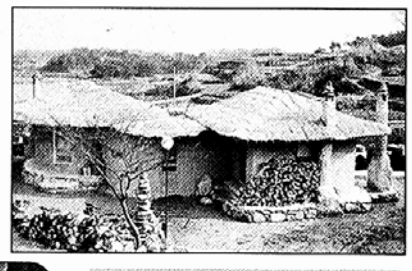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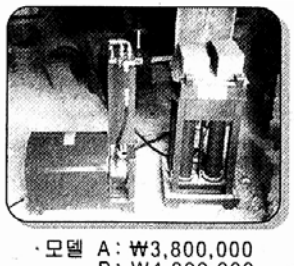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2-021769 봉송황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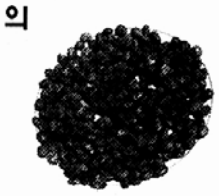
황토전문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 檀화 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지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괘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피랭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8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



◇진실한 참선은 염불심이 없으면 안될 정도로 염불은 불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수행방편이다. 건봉사 전국염불만일회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불자들.

마음깊이 명호불러야 삼매

참불자의 길 — 염불수행②-올바른 염불

"근기 낮은 수행법 오해"
"기복보다는 정토 염원"

염불(念佛)은 과연 근기가 낮은 불자들만이 하는 수행법인가? 또 재를 지낼 때 주로 하는 진언에 불과한가?

전국염불만일회 김재일 회장은 "진실한 참선도 바로 염불심이 없으면 안될 정도로 염불도 참선만큼 중요한 수행방편"이라며 "입으로 한다고 가볍게 여겨 염불수행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걸로 여기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이야기 한다. 또 김 회장은 "염불은 절에서 재를 올리거나 사람이 죽으면 외우는 단순한 진언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불자들이 의외로 많다"며 "기도 할 때 현세의 기복에만 빠져 극락정토를 염원하는 내세의 아미타 염불신앙을 소홀히 하는 것은 수행에 임하는 불자로서 고쳐야 할 병폐"라고 지적한다.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 스님도 염불할 때의 마음 가짐에 따라 염불은 자력신앙도 되고, 타력신앙도 될 수 있다며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생각하며 염불에 임해야 수행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요즘 불자들은 염불의 정확한 의미를 대수롭게 않게 여기며 오로지 현재의 기복을 위해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올바른 염불 태도가 아니라고 스님은 충고한다.

법산 스님은 또 "의식과 재를 지낼 때 하는 의식 염불은 스님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염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며 "의식 염불은 단순히 신앙에 대한 의식일뿐 승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가 불자들도 배우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강조한다.

염불 수행을 오래한 수행자들은 공통적으로 염불이 절에서만 하는 수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고정 관념이며 일할 때나 수행정진하거나 쉬고 있을 때도 염불행은 끊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 생각지 않는다면 도를 닦는데 유익함이 없다는 염불수행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무아의 경지에 들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염불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칭명념(稱名念), 관상념(觀像念), 관상념(觀相念), 실상념(實相念) 등 네가지가 있다. 이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칭명염불이다. 명호를 부른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인 '아미타불'의 대서원을 의심없이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뜻은 광명의 세계인 정토를 간절히 염원하는 발원을 담고 있다.

염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미타불'의 의미를 잊지 않고 염불해야 자신이 가는 길이 분명해 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장보살'이든 '관세음보살'이든 그 본래의 의미만 되새긴다면 어떤 명호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점을 특히 강조한 법산 스님은 "처음에는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명호를 부르는 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익숙해 지면 자신의 힘과 음량에 맞도록 편안한 음성으로 염불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또 스님은 "칭명염불이라고 해서 반드시 입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입으로 부르는 구념(口念)이 깊어져 순일하게 돼 마음속으로 심념(心念)이 이루어지는 경지가 바로 염불삼매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박태원 교수의 12 불교로 보는 신생

고난이라는 도반

변화 감당해낼 '용량 키우기' 필요

신지식인이니 뭐니 하면서 너무 호들갑스럽게 띄운다 싶더니만 기어코 사단이 나도 크게 났다. 시대의 총아로 각광받던 어느 벤처 기업가의 추태와 몰락에 따른 파문이 어지럽게 번져 가며 이 사회의 치부를 또 한번 헤집어 놓는다. 좌우지간 돈 되는 지식만 지니면 정보지식 사회의 주역이요 한국의 희망인 신지식인이라며 추켜세우던 경박한 소견머리들도 이번 사태의 조연 배우였음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격조와 정신적 품위를 간과한 국가 운영은 어차피 한탕 하고 튀는 장돌뱅이관 수준을 넘지 못하는 법. 화려한 조명과는 멀리 떨어져 묵묵히 고독과 벗하며, 실로 오랫동안 한 켜 한 켜 쌓아 올리는 문화 능력의 성숙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이 시대 국가 운영의 주체들은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폭죽 쏘고, 가수들 무대 올려 한 바탕 신바람 올리고, 무슨 무슨 국제 박람회니 문화행사니 하는 겉껍질 화려한 일회성 이벤트가 문화의 이름으로 번성한다. 문화력의 축적이나 향상이나 성능도 커져야 넘치거나 깨지지 않는다. 그릇 용량과 성능은 예전 그대로인데 담아낼 양과 질은 크게 달라졌을 때, 그 변화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큰 돈 담아낼 용량이 아닌데 돈 복 밀어닥치면, 그 재물 복은 삶을 요절내는 돈벼락이다. 돈 되는 신지식 운운하려면, 큰 돈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는 적절한 '문화적 통과 의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그런 문화적 통과 의례들이 적절히 가동하지 못하는 한, 권력과 재력을 둘러싼 수준 이하의 어처구니없는 작태들은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

인간은 생물로서 태어난다. 그러나 인간만이 생물학적 탄생의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탄생'을 시도할 수 있다. 무수한 과거 생으로부터 길들어 온 관행적 삶의 차원을 넘어서 버리는 파천황(破天荒)의 거듭 남을 성취할 수 있다. 탐·진·치의 주체에서 지혜와 자비, 깨달음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 질적 도약은 당연히 그에 걸맞는 특별한 통과 의례를 요구한다. 이 새로운 탄생은 차원 변화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변화를 감당해 낼 수 있는 '깊게 패인 정신의 주름살'을 요구한다. 새로운 탄생에 성공한 역대의 영웅들이 한결같이 특별한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은 그런 까닭에서이다. 지금 남다른 고난과 역경에 처했다면, 그 상황을 특별한 통과 의례로 삼아 버려라. 그럴 때 고난은 최고의 도반이 되리.

이 칼럼을 읽고 있다는 '정지태'라는 수인(囚人) 한 분이 수준 높은 구도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 주셨다. 한때 전도사로서의 변신도 시도했었다는 그 분은, 20년 수인 생활 끝에 지금 부처님 법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진행 중이라 하신다. 안타깝게도 충분한 불서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니,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연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칼럼을 읽고 있는 '정지태'라는 수인(囚人) 한 분이 수준 높은 구도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 주셨다. 한때 전도사로서의 변신도 시도했었다는 그 분은, 20년 수인 생활 끝에 지금 부처님 법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진행 중이라 하신다. 안타깝게도 충분한 불서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니,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연이 생겼으면 좋겠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일본 최고 수준…중국 최근들어 활발

34 선어록의 연구(2)



송인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선어록언어

일본의 선종언어 연구 수준은 선종사상 연구와 더불어 세계 최고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중국은 일본과 비교하면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은 늦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매우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겸창 실정(鎌倉室町) 시기, 즉 12~14세기에 중국으로부터 선종이 전파되어, 17세기 이후부터 언어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면, 동양영조(東陽英朝)의 〈증보두서선림구집(增補頭書禪林句集, 1688)〉은 선어를 집대성한 일본 최초의 사전이다. 선어록 언어 연구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에 임제종(臨濟宗) 승려인 무 저 도 충(無著道忠:1653~1745)이 있는데, 그는 평생 무려 255부 873권의 불교 관련 저서를 남겼으며, 다수가 선어록의 어휘를 분석한 것으로, 예를 들면 〈선림상기전(禪林象器箋)〉 〈선림방어(禪林方語)〉 〈갈등어전(葛藤語箋)〉 〈지나속어(支那俗語)〉 〈허당화상어록여경(虛堂和尙語錄梨耕)〉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인데, 안타깝게도 그의 저서는 거의가 수고(手稿)로, 극히 일부가 전사(轉寫)되어 유통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야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의 것을 분야별로 간략히 소개한다면, 선어록의 번역·역주로는 〈선의어록(禪の語錄)〉(축마서방:筑摩書房)이 가장 믿을 만하다. 선학 사전으로는 구택대학(駒澤大學)이 1985년 편찬한 〈선학대사전:禪學大辭典〉(대수관서점:大修館書店)이 가장 많은 연구자가 참고하는 것으로, 무려 3만2천여 항목을 해설하고 있는 종합 사전이다. 어록 및 공안집에 출현하는 선어의 출전까지도 밝히고 있는 역작이다. 선어사전으로는 고하영언(古夏英彦)이 1991년 편찬한 〈선어사전:禪語辭典〉이 가장 믿을 만하다. 그밖에 선어록 어법을 연구하는 학자로는 태전진부(太田辰夫) 지촌양지(志村良知) 등이 있다.

이 밖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경도(京都) 소재의 화원대학(花園大學) 국제선학연구소(國際禪學研究所)로, 세계 최고의 선학 연구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주로 선종 문헌의 정리, 출판 및 언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소위 '선종어록 연구반'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데, 이는 우리의 윤독회와 비슷하나, 여러 분야의 전공자가 함께 하나의 문헌을 선정하여 철저히 연구한다는 점이 다르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송대(宋代)의 승려인 목암선경(睦庵善卿)이 1108년에 편집한 〈조정사원:祖庭事苑〉이 간행되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선어사전이나,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기간에는 특기할만한 사항은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중국 대륙의 경우, 문화대혁명(1966~1976)이 종료된 1980년대 초부터 선학 연구와 더불어 언어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선어록 선집(選集) 가운데 학술적으로 참고 가치가 있는 것은 원빈(袁賓)의 〈중국선종어록대관:中國禪宗語錄大觀〉 〈선어역주:禪語譯註〉 등이 있으며, 선종 사전으로는 역시 원빈의 〈선종사전:禪宗詞典〉이 있는데, 이는 각종 어휘 등 모두 6,400여 항목을 수록한 역작이다. 선어록 언어 개론서로는 역시 원빈의 〈선종 언어와 문헌:禪宗語言和文獻〉이 있는데, 필자가 번역중으로 조만간 출판될 예정이다. 그리고 선어록 어법 관련 저서로는 노열홍(盧烈紅)의 〈'고존숙어요' 대명사·조사 연구:'古尊宿語要' 代詞助詞研究〉가 있으며, 이외에도 적지 않은 논문들이 있다. 대만(臺灣)의 경우, 단행본으로 구양의장(歐陽宜樟)의 〈벽암록의 언어 스타일 연구:碧巖錄的語言風格研究〉가 있으며, 고웅현(高雄縣)에 위치하고 있는 불광산(佛光山)이 1994년에 〈불광대장경·선장:佛光大藏經·禪藏〉(모두 51권)을 완간하였는데, 이는 세계 최초로 원문을 현대식 표점 부호(標點 符號)를 이용하여 출판한 것으로, 이후에 간행된 중국 대륙·일본 등지의 표점본(標點本)은 모두 이것을 참조할 정도이다.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특허상품
국내 최초 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 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옴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 있어 아주 특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특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람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판매가격표		
저고리 바지, 조끼	남 여	130,000
누비 (上,下)	남 여	180,000
방한복 (上)	남 여	130,000
바랑	大 中	30,000 25,0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56-8848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불치병 난치병을 예방 · 치료해주는/대체의학 천연자가 치료법
선도(禪道)체조천의(天醫)활인술전수



▶ 禪道비법 그약손은 천수관음의 조화를 일으켜 뇌공심법(雷公心法)으로 병마를 벼락같이 퇴치합니다.

⊙ 禪道체조는 기공체조의 원조

때와 장소, 男女老少 막론하고 쉽게 익혀, 심신을 튼튼하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고저 함이요, 전신(全身)운동으로 초능력을 개발시킬 수있으며, 그 힘을 손바닥에 집중시켜 타골조사(打骨照射)하면서 처방하는것이니, 방사능 치료와 물리 치료의 복합적 효과를 볼 수있다.

· 신경쇠약 노이로제,불면증,당뇨,우울증,변비,고혈압,위장염, 좌골 신경통,만성기관지염,정력증강,조루증,피부미용, 대인공포증,암 억제 등의 치유력을 증강시킨다

⊙ 천의(天醫) 활인술

▶정신, 육신 긴장상태 - 심신이완
▶기혈이 막히면 질병이 생기므로, 경락을 소통시켜(元氣)를 기르며, 기혈을 원활히 하여 백병(百病)이 저절로 낫게 함이다.
▶천문(天門)이 열려 당신의 손이 기적의 약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신건강법 - 3개월 과정	큰 불사 후 지병을
◦지도법사반 - 6개월 과정	얻으신 스님 출장 상담
◦주 2회 개인별 전수	(전국 禪院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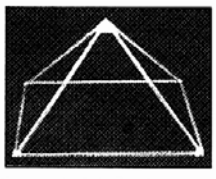
053-982-6778 / 011-813-3679
일신 성불 기도 도량 **지 장 선 원**

氣 파스 요법

氣가 통하면 통증도 사라집니다!!



◦ 氣 파스 요법
氣가 막힌 곳에 붙여 주면 시원해 지고 통증도 사라집니다.
▶ 허리용 set ₩20,000
▶ 무릎용 set ₩20,000



◦ 氣의 신비감 피라미드
(KBS2-TV 체험사례)
· 피라미드내에서 명상효과(박병운박사)
· 식물성장과 방중해 방지효과(민병성씨)
· 저혈압으로 수십년 고생하다 좋아짐 (주부 장영심씨)
· 노화없이 건강이 호전(이호준씨)
₩350,000



▶ 순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파워봉 ₩80,000



은히란아목걸이 ₩88,000



▶ 氣 밴드
· 무릎밴드₩ 18,000
· 머리밴드₩ 9,900
· 손목밴드₩ 8,800
· 팔목밴드₩ 12,000



氣 목대 ₩39,000

※ 무릎, 허리, 다리, 신경통 등 불편하신 스님들에게는 찾아오시면 氣파스를 무료로 붙여드리고 우송도 해드립니다. (100분)
(우) 014092-06-011003 (김건순)

▣ 성인병(관절염, 무릎, 허리, 비염, 위장, 간)에 대한 상담
▣ 파스요법에 대한 안내 책자를 무료 우송해 드립니다.

韓國氣研究院 02)455-6944 · 453-5851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회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류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튠먼트라는 비법이 있기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 능력자(레이키 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회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쓴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튠먼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치료 능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1-제3단계, 3일정도 소요, 70만원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선에 만들어진 카지노에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다. 벌써부터 도박 중독증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생업을 포기하고 이곳에서 투숙하며 몇천만 원을 날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개인적인 파산은 물론 이혼이나 별거 등 가정파탄까지 불러올 수 있는 도박. 왜 도박에 빠져들어서는 안되는지 경전에서 알아본다.

이렇게 들었다

도박

"죄악만 키우는 결과된다"

▨도박에 빠지는 사람에게 여섯가지 위험이 있다. 이기더라도 미움을 사게 되고, 지게 되면 재산을 잃어 슬픔에 빠지며, 재산이 줄어들고, 법정에서는 그 말에 무게가 없게 되며, 친구나 관청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혼담에 지장이 있게 된다. 〈선생자경〉

▨재산을 잃는 여섯가지 원인은 술 마시기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며, 여자를 밝히고, 도박에 빠지고, 나쁜 친구를 사귀고, 게을러 방일함에 젖는 것이니라. 〈아함경〉

▨여자에게 미치고 술과 도박에 빠져 버는 족족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곧 파멸의 룬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숫타니파타〉

▨재물에는 여덟가지 위태로움이 있어 손해는 있고 이익은 없으니, 그중 하나는 도박에 빠져들어 재물을 가치롭게 쓰지 않는 것이다. 〈중본기경〉

▨술에 빠지면 가난하게 되고, 스스로 헤아리지 못해서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사치를 좋아함으로써 집안을 망쳐 화를 부르며, 남들과 노름하고 술을 마시면서 다른 여자를 엿보게 된다. 〈장아함경〉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법답게 재물을 구하며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正命)이라 한다. 〈사제경〉

▨남의 재물을 빌려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큰 괴로움이다. 남의 빚을 지고서 갚지 못해 독촉받는 것도 괴로움이요, 빚받을 사람이 집으로 자주 찾아오는 것도 괴로움이며, 빚을 갚지 못해 구속당하는 것도 큰 괴로움이다. 〈중아함경〉

▨나라의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왕의 권위를 잃게 되고 나라에는 도적이 들끓게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춤과 노래와 도박 등에 빠져 관료들을 살피지 않는 것이다. 〈증일아함경〉

▨보살은 자기 재물에 만족할 줄 알기에, 남을 사랑해서 침해함이 없다. 물건이 남의 것일 경우에는 남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으로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이 풀잎일 때라도 주지 않으면 취하는 법이 없다. 하물며 다른 생활필수품이야 이를 것이 있겠는가? 〈화엄경〉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르고 도박을 해서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보살은 늘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가난하더라도 도를 지키며, 오직 지혜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한다. 〈팔대인각경〉

▨남의 재물에 탐심을 일으키지 않는 자는 후생에 사람이 되어 부와 즐거움을 얻는다. 〈태자쇄호경〉

정선 카지노 '북적'…한탕주의 '망국병'

물자 세상보기

지난 2일 문을 연 강원도 정선 폐광촌 스몰 카지노에 연일 사람이 몰려들면서 여러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망국병이다. 일하지 않고 단번에 떼돈을 번다는 생각, 카지노 말고도 경마, 경륜, 각종 복권을 포함해 도박이란 것이 정부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세칭 말세가 지금이란 생각이 든다. 사람들이나 나라나 나이가 들면 들 수록 더 슬기로워지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거꾸로 나이를 먹는 것 같다.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힘써 노력한 정당한 열매를 얻기 보다는 '우연에 의한 한탕주의'로 팔자고쳐보자는 허무맹랑한 기회주의 풍조의 만연인가?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반박을 할지도 모른다. "정부까지 나서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도박인데 뭐가 잘못됐느냐?"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는 그 사회를 끝내 망치고 만다는 단순한 사실과 함께, 이 사람은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고 만물의 영장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영속적인 '가치추구'에 있다는 사실을, 이 가치는 삶의 의미를 갖다주는 토대로서, 나와 남을 동시에 이롭게 하는 특성으로서 자유, 평등, 평화를 그 본질로 한다. 지금 정선의 폐광촌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조금이라도 위와 같은 생각이 남아있는지를 살펴 볼 일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도박은 기독교의 하느님도 사탄도 참기 힘든 유혹의 하나였다. 구약성경의 '욥기'가 그 대표적인 본보기다. 독실하게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욥의 신심을 걸고 하느님과 사탄이 도박을 해서 결국에는 하느님이 이긴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기독교에서는 도박을 통해 중요한 가르침을 펴고 있다. 인간과 신의 하나 됨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도박이 이용된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도박을 한다. 도박을 하는 심리도 따지고 보면 그 뿌리는 탐욕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탐욕심은 경전에서 '삼계를 태우는 불길'에도 비유되며, 특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남긴 말씀을 담은 〈유교경(遺敎經)〉에서 부처님은 이것을 "독사, 사나운 짐승, 또는 원수보다도 더 두려운 존재로 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꿀 그릇을 손에 든 사람이 이리 저리 까불며 날뛰느라고, 보는 것은 오직 꿀뿐이요, 바로 앞의 깊은 구덩이는 보지 못함과 같으며, 또 그것은 고삐도 없는 미친 코끼리나 나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커다란 원숭이만큼이나 제어하기가 어려우므로, 재빨리 붙들어 함부로 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가르치셨다.

뿌리는 탐욕심

'삼계 태우는 불길'

正見-正思-正命

고해 벗어나는 길



성기서
서원대 교수

도박에 빠진 사람의 마음은 이와 같기에 현실을 바로 보지(正見) 못한다. 바로 보지 못하기에 바르게 생각하지(正思) 못할 것이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에 바른 삶(正命)을 살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올바른 정신집중(正定)에 들어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깨달음의 길에 들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부처님은 어떠신가? 한 나라의 왕위를 박차고 수행자의 길로 들어섬은 필자와 같은 중생의 눈에는 인생 최대의 도박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해탈과 수많은 중생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구세대비'라는 보살의 서원으로 초인적인 정진 끝에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여 수 많은 중생을 건지신 자리이타의 우주적 도박인 셈이다. 도박을 하려면 부처님처럼 해야겠다.

열·린·마·당 — 해외 유출 문화재 어떻게

지난달 26일 문화재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해외유출문화재는 일본·미국 등 20개국 7만4천548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해외소재 문화재 현황 파악 예산은 지난해 4877만원, 올해 5502만원에 불과해 정부가 과연 유출 문화재 환수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들 문화재를 우리 것으로 다시 끌어안을 수는 없을까?

해외유출문화재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재 전문가들에게 그 방법을 물었다.

"반환 요구보다 '무상기증' 유도"

이호관〈前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해외에 유출돼 있는 문화재를 현실적으로 되돌려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증'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불협화음을 낳는 '반환'이나,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한국관' 설치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다.

해외유출문화재 중에서 반환된 것은 4천여 점에 불과하다. 문화재를 약탈했다는 사료적 증거가 명백한 일본을 제외하면, 반환 요구에 응해줄 나라는 없다. 또한 한국관 설치 역시 재정적 한계가 따른다. 하나의 한국관을 설치하는 데는 30여억원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기증' 받을 수 있는 해외유출문화재의 범위는 넓다. 문화재 유출경위는 내국인이 선물하거나 헐값에 판매하는 경우와 전쟁 등 정치·사회적 혼란기에 국내에 거주했던 외국인이 강탈·습득한 경우인데, 선물·판매·습득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기증' 받는 사례가 아주 많다.

그런데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출문화재에 대한 치밀한 조사와 해외 주재 문화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사를 통해 유출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문화재 소장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물론 이에 앞서 정부의 의지와 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화재 관련 예산이 0.2%를 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은 반환이나 재구입은 고사하고 '기증'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에도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

"현지 한국관 설치 보존 활성화"

손희정〈한국국제교류재단 박물관담당〉



최근 프랑스와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에서도 경험했듯이 한 번 국외로 유출된 유물의 공식적인 반환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적으로도 약탈문화재 반환을 위해 많은 소송과 분쟁이 계속되지만 반환에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반환이나 기증을 받는 것보다는 '한국관' 설치를 통해 우리문화재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들이 대부분 제대로 전시, 관리되지 못하고 박물관 수장고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곧 '한국관' 설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1990년대 초 설립이후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온 해외박물관 한국실 설치 사업은 한국유물을 다량 소장하고 있는 해외 주요 박물관에 한국미술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이들 유물이 보존,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통해 우리 문화예술을 세계인들에게 소개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인류문화의 보고인 이들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만났을 때의 감격은 비로소 우리 문화재가 세계인들이 감상, 관리하는 세계인의 문화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뿌듯함일 것이다. 그러나 전시실 설치가 해외 문화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많은 유물들이 여전히 손상된 채 보존처리 전문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한국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국내 전문기관이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고

"해외이주 급증 왜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가"



김병관
아주대 교수·사회학

최근 우리 사회의 위기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해외이주의 급증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낯설은 타국에서의 삶을 찾아 기꺼이 한국을 등지고 떠났다. 최근 한 일간지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한국을 떠나 외국에 정착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8,929명 중 약 80%가 "기회만 온다면 이민 가겠다"고 답변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이민자 혹은 이민희망자들의 다수가 소위 우리사회의 무게중심이 되어야 할 고학력, 고소득, 중산층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해외이민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들 신이민자들은 그 동기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과거의 이민이 보다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떠난 '경제형' 이민이라면, 최근의 이민현상은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탈출형' 이민이다. '한국사회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고국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모든 것이 다 문제이다. 믿고 의지할 만한 국가적 비전이 없고, 정치는 국민의 조소의 대상에 불과하다. 정당한 보상체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 또한 무너진 지 오래이다.

이런 곳에 누군들, 왜 살고 싶겠는가? 국적이 소비재의 일종이라면, 내가 캐나다 국적을, 호주 국적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안 갖겠는가? 민족주의적 감상을 앞세워 이들을 비난하지 말자. 그건 구시대의 해답이다.

못나가게 할 수는 없다. 안나가게 해야 한다. 사람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시대에 사람을 떠나가게 만드는 이 사회는 분명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비전을 제시하라. 서로 믿고 살만한 사회를 만들자. 조금씩 양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 서로 격려하고 조금만 친절해지자. 떠밀어도 안 나가는 사회. 그것만이 해답이다.

국제특허 CE마크획득

스님, 이제 안심하고 운전하십시오. (기도와 업무에 바쁜 스님과 불자님들의 필수품)

차량 무선 핸즈프리 3Free 탄생!!

① 핸즈 프리 기능
② 충전 프리 기능
③ 고정 프리 기능

CE마크란?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마크를 말함

3Free 하이테크 기술의 결정체

1. 별도의 시공이 필요없는 시가잭 장착형
3-FREE는 별도의 시공없이 시가잭에 꽂기만 하면 고정되며, 바로 충전과 핸즈프리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제품처럼 양면 테이프로 붙이거나, 나사로 죄는 불편함을 해소함

2. 충전완료후 자동 차단기능
3-FREE는 핸드폰에 충전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충전기능이 차단되어 핸드폰의 노화와 화재를 예방합니다.

3. 비밀 통화기능
3-FREE는 차량내에서 통화중 다른 탑승자가 있을때 개인적인 통화를 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4. 초간편 다기능, 무선 핸즈프리
3-FREE는 시가잭에 꽂기만 하면 모든기능이 한번에 이루어 지며 다른 조작은 일체 필요없습니다.
별도의 옵션이 필요 없으며, 외부선이 없어 차량안을 쾌적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방판/직판 조직을 운영 중인 분이나, 세일즈에 자신있는 분들께 최고의 고수익 아이템입니다.

예상외의 짭짤한 수입 보장
출시 후 상품이 동이날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는 「쓰리프리」 취급점을 모집합니다.

최첨단아이템 「쓰리프리」 대리점·특약점모집
◆ 영업팀장(본부장)초빙 : 조직관리 3년이상 有경험자 주부팀 환영
◆ 영업 관리직/텔레마케터 : 男·女 ○○名
◆ 女 경리사무직 : ○名

부다콤 Buddhacom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9 象갤러리 405호
문의전화 : (02)722-1050
FAX : (02)722-0293

시가잭에 꽂기만 하면 OK!
지금 전화주십시오.

3Free 사용가능 기종

핸즈프리 충전프리 고정프리

■ 소비자가 : ₩68,000


모토로라 스타택 전용


S-001
삼성 애니콜(폴더형 전용)


SPH-N1000 SPH-A1200 SPH-A1004
SCH-A120 SCH-i1000
SPH-i1050 SCH-A8100 SCH-U02
SCH-6900 SCH-A100 SCH-S170
SPH-i1106 SPH-i1108 SPH-i1109


S-002
삼성 애니콜(폴딥형 전용)
SCH-6800 SCH-750 SCH-900 SCH-970 SCH-5900 SPH-6000
SPH-8018 SPH-2580 SPH-8000 SPH-8100
SPH-8500 SPH-8750 SPH-8700 SPH-8600
SCH-990 SCH-6400 SCH-5700 SPH-6010 SCH-770 SCH-a7300


S-003
삼성 애니콜(폴더형 전용)
SCH-A2000(듀오폴더) SPH-A2000

사·부·대·중

무주상보시



이귀인
한국석불선양회

금년 봄,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였다. 1개월 전에 미리 현지를 찾아 필요한 보시품목을 정하고 50여 회원들이 정성껏 마련하여 현지에 도착했다.

스님의 안내를 받아 법회를 보고,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원생들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조용 발길을 옮기며 복지시설의 이곳 저곳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침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머리를 깎아 주는 학생, 중증환자를 마사지해주는 학생, 노래를 가르치는 학생 등 최선으로 원생들을 보살피는 모습은 마치 보살의 화현 같았다.

안내하는 스님에게 이것저것 질문하며 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체험이었다. 그런데 시설 견학이 끝난 후, 보시품을 운동장 가운데 내려놓자마자 원생들이 달려나와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며 기념사진 찍을 때의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안내하는 스님을 쳐다보니 "자, 기념사진 찍으셔야죠"하신다.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스님께 "저희는 기념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보시품을 많이 준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작은 성의지만 크게 받아 주십시오" 하니 이번에는 도리어 스님이 우리를 의아하게 쳐다보신다. 보시품을 참고로 운반하고 정이 들어 손을 놓지 않는 원생들을 달래며 귀경길에 올랐다.

왜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생색내기를 좋아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어댔으면 천진난만한 원생들이 보시품을 보자마자 사진찍는 대열로 모일까를 생각하니 마음이 착잡했다.

불교에서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보시되는 물건 등 세 가지가 모두 청정해야 진정한 보시라고 한다. 양무제가 자신의 불사공덕을 달마에게 물은 즉 "무(無)공덕"이라고 대답한 것도 상(相)있는 보시를 경계함이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온다. 평소에는 뽀얗게 먼지가 쌓였을 경로당, 양로원, 복지시설의 문지방도 적선을 위한 발걸음으로 바빠질 것이다. 그러나 추운 겨울날 사진 한 장 찍자고 노인분들, 지체장애인들을 추운 복도나 운동장으로 내몰아 추운 겨울을 더 춥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의 당연한 몫이기 때문이다.

목탁소리

"스님들 애쓰셨습니다."

이 경 숙 〈취재1부 부장〉

"…비(碑)가 어디 있는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것도 많았고, 또 알게되어 탁본을 부탁하면 잘 해 주는 사람도 있고 관심없는 사람도 있고…. 탁본을 어렵게 구해 그것을 원고화 하는 작업에서 한 자라도 잘못 될까봐 직접 비문 글자를 일일이 확인해 원고에 옮겼어요. 교정만도 10번 이상 봤고…."

지난 7일 한국의 집에서 열린 '1600년 한국불교역대고승비문 총간회향법회'에서 편저자인 지관스님(가산불교연구원장)이 하신 인사말중 일부분이다. 지나가듯 가볍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능히 짐작케 하는 말이다.

98년과 지난 해 가을, 연이은 조계종 분규로 불교의 위상과 체면은 정말 달이 아니게 구겨졌다. "또 싸워?" 냉소적인 이 한마디로 불교에 등을 돌려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올 가을을 앞두고 또 안좋은 일이 일어날까 노심초사한 불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 가을에는 불교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났다. 성보문화재연구원이 10년간의 작업을 거쳐 한국의 불화 20권을 1차로 완간해 2일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찰의 불화가 도난당해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조차 몰랐던 것이 현실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사찰의 탱화 보존이라는 점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불화연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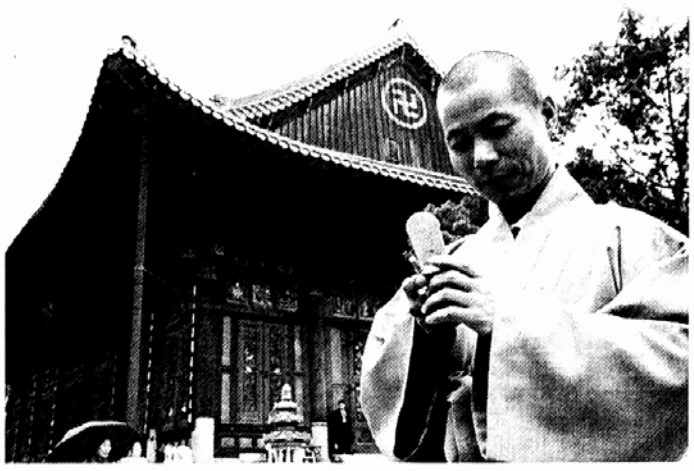
또 내달 6일이면 수년간에 걸쳐 진행된 고려대장경 전산화가 마무리되어 디지털대장경시대가 열린다. 이 모두는 그 자체가 어느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대작불사'이기도 하지만 불교, 나아가 민족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발전시킬 연구를 활발하게 해줄 소중한 기초자료들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이 훌륭한 대작불사를 이끌어온 지관스님, 종림스님, 범하스님께 감사를 드린다.

재정, 인력 등 뭐 하나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오로지 원력 하나로 수많은 난관을 무릅쓰고 회향까지 이끄신 이 스님들에게 국민을 대표해 정부에서 문화훈장으로라도 보답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e 화엄세상

핸드폰 열면 불교정보 '가득'

현대불교, 무선인터넷 서비스
019·017·011 개통…016·018 12월



◇법문을 듣고 난 후 생긴 의문도 핸드폰 불교정보서비스에 접속해 해소할 수 있다



사찰·인물 정보 검색
큰스님 법문도 본다
불교카페 'N세대用'

조계사 열린 강좌에 참석하고 싶어하던 박신철씨(35, 상업). 어느 곳에 문의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하다가 핸드폰 종교정보 서비스의 불교코너를 두드렸다. 사찰 안내에 접속해 조계사를 검색한 후 연락처를 찾아 조계사를 직접 방문, 열린 강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걸어다니며 내 손안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불교 무선인터넷 서비스 시대가 열렸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접속, 현대불교신문사가 독점 제공하는 불교정보서비스를 클릭해 불교정보의 화엄세계를 만날 수 있다.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011, 019, 017에 이어 12월1일부터 016, 018도 불교정보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7개 메뉴 30여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불교정보서비스에서는 법회 안내는 물론 불교계 곳곳의 알찬 뉴스들이 가득하다. 불교책마당에 들어서면 요즘 불자들이 선호하는 책에서부터 엄선된 밀리언셀러, 베스트불서 등을 검색할 수 있어 불교전문 서점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산사에서 수행 중인 원로스님들의 감로수같은 법문도 핸드폰으로 접속해 읽을 수 있다. 혜암 종정스님을 비롯해 고불총림방장 서옹스님, 봉암사 조실 진제스님, 등국역경원장 월운스님,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 등 세상의 존경을 받고 있는 큰스님들의 생활법문이 핸드폰으로 불자들 곁으로 다가온다.

불교문화의 향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제공한다. 산사에서 열리는 음악회 소식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의 정수를 볼 수 있는 연극 영화 등 다양한 공연·전시 정보가 곧바로 제공된다. 생활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의문을 바로바로 해소시켜주는 교리문답 코너도 눈길을 끈다.

불교경전이나 교리서들을 읽다 궁금한 용어가 나왔을 때도 핸드폰으로 접속해 불교용어를 검색하면 된다. 500여개의 용어가 현재 제공되고 있으며, 매주 60여개의 용어가 업그레이드 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 보수가 이뤄지고 있다. 사찰안내 코너에서는 지역별 이름별 검색은 물론 전통사찰 검색도 손쉽게 할 수 있다.

게시판과 대화방, 금주의 법구와 운세가 제공되는 불교카페는 불자들이 가장 선호할만한 콘텐츠. 사찰 학생회 청년회 등 각 단체별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방을 개설할 수도 있다.

▲접속방법=각 이동통신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을 접속해 종교코너를 찾아가면 본사가 제공하는 불교정보서비스를 볼 수 있다. 019의 경우 무선인터넷 초기화면(ez-i)의 정보/커뮤니티 메뉴중 7번의 건강·종교에서 종교를 선택해 2번 불교정보로 가면 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메뉴구성표

- 알림방
  - 1.불교뉴스
    - ①종합뉴스
    - ②행사법회
    - ③금주의 이슈
  - 2.알림방
    - ①종단
    - ②사찰
    - ③불교단체
  - 3.공지사항
  - 4.문의전화
- 공연/전시
  - 1.공연
  - 2.전시
- 상구보리
  - 1.법문
  - 2.길을 묻는 이에게
  - 3.도란?
- 마음의 양식
  - 1.불교책마당
    - ①베스트불서
    - ②화제의 책
    - ③불서100선
  - 2.불교관련 프로그램
- 불교정보검색
  - 1.불교기초용어사전
  - 2.인물검색
- 사찰안내
  - 1.전통사찰
    - ①사찰명검색
    - ②지역별조회
  - 2.일반사찰
    - ①사찰명 검색
    - ②지역별 조회
  - 3.해외사찰
    - ①미주사찰
    - ②유럽사찰
    - ③아시아사찰
- 불교카페
  - 1.게시판
    - ①일반 게시판
    - ②유머 게시판
  - 2.대화방
  - 3.법구와 운세
    - ①운세
    - ②법구

"다양하고 유익한 불교 콘텐츠 구축"

불교정보 WAP 기술개발
프리즘社 나인석대표



"핸드폰을 통한 WAP 서비스에서 불교코너는 단기적인 이익창출을 위한 콘텐츠 구성보다는 스님과의 일대일 상담 코너와 같이 불자들이 현실적인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재미보다는 보다 양질의 정보로 불자들을 사로잡아야 불교콘텐츠가 주목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제휴, 무선불교포털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프리즘 정보시스템 나인석 대표는 불교서비스의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지적한다.

불교 WAP 서비스로 불교가 가지고 있는 탈세속적이고 고루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다는 것도 나 대표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모바일이라는 첨단 정보시스템과 불교의 결합으로 불교에 현대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나인석대표의 생각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교정보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채팅, 커뮤니티 등의 전용 서버를 구축하는 등 기술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나인석 대표는 "앞으로 무선인터넷뿐만 아니라 유선인터넷 상의 불교포털 사이트와의 연계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만큼 유무선 통합 서비스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용어설명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의 약자로 무선인터넷을 지칭하는 말이다. 무선인터넷은 이동전화나 PDA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검색과 전자상거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기존 인터넷 환경의 여러 제약(시간, 공간)을 극복하고자 탄생한 것이다. 개인정보 관리 및 통신 서비스, 문자정보 서비스, 전자 상거래 서비스 등이 있다.

▲PDA-Personal Digital Assistance의 약자이다. 개인 정보관리기라고도 한다. PDA를 쉽게 설명하면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휴대용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PDA는 자체적인 OS(Operating System)를 가질 뿐만 아니라 CPU, RAM, ROM, I/O Device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물론 전자수첩 등과 달리 사용자의 프로그램 개발 환경이 주어지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IMT 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의 약자로 FPLMTS(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s, 미래 공중 육상 이동통신 시스템)를 부르기 쉽도록 명명한 것이다. 지구촌 어디서나 원하는 상대와 음성과 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미래 공중 육상 휴대 통신을 말한다. 셀룰러 이동전화, 무선전화, 이동데이터, 위성 등 다양한 시스템을 통합한 개념으로 2002년 초반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을 열면 새 하늘이 열린다!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체험의 신세계가 열린다

실명 구도소설

해인의 비밀



1 氣의 회로를 찾아라

최현규 지음

512쪽 / 8,0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전 3권 / 2권, 3권은 곧 출간됩니다.

海印 〈화엄경〉의 '능인해인삼매중能人海印三昧中'에서 나온 말로, 모든 번뇌가 끊어져 우주의 참모습이 그대로 물 속에 비치는 경지를 말한다. 의상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그렸다는 〈해인도〉는 '십바라밀도'라고도 불리는데, 호풍환우呼風喚雨와 이산초해移山超海 –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며,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뛰어넘는 초능력이 담긴 신비의 그림이라 전해진다. 〈격암유록〉에는 '하늘 해인을 구하면 모두 극락에 들어간다求天海印 皆入極樂'는 구절이 있다.

큰스승 이 책속의 실존인물로, 소년 시절 해인의 수수께끼에 의문을 품어 평생의 탐구와 수련 끝에 마침내 해인의 비밀을 풀고, 우주의 신비를 꿰뚫는 氣의 회로를 열어 놀라운 도력으로써 세상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큰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모종의 엄청난 일들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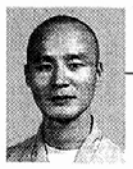
氣회로 해인의 깨달음, 강력한 힘으로 작게는 한 인간의 운명과 질병, 크게는 현실세계와 역사마저 좌우하는 氣의 '지도'. 氣회로의 놀라운 실체를 밝힌 이 책은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현상 등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해답을 공개한다.

호풍환우呼風喚雨 '비를 오게 했다면 멈출 수도 있겠지요. 우주와 하나가 된 자신을 믿으세요.' 큰스승의 말에 오춘실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손바닥이 오므라지고 있었다. 주먹을 쥐자 비가 거짓말처럼 멈춰져 있었다.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다… 상식의 잣대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가상천외한 사건들, 그러나 안 믿을 수도 없게 만드는 이 책의 마력 앞에서 당신은 삶이 통째로 바뀔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독자들의 직접 체험을 위한 신비의 '氣회로' 수록!
'큰스승'이 손수 마련한 '氣회로'를 통해 질병 치료와 氣체험,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하십시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번지 원서빌딩, 책방 정신세계 광화문점(02)737-8115
안양점(0343)466-2208, 원주점(0371)742-7540, 대전점(042)489-9390, 전주점(063)246-4888, 대구점(053)943-4824, 부산점(051)294-8545, 마산점(055)248-5599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육조단경 ③

잘 쓰면 마음이 곧 보배

일체 경계에 흔들리지 않아야 좌선

구해서 얻지 못하는 것은 세간(世間)의 보배요, 구하면 반드시 얻어지는 것은 마음의 보배라고 한다. 왜냐하면 세간의 보배는 외부세계에 있고 마음의 보배는 내부에 있는 까닭이다. 마음을 왜 보배라고 하는가? 이 마음을 잘 쓰면 모든 귀중한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보배인 줄을 모르는 것이 중생이요, 이것이 보배인 줄을 알고 잘 활용하는 것이 부처요 보살이요 성현이다.

이 보배는 작게는 한 티끌 속에 돌 수 있고, 크게는 천지를 다 감싸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는 것이다. 지극히 가까운 곳에 있으되 멀리 있고, 밝기로 말하면 해와 달과 같이 밝으면서도 칠흑과 같이 깜깜하다. 또 한량없는 조화를 갈무리하고 있으며, 공덕을 구족하게 갖추고 있고, 아무리 쓰고 또 써도 다 함이 없고, 천고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다. 이 신묘한 보배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다만 찾지 않으므로 진흙 속에 버려져 있을 따름이다.

〈육조단경〉에서는 이 '마음'을 찾는 방법으로 좌선을 말씀하시고 있다. 여기에서의 좌선은 곧 우리들이 말하는 참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형식에 치우친 참선이 아니라 안으로 자성(自性)을 살펴보고 일체의 현상에 흔들리지 않는 선정(禪定)을 말한다.

"선지식아 어떤 것을 좌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일체 선악의 경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좌(坐)라 이름하고, 안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음을 보는 것을 선(禪)이라 하느니라."(善知識아 何名坐禪고 此法門中에 無障無碍하야 外於一切善惡境界에 心念不起名坐요 內見自性不動이 名爲禪이니라.)

이렇듯 좌선은 선을 공부하는 방법으로서 정혜(定慧)를 얻어 마음의 보리반야(菩提般若)를 성취하기 위한 마음공부를 말하는 것이다. 선을 실천하면서는 어떠한 경계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죄(罪)라는 것은 본래 상이 없는 것인데, 죄라는 것에 집착하는 망상을 일으켜 자신의 본성(本性)에 해를 입히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조용한 곳을 찾아서 그것에 집착하고,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지만 생각과 입으로 남의 시비장단을 떠들고 하여 도(道)에 어긋나고 만다.

혜능스님의 참선 법문 속에는 화두를 참구하라는 선법(禪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화두에 의한 참선은 후대에 이루어진 선이기 때문이다. 참선을 통해서 견성하는 법이 반드시 화두선이어야 한다는 철칙은 있을 수 없다. 상근기 사람에게는 일체가 화두 아닌 것이 없고 자성을 안으로 살펴 깨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혜능스님의 교수좌선(敎授坐禪)의 핵심은 마음이라 하여 집착한다든지, 이런 것이 마음인가 하고 보는 것은 다 같이 마음에 대한 관념이나 형상을 세우는 것이 되므로 결국은 본래 한 물건도 없는 무일물(無一物)의 자성을 등지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음이 보배의 구실을 못하는 것은 탐·진·치의 번뇌 때문이요, 번뇌는 육체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번뇌를 다스리기 위하여 육체를 학대하는 고행주의도 있거니와 만약 마음을 보배롭게 쓰는 경우 육체야말로 다시없는 보배가 된다. 왜냐하면 마음이 육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배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다. 또 육체가 아무리 보배라 하여도 자연이나 인간의 환경이 없으면 보배 노릇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 마음을 잘 쓰면 근신기계(根身器界)가 모두 보배로운 것이니 이것이 어찌 정불국토(淨佛國土)가 아니겠는가?

※ 해인사 승가대 교수



그림 · 문병성

삶의 한가운데 신비가 있다

불교와 과학 〈6〉

일상성 - 1

세상에는 정말 신기하고 신비한 일이 많다. 날마다 같은 방향에서 해가 뜨고 지는 일, 더불어 저녁 노을 저편 하늘의 아름다운 땅의 이부자리, 각양의 색깔을 자랑하며 때만 되면 어우러지는 그림 같은 낙엽의 시(詩)들, 먼 달의 힘에 따른 거대한 바닷물들의 끌고 당기는 힘들, 좁쌀보다 더 작은 씨앗이 그 언 땅을 헤치고 나오는 생명의 기운들. 세상의 모든 폭포들이 한결같이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지는 중력의 신비함.

그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눈 깜짝거리는 자동조절기능이나 배고플 때 그때를 맞춰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들, 사람이 죽어 살점 하나 남김없이 해치우는 곰팡이의 위대한 자정능력, 사람이 만든 어떤 동력장치도 따를 수 없는 심장의 박동들, 엄지와 검지가 서로 링을 만들 수 있어서 비로소 물건을 집고 놀릴 수 있는 호모 파베르의 능력들.

그래서 진짜 신기하고 신비한 것은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일상적 주변에 있었다. 일상성이 바로 신비함이었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일상성의 신비를 놓치고 밖의 세계에서 신비를 찾아 헤매는 장님이 되어 버렸다. 좌선하는 이의 참된 수양의 의미가 퇴색하여 기적적인 건강이나 부양효과를 떠드는 이들, 정력제의 환상 속에서 밥상 위의 음식을 버리고 불로초의 기적을 바라는 아저씨들, 자기 자식들과 교육환경에 대한 진정한 대화도 없이 자식의 대학합격만을 기도하는 아줌마들, 모두 밖에서만 환영을 찾아 헤매는 일상성의 장님이 되어버렸다.

하늘을 다시 보자. 태양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지구가 돌고 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멀리 떨어져 우주의 고아가 되지도 않게 태양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는지, 태양이 끄는 힘에 브레이크를 걸어 지구가 태양에 흡입되어 충돌하지도 않고 그렇게 적절한 거리에서 돌고 있는지 정말 신비한 일이다. 뉴턴은 이러한 신비한 현상에 대하여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다. 왜 그렇게 돌고 있을까? 달리 운동하지 않고 왜 꼭 그렇게만 돌고 있는지 이유를 묻는 일상성의 질문이었다. 그러나 뉴턴은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끝내 찾지 못했다. 그 대신 그는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찾아내었다. 그것이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자연과학의 위대한 성과로 나타났다.

과학 자연 현상서 물리법칙 발견

불교 샛별 보면서도 깨달음 얻어

이때부터 과학은 세계운동에 대하여 '왜'라는 질문을 삼가고 과학과 신학의 구획(demarcation)을 보여 주었으며, 그 대신 '어떻게'라는 현상해석에 몰두하였다. 어떻게 접촉도 하지 않은 두 물체가 서로에게 운동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정말로 신비한 일이다. 이런 운동의 신비한 힘들을 이해하는 일을 과학에 맡기면서부터 우리는 그 운동의 신비함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기 시작하였다.

뉴턴 이전 사람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운동현상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운동현상을 구분지어 생각했다. 그래서 땅의 현상은 일상성에, 하늘의 현상은 신비함에 대비시켰다. 그러나 뉴턴은 땅의 일상성과 하늘의 신비성을 하나로 묶어, 즉 땅의 중력과 하늘의 만유인력을 하나의 운동방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그 일상성과 신비성이 하나라는 삶 속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음을 잊고 산다. 그것이 바로 지난 호에 이야기했던 인드라 망이다.

일체의 신비성이 없으며 그 모든 것이 일상적인 인드라 망이라는 것이 있다. 나의 손가락 끝만을 볼 수 밖에 없는 이선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손가락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다섯 개의 개별적인 개체라고 말하지만, 나에게는 나의 손가락들이 손에 붙어 있는 하나의 손일 뿐이다. 이선재는 나의 손가락들이 모두 떨어져 있는 개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 새끼손가락이 다친 것을 동시에 엄지손가락이 같이 아파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나의 손가락들이 모두 나의 손으로 하나로 묶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가락끼리 아픔을 공유하는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손가락끼리 아픔을 동시적으로 공유하는 일이 이선재에게는 신비한 일이지만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성일 뿐이다.

그래서 인드라 망이라는 것은 대단한 신비의 교조적 터널이 아니라 저편 하늘의 노을과 각양의 단풍들의 어우러짐, 작은 씨앗의 생명기운, 눈의 깜작거림이나 심장 박동처럼 일상성의 바구니와 같으며, 단지 '어떻게'가 밝혀지지 않은 일상성의 현시일 뿐이다. 이제 이선재는 우담바라의 꽃을 밖에서만 찾으려 했던 신비의 환상에서 벗어나, 그의 작은 삶 한가운데서 진짜 신비한 일상성을 찾기로 했다.

※ 최종덕 / 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일자리 찾거나 결혼때 출가 경험 필수요건

지구촌 불교 / 泰·미얀마 단기출가

미얀마와 태국의 남성들은 일생에 한 번 이상은 출가생활을 경험해야 한다. 이들에게 출가생활은 단순히 불교의 교리와 세계관을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로서의 행동양식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다. 출가생활에서 배우고 지키는 교리와 계율은 환속 후에도 그들이 불교적 사고와 행동양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미얀마의 단기출가제도는 '신퓨(shinpyu)' 의식이라고 한다. 싯다르타 왕자의 출가를 따르는 의식으로 붓다의 자식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얀마에서 10~15세까지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신퓨의식을 치르고 나면, 남자로서 나아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정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퓨의식 기간 동안 단기출가자들은 사미승으로서 청소나 물긷기 등 사찰의 잔일을 하면서 빨리어나 불교 교리, 예절 등을 배운다. 신퓨의식은 대개 우기 3개월 동안의 안거 기간에 이루어지며, 10계를 수지하게 된다. 미얀마인들은 신퓨의식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몇 번이라도 출가생활을 반복한다.



◇신퓨의식 중인 나이어린 미얀마 스님들.

1주일~3년 사찰서 교리·계율 배워

환속후 보시 등 불교 가르침 생활화

태국의 단기출가제도는 '부엇낙(buactnak)'이라고 한다. 태국 남자는 누구나, 심지어 왕실 남자들까지도 만 20세가 되면 길게는 3년에서 짧게는 일주일까지 부엇낙을 경험해야 한다. 쑤코타이왕국의 리타이왕이 왕의 신분으로 출가한 것에서 유래된 부엇낙은 대개 우기 3개월 동안의 안거 기간에 이루어진다. 이 기간 동안에는 227계를 수지하며, 빨리어로 된 경·율·론 삼장(三藏)을 배운다. 아집과 자만을 없애기 위해 매일 아침 탁발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과다.

이와 같이 단기출가를 마치고 환속한 이들은 도덕적으로 완숙된 인간으로 인식된다. 이것은 불교적 윤리체계의 습득과 사회적 인간관계, 사회적 활동 능력을 동시에 인정받는 것이다.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을 할 때도 단기출가의 경험은 필수조건이다. 단기출가를 하고자 할 때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주거나 대기업이 출가를 위한 휴가기간과 인원수를 명문화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신퓨의식과 부엇낙은 공통적으로 효의 한 방편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출가가 최대의 공덕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들 나라에서 아들이 출가함으로서 부모는 공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의식은 미얀마와 태국이 불교국가의 전형이 된 태국과 미얀마가 불교국가의 전형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단기출가를 통해서 교리와 계율을 배우고 그것을 환속 후 일상생활에서 실천함으로써 불교가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자리잡을 수 있었다. 삼보에 대한 감사와 보시정신이 사회적인 미덕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도 단기출가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天蓮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6-4422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 특별할인 세일!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석씨향방에서는 동안거 입제일 전까지 특별할인세일 (20%)을 합니다. 동안거 선방에서 정진하실 스님께 최고의 향을 공양하십시오.
기간 : 10.23 ~ 11.8까지 〃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목욕 재개항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659-8148 공급자 : 석씨향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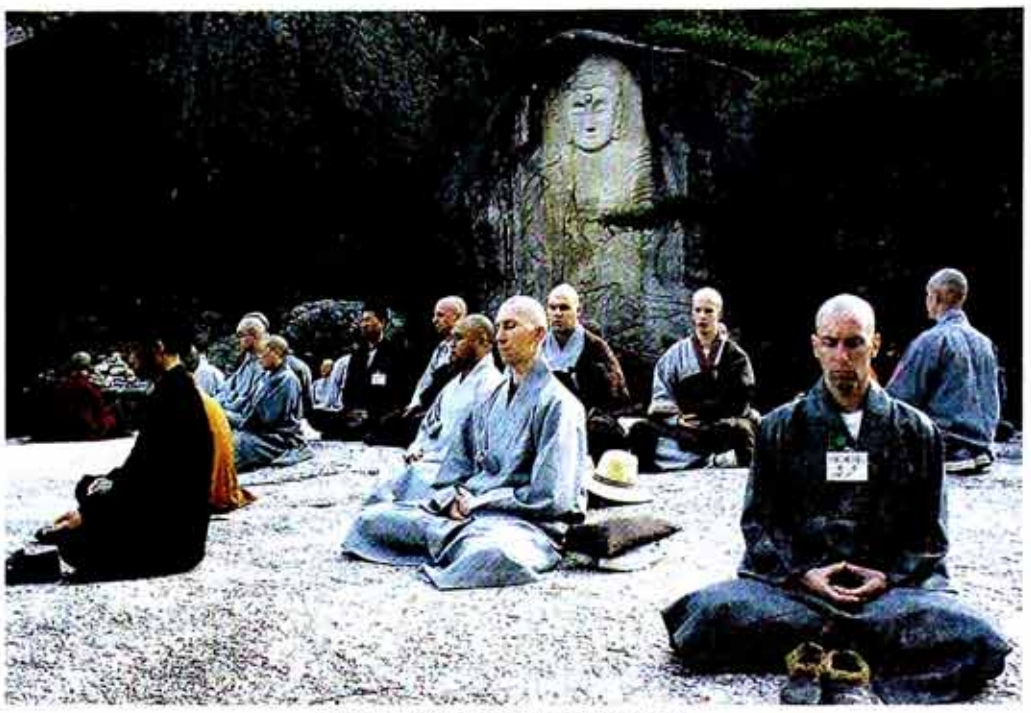
◇서울 봉원사에서 외국인스님들이 식당작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파란 눈의 수행자들이 한국전통문화체험 길에 나섰다. 3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외국인 수행자 한국전통문화체험'. 체험에 나선 외국인 수행자는 모두 49명. 미국 러시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싱가폴 리투아니아 인도 몽골 스리랑카 네팔. 그들이 온 나라 수만도 열아홉에 이른다. 화계사 연등불교국제회관 무상사 금강선원 대원사 구룡사 홍원사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한국과 한국불교를 배우고 있는 스님들이다.

외국인 수행자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불교종단협의회가 조계종과 진각종, 원불교의 도움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제포교사회의 유창한 영어 솜씨가 성공적인 행사를 거들었고, 문화공연기획사 '소리향'은 무대공연을 맡아 심청전과 대금산조, 사물놀이를 선보였다.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석굴암 불국사, 경주 남산, 해인사, 안동 하회마을, 소수서원, 봉암사, 법주사, 용인 민속촌, 서울 봉원사에 이르는 대장정이었다. 눈부른 외국인 수행자들에게 한국의 불교와 전통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석굴암의 석가모니부처님은 한 외국인 수행자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했다.



◇봉암사 마애불 앞에서 잠깐 좌선삼매에 들었다.

"한국은 부처님 나라…아주 특별한 순례"

외국인 수행자 전통문화 체험



◇영주 부석사 목어를 두드리고 있는 외국인 수행자.



◇외국인 수행자들이 석굴암 본존불에 삼배의 예를 올리고 있다.

석굴암·해인사등 5일간

"가는곳마다 절로 환희심"

"석굴암 참배는 세 번째입니다. 올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굴암 부처님의 모습에서 대자대비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대자대비 행인지를 느낍니다.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합장한 내 두 손바닥의 따스한 체온, 가슴 속에서 물결치듯 올라오는 뜨겁고 통렬한 것….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미국 펜터키주립대학 경영학 교수였던 대봉스님. 1977년 숭산스님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후 프로비던스 선원을 7년 동안 드나들다가 서른 넷의 나이가 되던 84년 머리를 깎고 한국스님이 되었다. "한국선은 사람의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나를 찾게 해주었으며, 나에 맞는 올바른 행동을 제시해줍니다. 이것이 대자대비의 정신입니다."

19개국 49명 참가

대자대비의 정신을 그는 석굴암 본존불에서 보았다. 그에게 석굴암 본존불은 대자대비의 표상이며, 현실에 구현하려는 자기의 모습이기도 하다.

대봉스님의 말을 듣고, 기자는 잠깐 동안 눈앞이 깜깜해지는 진공에 빠졌다. "나는 너무도 곽곽하게 살고 있구나. 일상에 너무 익숙해진 탓일까, 덤덤하고 푸석푸석한 날들."

불국사는 외국인들에게도 친숙한 곳이다. 몽골에서 온 비구니 롭상스님은 이번이 여덟 번째 방문이다. 전남 보성 대원사 현장스님의 초청으로 지난 3월 한국에 왔다. 서강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한국에 와서 사귄 친구들이 한국을 알려주겠다며 데려온 곳이 주로 불국사였다.

그러나 이번은 조금 달랐다. 화엄경의 가르침에 따라 당우를 배치했다는 불국사 포교국장 정법스님의 설명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청운교 백운교 대웅전 무설전으로 이어지는 걸음걸이가 불국토에 이르는 여정이라는 말에 자꾸 발 끝으로 시선이 머물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찰 건축으로 표현해 낸 한국인의 불심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찰을 지닌 한국이 바로 부처님 나라 아닌가요." 서툰 우리말로 불국사에서 느낀 감동을 표현하느라 애를 썼다.

외국인 수행자들이 가장 흥미를 느낀 프로그램은 팔만대장경 인경(印經). 어디에서도 해볼 수 없는 체험이다. 차례를 기다리면서도 연신 몸을 내밀어 앞사람의 동작을 살핀다. 경판 위에 골고루 먹을 바르고, 닥종이를 올려놓는 동작 하나하나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스리랑카 출신의 무오스님. 진각종에서 세운 사회복지시설 '진실로 하나 되는 기쁨'(JGO, The Joy of Genuine Oneness)의 소장이다. 자신이 찍은 인경지를 자랑스럽게 펼쳐보이고는, "액자에 넣어 JGO 사무실에 걸어놓고 한국에서의 아주 특별한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겠다"며 활짝 웃는다. 인경을 마친 무오스님은 다른 스님들처럼 불구점을 향했다. 3000원을 주고 인쇄된 팔만대장경 1장을 샀다. 고향의 은사스님께 드릴 선물이란다.

해인사 선방 소림원(小林院) 방문도 이들에겐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한국 전통사찰의 선방. 방부를 드리지 않고서는 문턱도 넘지 못하는 곳이 선방의 법도인데, 이날은 외국인들에게 문을 열었다. 채 10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한국의 스님들처럼 벽을 향해 가부좌를 하고 앉았다. 봉암사 태고선원에 들르는 행운도 안았다. 태고선원의 좌복에는 앉지 못했지만,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해서는 허락하지 않는 곳이 아니던가.

"깨달음 세계로 함께"

아직 외국인에게 선방 문은 열려 있지 않다. 비구계를 받지 않았고, 언어 소통의 불편이 있기 때문이다. 돌핵 날 밤 있었던 대화의 시간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수계와 한국어로 모아졌다. 폴란드에서 한국에 온 지 9년째 되는 관미스님. 비구니계 수계 신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갈마에서 번번히 탈락했다. 갈마사의 질문을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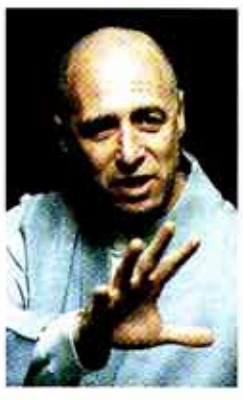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선우스님은 "한국에 온 외국스님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한다. 최소한 갈마에 통과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 수행자만을 위한 기초교육기관 지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수행자들이 한국의 선방에서 한국스님들과 나란히 가부좌를 틀고 화두삼매에 들 날도 멀지 않았다. 이제 문화체험을 넘어 깨달음의 세계에 함께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글=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해인사에서의 인경체험.



"인간과 자연조화 중요성 확인"

인터뷰 문화체험 참가한 대봉스님

문화체험 현장에서 만난 대봉스님

"문화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찾기"

계룡산 무상사 무상선원장 대봉스님. 한국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최고참 스님이다. 세납 51세, 84년에 삭발염의했으니 법랍 16년이다. 출가 이후 동안거 결제를 한 차례도 놓치지 않았다.

"한국에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화롭게 보여주는 문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전통과 현대의 단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배, 전쟁 이후 미국의 문화가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한국식으로 변화해 갑니다. 생활한복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옛날 것을 현대화했는데, 옛것을 간직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봉스님의 한국전통문화론이다. 그러나 문화보다 자기를 찾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를 찾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게 되며,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올바른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연, 동물과의 올바른 상호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울 분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통해 자기를 찾으면, 관계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기의 세계입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해초깨즙샐러드



"저 소나무가 소나무가 아니란 말씀이신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소나무일 뿐, 저 소나무라는 소나무가 아니옵니다."

"이름이 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소나무는 분명 곧고 푸른 형상을 하고 있거늘, 어찌하여 부처님께선 항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라고 이르셨더란 말이냐?"

"소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진 저 나무는 머지않아 늙으면 말라 죽게 될 것이오, 그리 되면 부서지고 썩어서 저 형상이 없어질 것이니 그래서 모든 형상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라 이르셨나이다."

무릇 고(苦)·집(集)·멸(滅)·도(道)를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다. 고(苦)를 끊는 의사가 되기 위하여 세속의 의사직을 버린 동산스님. 고무호스로 뱃속의 밥 썩는 소리를 듣기보다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일으키는 불법을 더 좋아하신 스님. 동산스님은 생전에 사시마지와 조석 예불을 단 한번도 빠뜨리지 않으셨던 분으로 유명하다.

동산스님은 청풍당 선방에서 아침에 드는 죽은 산삼보다 좋은 것이라며 여러 대중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을 먹으라고 하셨다. 가슴속에 찬서리 같은 지조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스님의 이러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스님은 특히 팥죽과 해초류를 즐겨 드셨다. 불가에선 경전 강독이 끝나면 전통적으로 팥죽을 먹었고, 선승들은 다시마, 미역, 김, 톳나물 등을 가루로 내어 생식을 하거나 죽을 끓여 먹기도 했다. 피를 맑게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는 해초의 효능을 동산스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계셨다.

■ 악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피 맑게하고 호흡 고르게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해초류(미역, 다시마, 톳나물 등) 각 100g, 오이 ½개, 밤 3개, 참깨가루, 식초, 볶은 소금

요리법 ① 해초류는 깨끗하게 씻어 적당한 크기의 길이와 넓이로 썰어둔다.

② 오이 껍질을 소금으로 문질러 씻고 ①과 비슷한 크기로 어슷하게 썰고 밤도 껍질을 까서 얇게 저민다.

③ 깨를 곱게 갈아 식초와 소금을 섞고 위 재료를 담은 접시 위에 뿌린다.

효능 · 미역은 뼈의 발육에 좋고 피를 맑게 하며 변비를 치료한다. 특히, 미역귀는 생명의 씨로서, 심장병과 뇌졸중에 특효하고 피부 미용에 좋다. 미역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붙이면 잔주름과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 다시마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예방에 좋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⑦

史山人 問圭峰宗密禪師
사산인 문규봉종밀선사
凡修心地之法 爲當悟心卽了
범수심지지법 위당오심즉요
爲當別有行門 若別有行門
위당별유행간 약별유행문
何名禪門頓旨 若悟心卽了
하명선문돈지 약오심즉요
何不發神通光明
하불발신통광명

사산인(史山人)이 규봉 종밀선사에게 묻기를 "마음을 닦는 법이 바로 마음을 깨닫게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수행하는 문이 있습니까. 만약 별도로 수행하는 문이 있다면 어떻게 선문(禪門)에서 말하는 돈지(頓旨:수행 단계를 뛰어넘어 단번에 깨닫는 종지(宗旨))라 할 수 있겠으며, 만약 마음을 깨달았다면 왜 신통광명을 일으키지 못합니까"하였다.

答曰讖水池而全水 藉陽氣而鎔銷
종성퇴실 시위우부관행
豈爲習人之行哉
기위지인지행재

그러므로 상호(相好)나 신통에 대해서는 근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마음을 관조하여 믿음과 견해를 참되고 바르게 가져 단(斷)이나 상(常)에 빠지지 말고 선정과 지혜의 두 수행문에 의지해서 마음의 때를 다스림이 옳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믿음과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수행하는 관행(觀行)이 다 무상에 속하여 마침내 물러나 상실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어리석은 사람의 관행이요, 지혜로운 사람의 수행은 아니다.

他教家 亦有簡辨觀行 深淺得失
타교가 역유간변관행 심천득실
其義甚詳 玆爲學人 唯習言說
기의심상 지위학인 유습언설
或高推聖境 不能內求自心 亦不

선정과 지혜 두 수행 의지해서
마음의 때 다스림 옳고도 옳다

답왈식빙지이전수 자양기이용소
悟凡夫而卽眞 資法力而修習
오범부이즉진 자법력이수습
氷銷則水流潤 方呈氓條之功
빙소즉수류윤 방정개척지공
妄盡則心靈通 始發通光之應
망진즉심영통 시발통광지응
修心之外 無別行門
수심지외 무별행문

이에 대답하기를 "얼은 연못이 다 물임을 알지만 빛을 받아야 녹는 것처럼 범부가 곧 진리인줄 알지만 법력을 빌려 닦고 익혀야 한다. 얼음이 녹으면 흐르는 물이 되므로 물을 대고 씻는 보람이 있고, 망념이 다하면 마음이 신통하므로 비로소 신통과 광명이 일어나는 것이니, 마음을 닦는 외에는 따로 수행하는 문이 없다"하였다.

以是當知 不愁相好 及與神通
이시당지 불수상호 급여신통
先須返照自心 信解眞正 不落斷常
선수반조자심 신해진정 불락단상
依定慧二門 治諸心垢 卽其宜矣
의정혜이문 치제심구 즉기의의
若也信解未正 所修觀行 皆屬無常
약야신해미정 소수관행 개속무상
終成退失 是謂愚夫觀行
혹고추성경 불능내구자심 역불
能諫磨日久 知其功能耳
능연마일구 지기공능이
且如元曉法師云 如諸世間 愚夫觀行
차여원효법사운 여제세간 우부관행
內計有心 外求諸理 求理彌細
내계유심 외구제리 구리미세
轉取外相故 還背理去遠 若天與地
전취외상고 환배리거원 약천여지
所以終退沒 受無窮生死
소이종퇴몰 수무궁생사

교종에서도 관행(觀行)의 깊고 얕음과 잘되고 잘못됨을 잘 분석하여 그 뜻이 자상하건만 학인들은 오직 언어만 익히고 혹은 성인의 높은 경계로만 미루어 둔 채 안으로 자기 마음에서 구하지 않고, 또한 오래 연마하지도 않고 단지 공능만 알려고 한다.

이래서 원효법사는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의 관행은 안으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밖으로 모든 이치를 찾되 그 이치를 아주 세밀하게 찾다가 그만 바깥 현상계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이치를 등져서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 이 때문에 타락하여 끝없는 생사를 받게 된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벽봉스님

팔공산 대원사 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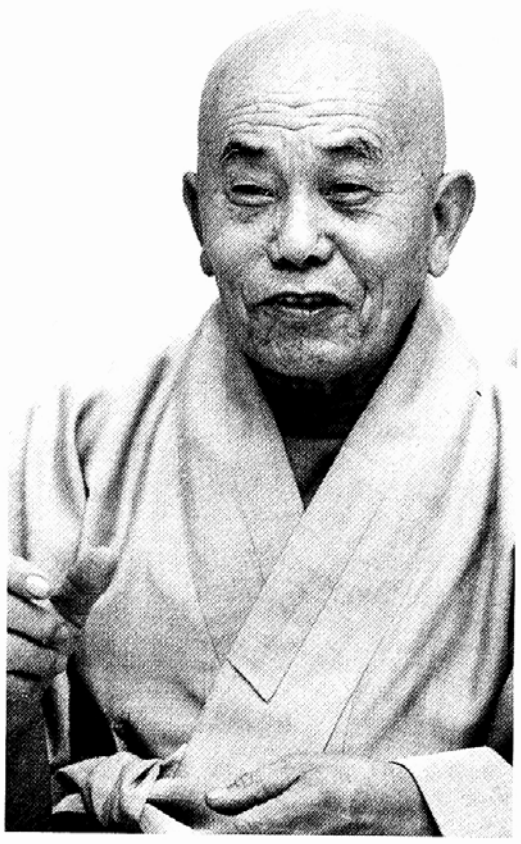
팔공산의 가을색이 짙었다. 아름다운 화엄세계가 진경 산수화처럼 펼쳐진 팔공산은 그 모습 그대로가 우주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팔공산자락 지묘골 대원사에 주석하시는 벽봉스님은 오늘도 산에 계셨다. 시자스님과 작업복을 입고 절벽에서 넘어진 나무를 운반하고 계시던 벽봉스님은 "참선이나 일이나 정진하기는 같은 것이지"라며 노동과 정진이 둘이 아님을 강조하셨다.

"옛날에 백장스님이 계셨어요. 날이면 날마다 추우나 더우나 논밭에 나가 일을 하시거든, 8순 노인이. 어느 날 제자들이 쉬시라고 괭이와 삽을 숨겨 버렸어요. 그러자 백장스님이 공양을 하지 않으셨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을 안 먹겠다는 것이었지요. 허허허"

백장스님의 청규를 하루도 잊지 않고 계시다는 스님은 그래선지 78세라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지키고 있었다. 스님곁에 앉아 법담을 청했다.

"자기가 중심인 진실한 삶을"



· 23년 경북 성주生
· 36년 해인사에서 설석우스님을 은사로 득도
· 39년 해인사에서 하동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 48년 해인사에서 설석우스님을 은사로 비구계 수지
· 50년 해인강원 졸업
· 67년 경북대 문리대 철학과 졸업
· 70년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
· 82년 대구 보현사 주지
· 92~94년 대구 동화사 주지
· 현재 대구 팔공산 대원사, 칠곡 송림사 조실

-가을의 끝자락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웬지 세월의 무상함도 느끼게 되는 것이 중생심인가 싶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그렇지요.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 하셨지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했어요. 이 우주가 가만있는 것 같아도 무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면서 온갖 굴곡을 다 겪습니다. 하루동안 한 생애를 살면서 지겨움과 기쁨, 슬픔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루, 한달, 일년, 10년, 100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70평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치를 안다면 다음생을 위한 공부를 해야지요. 그러니 세월과 계절의 변화는 물론 무상한 모든 것에 끄달리고 집착하는, 상대적인 분별심과 차별심에 허덕 허덕대서는 안돼요.

이런 집착을 떠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평상심을 가져야 합니다. 평상심은 자기 자신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마음이지요. 평상심이란 것이 보통때 갖는 마음가짐처럼 생각해 아주 쉬울 것 같지만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범부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심과 일체의 경계를 초월한 마음을 말하지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참회하며 바르게 생각하는, 정견과 정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자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를 자각하면 평범한 일상에 매몰되지 않게 됩니다. 자각을 이루는 사람만이 평상심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님, 날씨도 추운데 산에서 울력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상좌스님들도 극구 말리신다고 들었는데요.

▲옛날부터 울력이 몸에 배여 있어요. 어떤 인과인지 내겐 일복이 끊이질 않아요. 쉬려고 해도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두질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요. 일을 계속 하니까 상좌들도 따라 일을 해요. "너희들은 공부해라" 살짝 나와 일을 하면 어느새 상좌들이 거들러 나오곤 하지요. 몇 년 전에 나무를 베다가 떨어져 중상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뒤부터 내가 산에 가면 혹 다칠까 염려를 많이 합니다.

13세에 해인사로 출가 후 밥하고 나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15살이 되던 해인가 가업을 이으라고 집에서 독촉이 심해 속가로 돌아갔지요. 집에 가니 세속의 삶에 빠져들더군요. 22세때인가 철도청에서 2년을 근무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말리는 부모님을 뒤로 하고 절에 다시 갔습니다. 가면서 다짐했지요. '부처님 제가 절에 가면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린 날의 결심이었지만 지금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사도 많이 했는데 돌이켜보면 출가수행자에게 사판소임은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잠시 경험해 보는 것에 머물러야지 그 속에 빠져들면 자기수행에 소홀하게 될 수 있어요.

요즘은 힘이 부쳐 하루 두 세시간밖에 울력을 못합니다. 일과 선(禪)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저 행(行)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닫게 돼요.

-노동과 땀의 결실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이같은 가치가 빛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에 카지노가 들어서 사람들의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 로비사건 등으로 온 나라가 술렁거립니다. 배금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생활을 자조하게 되고 양심과 도덕은 점점 설땅을 잃고 있습니다. 부패지수가 높아가는 이사회에 경책을 주십시오.

▲돈은 버는 게 우선이 아니라 마음자세·생활패턴을 바르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물이나 재화가 최소한은 있어야겠지만 너무 큰 욕심을 내는 것은 자신과 주위사람들을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재화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많이 가진 만큼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쁜 만큼 남에게는 눈물을 주는 것이 이치지요.

옛날에 어떤 노스님이 계셨어요. 스님은 상좌들과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답으로 만들었어요. 절 살림도 어느 정도 펴게 됐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 옥답을 눈여겨 본 마을사람이 찾아와서 논을 넘겨달라고 해요. 스님은 아무 주저함도 없이 헐값에 줘버리는 거예요. 상좌스님들은 힘들게 개간한 논을 넘겨준 노스님이 원망스러워 따져 물었지요. 스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길 "그 논이 어디 갔느냐?" 되물어요. 그러면서 황무지를 개간해 쓸모있는 논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 또한 좋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갔으니 우리에겐 돈이 생겼고 그 사람은 알뜰하게 농사지어 추수하면 그 또한 좋은 일이니, 다 잘된 것 아니냐고 하니 제자들이 할말이 없어요. 논이 그대로 있는데 누구의 것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세상이란 크게 보면 내 것 네 것이 없어요.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소유하겠다 욕심 부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갈월사 영탑(靈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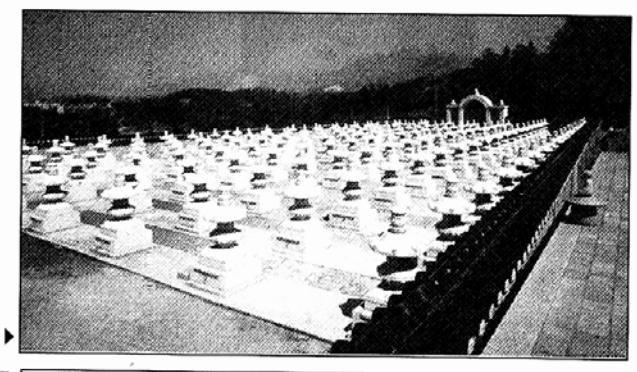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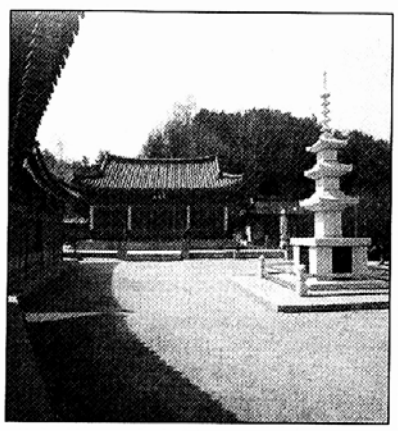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영탑의 특징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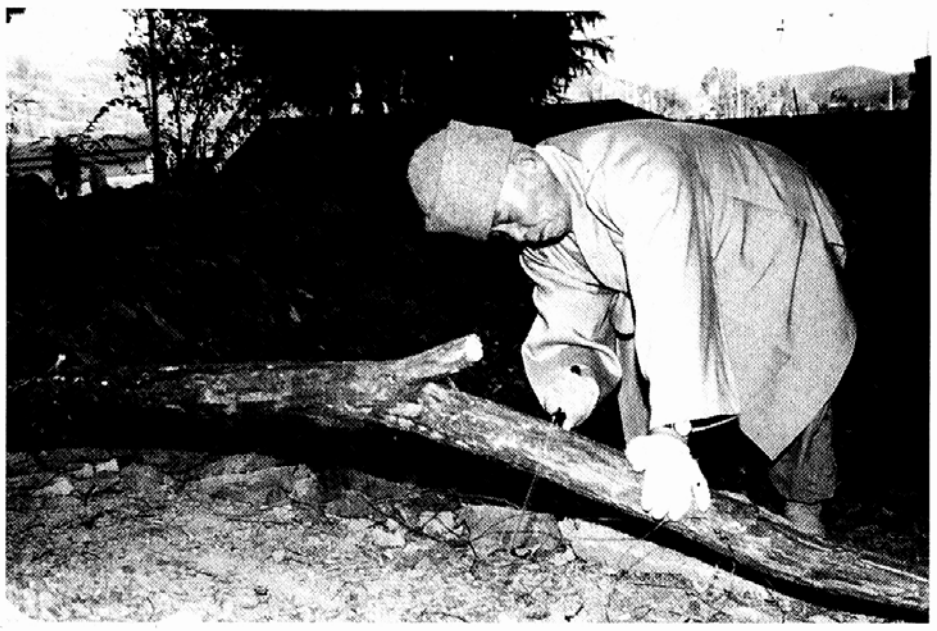
것을 제외하고는 욕심일 뿐이지요. 욕심은 큰 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경제도 어렵고 각종 공공요금 또한 많이 올라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것도 기업가와 국민들이 땀의 결실보다는 은행 빚을 지면서까지 무리한 확장을 꾀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한 불교적 해답은 없는지요.

▲이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문제는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에는 명예욕 재산욕 식욕이 가장 강하지요. 기업가들이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국가경제도 바로 설 수 없어요. 아무런 욕심이 없을 수야 없겠지만 분수에 넘치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원아속단 탐진치' 하면서 부처님 전에 탐진치를 끊게 해달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지요.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 즉 죽기를 각오하고 힘을 다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만 한다면 죽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일에 죽기를 각오하고 부딪쳐 봤습니까. 조금 하다가 힘들면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지요. 성격들이 급하고 끈기가 없어요. 기업들도 다른 나라처럼 하나에 매달리어 성실과 전문성으로 결판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문어발식으로 확장만 해왔지요. 그래서 오늘날 부도니 연쇄도산이니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내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외적인 성장, 허세만 부린 탓이니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원인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백장스님의 청규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벽봉스님이 벼랑에서 운반해온 나무를 지르고 있다.

"이성적 '마음' 분석 벽 만나지만 참선은 벽넘어 무한정진 가능"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정부나 모두가 오로지 자기 본분사에 충실하면서 절약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업가와 국민들도 소욕지족(小欲之足)하고 근검절약하는 자세를 몸에 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생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출 많이 해서 힘들게 벌어봤자 또 새나가게 돼 있어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지요. 소박하고 야무진 마음가짐과 생활패턴이 정착된 이후라야 벌면 버는 만큼 축적이 되고 경제도 차츰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을 옳게 믿고 평등과 자비심으로 자기자신을 돌보면서 살면 빠른 시일 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구촌에 불교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회의 각 분야의 원리로 작용하는 등 오히려 과학과 사상, 문화의 발달이 불교와 더욱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불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첫째입니다. 마음에는 수천 갈래 수천 그릇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떤 갈래 어떤 그릇을 갖느냐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되고 바른 마음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생성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선대조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정진하면 언젠가는 자신의 마음까지 통솔하는 지혜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서양사람들은 이성이라고 하는데 칸트나 데카르트 아담스미스 베이컨 파스칼 등 수많은 서양 철학자들이 연구만 했지 궤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수 천년 전 간단명료하게 해석했지요. 그것은 바로 탐진치 3독(毒)만 제거하면 본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심내는 마음) 진(성내는 마음) 치(어리석은 마음) 삼독이 마치 먹구름처럼 청정한 본성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마음 가운데 탐진치만 잘 다스리면 깨달음으로 가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이성적으로 분석하여 들어가면 장벽에 부딪칩니다. 문자장벽 언어장벽이 그것이지요. 그런데 참선을 하면 장벽을 넘어서 무한히 정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라는 것입니다. 황금으로 아무리 큰 보탑을 쌓아도 어느 땐가는 무너지지만, 한 생각으로 바르게 앉아 정각을 이루면 세세생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내 안의 자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단이나 스님들이 승단의 위상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종회에서 의장을 선출하며 경선을 거치지 않고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모습을 보여줘 사부대중의 호평을 받기도 했지요. 아직도 종단분규의 불유쾌한 기억이 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화합의 승가상 구현을 위해 종단전체가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요.

▲좋은 일입니다. 승가가 민주적인 공의에 의해 운영되면 다툼이 없습니다. 자기주장은 조금씩 숙이고, 서로 회통하며 모든 일을 불법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출가수행자들은 두타행(頭陀行)을 했습니다. 두타행은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번뇌를 여읠 수 있게 해주지요.

첫째, 인가와 떨어진 곳에 살고, 둘째 걸식하며 수행에 전념하고, 셋째 시주한 사람의 빈부를 가리지 갈고, 넷째, 생명유지와 포교전법에 필요한 양만 섭취하고, 다섯째, 과식하지 말고, 여섯째, 때가 아닌 때 먹지말고, 일곱째, 낡고 헤진 옷을 입고, 여덟째, 세벌의 옷만 소유하고, 아홉째, 무덤곁에서 무상관(無常觀)을 닦고, 열번째 나무아래 기거하고, 열한번째, 지붕없는 곳에서 기거하고, 열두번째 단정한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요.

두타행은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오늘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 정신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서로 헐뜯고 서로를 죽이는 것은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그 근저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자리잡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철학과 종교가 나왔지만 범부들에게는 항상 집착으로 남는 부분이지요.

> "자기 주장은 조금씩 숙이고 서로 회통하면 민주적 운영"

어느 한곳에 집착함으로써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죽음이란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은 불자들이라면 지금의 자리에서 옆방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암흑이요, 저항할 수 없는 공포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죽으면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물을 모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어리석음이요, 집착 때문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삶, 순리대로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열린 귀와 눈으로 깨어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수처작주(隨處作主) 하여야 합니다. 밖의 형상에 끄달려 다니며 주체를 상실하지 말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진실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대담=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 환암스님

'천지는 춘하추동을 향하게 하며 만물을 양육해 낸다. 그러나 아무 말이 없다. 나 또한 말없기를 좋아한다.'

공자의 말씀이지만 자연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명을 잉태시킬 줄 알며 부르는 법 없어도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든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볼 수는 없어도 느낄 수는 있는 계절이 바로 이 무렵이 아니겠는가.

벌써 입동이다. 풀먹인 무명옷 사이로 제법 날카로운 바람이 파고 든다. 늘 푸를줄만 알았던 산하대지가 한생각 돌려 옷 갈아 입더니 이제는 그 허물마저 귀찮은 듯 던져버린, 그야말로 말이 필요없는 계절의 한 모퉁이에 내가 서 있다. 중생의 삶 또한 버리고 또 버려 결국에는 그 마음조차 버려야 하거늘 아직도 버리지 못한 무수한 기억들의 잔흔이 참으로 부끄러운 날, 무심코 쳐다 본 달력의 동그라미 속에서 동안거 결제일이 며칠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아직 장판때조차 묻혀 보지 못한 몸뚱아리지만 그래도 결제철만 되면 몸이 후끈 달아오를 수 있다는 것은 이십여년간 한철도 빠짐없이 정진하며 푸른 청산의 심장과 흰 구름의 사지를 닮은 한 선객의 넉넉한 그림자가 있어 발심의 고삐를 부여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철 빠짐없이 20여년 안거 세상사 끄달림 없는 선객

지난 가을 추석연휴가 끝났다지만 그래도 귀경길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던 날 밤늦게 환암스님이 찾아왔다. 대장경 전산화작업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는 종립스님과 대중들에게 싱싱한 지리산 송이 버섯의 맛을 한시라도 빨리 전달하기 위해 혼잡한 버스속에서 이리저리 부대끼며 달려온 것이라 했다. 택배나 우편 등의 전달방법도 있었겠지만 굳이 밤늦은 시간이라도 바람처럼 왔다가 아침일찍 길 떠나며 환히 웃는 환암스님의 뒷모습에서 세상사에 끄달림없이 오직 한길을 가는 선객의 여유로움을 볼 수 있어 촉촉한 산이슬이 가볍게 가슴을 적시고 스쳐가는 느낌을 받았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할 줄 알고 함께 누릴 줄 아는 그의 성품은 오랜 대중생활에서 습득된 체험의 습관이 아니라 태어남에서부터의 천성인줄 알기에 자연을 닮아가는 허허로운 그의 걸음이 무척이나 부러웠다.

유달리 부지런한 환암스님. 그래서 인지 옷조차 늘 무명옷만 입는다. 보통 스님들이 입는 옷이 무명 등과 같이 풀을 해서 입는 것과 기지 등으로 세탁해서 그냥 입는 옷이 있는데 환암스님에게는 기지옷이 없다. 풀옷은 손질하기 여간 까다롭지 않다. 세탁을 해서 바짝 말린 다음(그렇게 하지 않으면 옷감이 상한다) 풀을 먹이고 다시 바짝 말린 후 물을 뿜어 응달에서 서서히 말려 곱게 개어 자근 자근 밟아줘야 한다. 그런 다음 다림질을 하게 되는데 다림때도 옷 안섶 이음새 부분의 날개부터 다린 후 바깥쪽 면을 다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간 부지런하지 않고는 풀옷을 입을 수 없다. 그에게는 이 무명옷 두어벌과 겨울을 나기 위한 누비옷 한벌만 있을 뿐, 잡다한 옷가지가 없는, 간편한 선객의 필수품만 있을 뿐이다.

'일심이 청청하면 일신(一身)이 청정하고 일신(一身)이 청청하면 다신(多身)이 청청하고 이와같이 중생의 원각이 청정하리라' 라는 부처님 말씀이 〈원각경〉에 있다. 환암스님을 대하다 보면 그와 같음을 느낄 수 있다.

환암스님에게는 일체의 삿됨이 없다. 항상 부지런히 갈고 닦아 수행의 군더더기 없는 선객의 기품으로 진솔한 내면을 가감없이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스님이기에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수행의 척도가 넓어지고 발심이 된다. 그 많은 세월을 선방에서 정진하여 왔음에도 법랍과 속랍에 걸맞지 않게 미소년의 홍조띤 얼굴 모습으로 대중을 편안하게 할 줄 아는 스님, 약간은 수줍은 듯 여린 웃음을 항상 웃고 있지만 걸림없는 선객으로



수행하여 왔기에 가슴속에는 부처의 칼날을 항상 예리하게 갈고 닦고 있음을 알고 있다.

몇해전, 은사스님의 간곡한 권유에 못이겨 주지소임을 한 두 해 살다가도 "이건 내 할 일이 아니다"라며 거침없이 뿌리치고 선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칼날같은 성품을 지닌 스님이다. 그러한 스님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매년 안거철만 되면 그의 수행을 닮고자 하는 마음에 몸이 뜨겁게 달구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며칠 후면 스님들의 겨울나기가 시작된다. 지금쯤 환암스님은 걸망 하나 훌쩍 짊어진 채 산길을 걸어 선방으로 향하고 있으리라.

"천지로 집을 삼고 백운으로 벗이 되어
높은 산 깊은 골을 몇 굽이나 지냈던고
연운중첩 천만리에 어느 곳이 성지련가"

늦가을 산중의 바람결에 흘흘이 날려가는 무수한 낙엽들의 망상이 새로운 생명의 밑거름이 되듯 지금 나의 망상 또한 새로운 발심의 씨앗이 될 수 있으리란 기대와 함께 올 겨울 용맹정진하는 환암스님과 모든 스님들의 '한소식'이 크게 울려 뭇 중생들의 고통과 번민을 단번에 떨칠 수 있는 날을 기다려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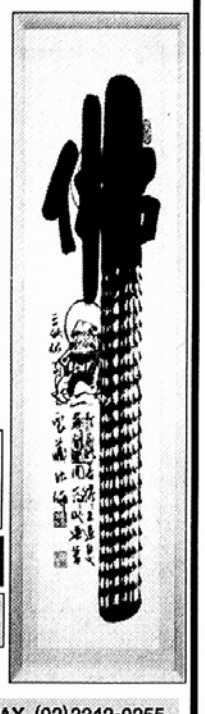
※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세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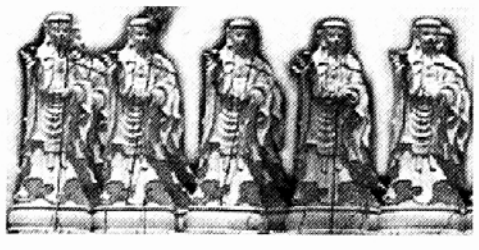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cmhouse.net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지장보살님 조성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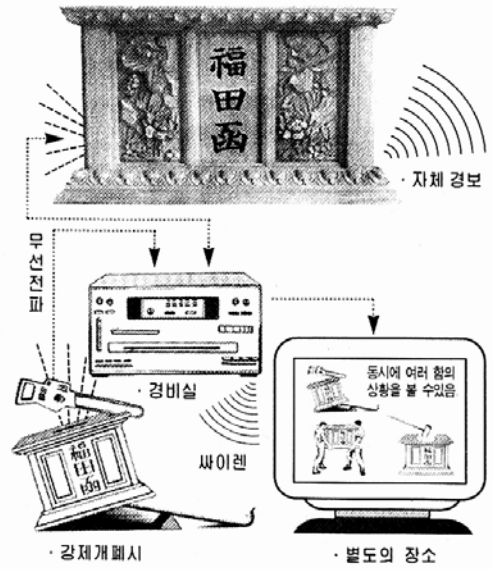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으셔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님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니, 메주10가마니,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인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낳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배가능)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25-8
TEL:031)533-4405 FAX:031)532-3444

해외대학입학안내
본 대학은 해당국가의 교육부에 정식으로 인가된 5년제 불교대학으로 학사(B.A)와 석사(M.A) 학위를 수여하며, 한국에서 통신으로 학업을 진행하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불교 전문대학입니다.
▌학사학위(B. A) 과정 5년제
▣ 입학자격
고등학교졸업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
▣ 모집정원 : 10명
▣ 3.4학년 편입생 : 5명
전문대 또는 각종불교대학 수료
불교승가대학(강원) 수료자
▌석사학위(M. A) 과정 2년제
▣ 모집정원 : 5명
▣ 입학자격 : 학사학위 소지자
▣ 모집기간
2000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학사 또는 석사 과정입학을 꼭 원하시는 분은 직접전화에 의하여 상담을 원함.
전화 02) 722-5083 팩스 02) 722-4606
서울 종로구 청진동 296-1 영한빌딩 501호
한국불교해외전법회

법당 경비 전용
불 전 함
도난방장치 ◆특허 2000-0011559◆



◆ 특수 전자 장치가 내장된 철제 금고에 외부는 통판조각으로 접합 했습니다 (리모콘으로만 개폐 됨)
◆ 법당內 한정된 지역몰 침입하면 함의 요란한 경보와 함께 경비실 및 원하는 타 장소에 무선으로 침입 사실을 알려 줍니다. (옵션)
◆ 주 · 야 감시 센서가 항시 자동 작동되며, 전원 플러그를 빼거나 절단하면 개폐기능은 마비되고 경보는 계속됩니다.
◆ 가격은 70만원부터 있습니다.
서원기전 ▪ 문의:043-647-2378, 011-467-1472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에 대한 열기가 음악회와 전시, 영화로 이어지며 식을 줄을 모른다. 사진은 영화 '쿤둔'의 한장면.

티베트 문화가 온다

달라이 라마 방한 좌절 불구
영화-음악-전시 잇달아

11월의 한국엔 '티베트 문화'가 넘친다. 16일로 예정됐던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무산됐지만,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에 대한 열기는 음악회와 전시회, 영화 등으로 이어지며 식을 줄을 모른다.

18일 오후 4시 서울 KBS홀에서는 인천 불교청소년연합회 초청으로 티베트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 나왕 케촉이 '평화 음악회'를 갖는다. 11년간의 승려생활을 거쳐 히말라야 산 기슭에서 은둔자 생활을 하다 음악가로 변신한 나왕 케촉은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과 티베트 문화를 음악으로 전 세계에 전하는 문화 메신저이기도 하다. 당초 달라이 라마의 방한과 더불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방한이 무산됨에 따라 음악회만 갖게 됐다.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어린이 마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특히 달라이 라마의 제안으로 공연에 앞서 우리 나라와 티베트의 스님, 천주교 수녀들이 '세계 평화와 종교간의 화합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글머리엔 달라이 라마의 영상 메시지가 전달된다.

전시회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3일부터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티베트전'. 입소문을 듣고 온 관람객들이 아침부터 끊이지 않는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특히 불상 등 불교미술에 집중되던 그간의 전시와는 달리 티베트 민속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마승이 법회에서 입는 화려한 비단옷과 모자, 티베트 고원의 혹한을 이겨내기 위한 아크릴 외투, 라마승의 의식용 모자, 푸른 터키석과 붉은 산호로 장식한 화려한 여성용 모자와 귀고리, 지금강불(13세기), 화려한 탑 등 한점한점이 티베트 고유의 색깔을 보여준다. 전시회를 기획한 신영수(45) 씨는 "이번 전시는 티베트, 중국, 네팔, 부스탕, 인도 등지에서 수집한 유물 가운데 복식을 위주로 마련했다"며 "티베트 문화의 한 단면이나마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크린에서도 티베트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18일 개봉하는 영화 '쿤둔'은 개봉에 앞서 8일부터 14일까지 무료 시사회를 잇달아 열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달라이 라마의 자서전 〈나의 조국 나의 국민〉을 바탕으로 만든 '쿤둔'은 다섯살 나이에 '쿤둔'의 자리에 올라 신앙을 완성해가는 모습, 중국의 압살 위협을 피해 망명길에 올라야 했던 어린 소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택시 드라이버'로 유명한 마틴 스콜스키가 연출했으며 아카데미 4개 부문 후보로 올라 촬영상과 작곡상을 받았다.



◇티베트 문화와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을 음악으로 전하는 '나왕 케촉'.

나왕케촉 '평화음악회'
'아름다운 티베트전'
영화 '쿤둔' 18일 개봉

최근 건립 중이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티베트 박물관도 티베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전남 보성 대원사에 들어설 티베트 전문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외부 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가 한창이다. 내년 3월 개관예정. 불일미술관에서 '아름다운 티베트전'을 열고 있는 신영수 씨도 경기 포천 산정호수 근처 3천여평 대지에 티베트 민속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기초 토목공사를 마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이렇듯 문화의 옷을 입고 티베트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선 이유는 무엇일까.

작년부터 일기 시작한 티베트에 대한 관심은 티베트의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영향이 크다. 서울대 총불교학생회가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추진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등의 과정을 거쳐 결국 방한이 좌절되었지만 달라이 라마는 종교화해와 평화의 메신저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자연스레 티베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달라이 라마 방한 준비위원회'가 내년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당분간 티베트와 티베트 문화에 대한 관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불음합창단
창립 15주년 기념
음악발표회

불음합창단(단장 박연옥)이 창립 15주년 기념 '불교음악발표회'를 24일 오후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연다.

불음합창단은 이번 공연을 위해 지난 여름부터 매주 화요일에는 서울 충무로 충정사에서, 수요일에는 조계사 인근 빌딩사무실에서 더위도 아랑곳 않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이기 위해 땀을 흘렸다.

1985년 서창업 선생이 이끄는 불교음악연구원 전속인 불음합창단으로 발족해 15년 동안 종파를 초월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음성공양을 해온 이 합창단은, 창작 찬불가발표회를 비롯해 봉축선야행사, 불교방송개국기념 찬불가합창제, 종교음악제, 재소자수계법회, 논산훈련소법회, 금융불자인합동법회 등 수많은 불교 신행의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단장 박연옥씨는 "종단이나 사찰에 소속되지 않고, 순수하게 불교음악을 사랑하는 불자들이 모여 지난 15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음합창단을 이끌어 왔다"면서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보다 성실한 자세로 아름다운 찬불음악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음합창단은 이번 음악회에서 얻는 수익금 일체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쓸 계획이다.(031)386-3918

이은지 기자
(ejlee@buddhapia.com)

"돋움질 기법 현대적 응용 작품 공개"
대전서 불상조각전 여는 이진형씨



◇이진형씨.

불상조각가 이진형씨(동국불교미술인회 회장)가 21일부터 30일까지 대전시청 2층 대전시실에서 '무형문화재 지정기념 불상조각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5월 불상조각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받은 이후 1년여의 작업 끝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개발표회이자, 불상조각가로서 준비한 세 번째 개인전이다.

대작인 '천수천안 십일면 관음보살', 현대적 창작요소를 가미한 '지장보살의 원', 33인의 선지식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11명의 동자상', 관음32응신 가운데 5분의 형상을 표현한 '관음보살상' 등 기존 불상조각에서 접할 수 없었던 이씨만의 독특한 작품세계가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 전통 돋움질 기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하고, 상호와 옷주름의 선과 터치에 자유로운 파격의 미를 도입했으며, 금칠 등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 유수 사찰의 문화재 개보수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이씨는 "작품활동을 하며 과거시대 장인들과의 내면적인 대화가 이뤄질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면서 "전통의 맥을 이어, 오늘의 성보를 모시는 작업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조각을 통한 불교문화포교를 위해 태마공원 형태의 노천 불교미술조각전시관 건립을 추진중이다. 최근 대전시 탑립동 야산 일대 부지 5300여평을 매입했으며, 대전시에 건립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올해 안에 건립 허가를 받아 내년부터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노천 불교미술조각전시관 건립을 위해 분주하게 뛸 것으로 보인다.

이은지 기자



◇이번 전시에서 선보일 동자상.

사이버 문화
홍순지의 불교음악
선율따라 명상의 세계로

바쁜 도시 생활로 지친 심신을 다독여 줄 수 있는 사이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홍순지의 명상음악 불교음악'을 권하고 싶다.

현재 동국대 교수로, 불국사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며 춘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홍순지씨의 홈페이지 '홍순지의 명상음악 불교음악'(http://user.chollian.net/~studiog)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불교명상음악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번 들어본 사람이면 그 감미로운 선율에 푹 빠져버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사이트다.

홍순지씨가 직접 부르는 '문수사'는 번뇌없는 마음으로 접한 산사와 자연을 그리는 노래 가사가 마음에 와 닿는다. '유가야', '빈 몸이 끊임없이', '산거' 등 불교가곡의 잔잔한 가사와 음률이 무명을 밝히는 부처님의 말씀같이 들린다. 또 '보현행원' 같은 찬불가를 들으면 조용한 산사에서 예불을 드리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홍씨는 이곳에서 "나에게 노래는 명상이요, 기도"라고 수줍은 고백을 하며 자신의 음악세계를 선보인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람마다의 특성에 걸맞는 고유의 노래를 사찰의 사가로 제작·보급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문화소식

허허당스님 선서화전

심만동자 선화로 잘 알려진 허허당 스님의 선서화 전시회가 17~27일 서울 강남구청 앞 청작화랑에서 열린다.

'허허당이 본 화엄세계-선승의 눈'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100호 짜리 대작 3점을 비롯해, 소품 등 최근작 34점이 선보인다. 허허당 스님은 "장난끼 많은 동자, 수줍어 고개숙인 동자 등 우리 주변의 무수한 인간 군상들을 그림 속 동자의 모습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면서 "결국 모든 생명은 하나"임을 역설한다. (02)549-3112



◇ 허허당 作 '화엄법계도〈선승의 눈〉'.

보광스님 이웃돕기도예전

소달도예연구소 소장 보광스님의 '도예작품 전시회'가 8~15일 조계사 신도회관 앞마당에서 열려졌다. 스님은 이번에 선보인 100여점의 선(禪)도예작품 판매금액 전액을 조계사 산하 복지지관인 실직근로자 합숙소 '영등포 보현의 집' 후원 기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노태범 다섯번째 개인전

부적을 테마로 한 화가 노태범의 다섯번째 개인전이 19일까지 신촌 현대백화점 10층 현대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노씨는 이번 전시에서 부적이라는 조형형태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결국 하나라는 초자연적 친화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인간과 새, 물고기, 산, 물이 어우러진 여유로움의 세계가 애정부(愛情符), 화합부(和合符) 라는 새로운 부적의 형상으로 선보인다. (02)320-3388



◇노태범 作 '화합부(和合符).

mahamall mahamall mahamall.co.kr www.maham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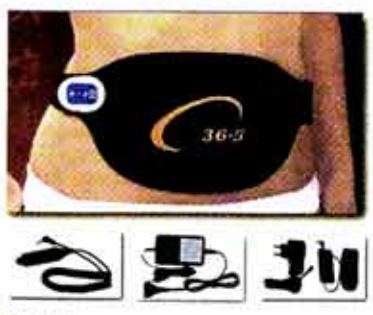
108나한단주



· 신복승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 있음
(18알×6나한=108나한)
· 오래 소지할 수록 광택이 나며,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 고급케이스에 담겨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 수작업으로 정성들여 직접 조각한 단주
· 재질 : 복숭아씨

가격 : 20,000원 (고급 케이스 포함)

玉온열 건강벨트



● 상품설명 :
玉온열 건강벨트는 건강회복, 찜질, 취침, 기능을 원 터치로 가능하며, 원하는 온도조정(36.5°C~70°C까지)가능 그리고 매직벨트로 처리되어 허리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동의대학교 한방생리학 연구팀과 한의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2.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피로회복, 취침, 찜질 등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휴대가 간편하여 외출과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이런 분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장이 약하신분, 소화불량자, 생리통 여성, 운전자, 수험생, 군인, 비만자, 산모, 배탈이, 연세드신 부모님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밧데리(휴대용구입시)
색 상 - 검정, 그린, 베이지
가 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아생참 인진쑥 액기스



● 상품설명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암형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흡습고)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압산 자락에서 9년이상 자란 할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최대식 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 상품 효능/효과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부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3. 피를 맑게 해 줍니다.
4. 손 발이 차거나 저린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5.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6. 당뇨병 7. 신경통

· 내용량 : 80g × 60포 · 원산지 : 강원도 고양산
· 가 격 : 175,000원(2개월분)

아침 생식



● 상품소개
각종 영양소를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 냉동건조 방식으로 건조한 아침생식은 출장이 잦은 분,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학생, 날씬한 몸매와 건강한 피부를 원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잡히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

· 용량 : 40g × 30포 · 가격 : 66,000원

설악 동충하초 환



● 상품 효능/효과
호흡계 작용, 면역력 증가, 병해충방제, 노화방지, 피로회복

· 성 분 : 동충하초 90%, 국산 찹쌀 10%
· 내용량 : 130g (65g × 2개입) · 가격 : 49,500원

수암 만다라 옥침



● 상품 효과
양손에 쥐고 움직여 주면 손바닥에 경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이 증진되고 고혈압 · 중풍 · 췌애 등 고질적인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재 질 : 천연목,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퀘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 색 상 : 연녹색
· 가격 : 30,000원

황토 찜질팩



● 상품소개
황토 찜질팩은 황토에서 내뿜는 복사열인 바이오 원적외선이 인체내에 깊숙히침투하여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황토요법을 활용한 찜질팩입니다.

· 가격 : 28,000원

⚠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상품과 정보를 만나실 수있습니다. Tel : 732-1522·732-1522



"원효연구 35년… '禪의 향기' 담았어요"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주석서 낸 은정희 교수

35년 전 조계사에서 '금강삼매경' 강의를 듣고, 한평생을 원효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은정희 교수(61 · 서울교대 도덕교육과)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일지사) 역주본을 9년의 산고 끝에 내놓았다. 이 책은 지난 91년 출간돼 '해방 이후 최고의 번역서'라는 평가를 받으며 불교계의 큰 반향을 일으켰던 〈대승기신론소 · 별기〉 못지 않은 노작이다. 이 두 권과 함께 내년에 출간할 계획으로 주석 작업을 하고 있는 '이장의(二障義)'가 나오면 원효의 주요 저작에 대한 은 교수의 역주는 마무리되는 셈이다.

"법대 졸업 후 8년 동안 집안을 도울 때 조계사와 천중사에서 이종익 · 이기영 박사, 법정 · 광덕 스님 등의 불교학 강좌를 들었습니다. 이때 이기영 박사의 '금강삼매경' 강의를 들고 원효를 전공하기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동국대는 갈 수 없어 고려대 철학과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 교수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된 동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이다.

"탐정소설을 읽다가 '죽음'이란 문제를 놓고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죽음이 닥쳤을 때 후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는 것이었어요. 이때부터 내 목표가 부처가 되어보자는 것이었지요." 10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으니,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들어간 법학도로서의 학부생활이 순탄할 수가 없었다. 결국 전공을 바꿔 불교학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결혼조차도 부질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독립된 길을 가야겠다'고 시작한 원효 연구는 쉽지만은 않았다. 민족문화추진회와 태동고전연구소에서 한문을 수학해 번역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불교용어 이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는 불교용어가 암호(?)였다고 털어놓는다. 그렇다고 불교학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여러 사람과 반복해 공부하는 윤독이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윤독하면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기존의 원효 저서들의 문제점인 오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펴낸 두 권의 책 모두 5~6번 윤독을 마친 결과물입니다."

불교용어 윤독으로 깨쳐
복잡한 내용 도표로 요약
'이장의' 내년 출간 계획

오랜 불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20여 권의 원효 저서들이 학문적으로 축적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지금도 은 교수가 '대승기신론'과 '금강삼매경론'의 역주를 마쳤지만 동료학자나 제자들과 함께 '구사론(具舍論)' '조론(肇論)' 등의 윤독하고 성철선사상연구원 등 불교학회를 찾아다니며 공부하는 것도 그 이유다.


◇원효스님의 '금강삼매경론'을 읽고 있는 은정희 교수.

은 교수의 역주본에서 돋보이는 점은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정리한 도해다. 〈대승기신론소 · 별기〉의 도해가 그랬듯이 〈금강삼매경론〉의 도해 역시 원효 사상으로 다가가는 일은 한결 수월하게 해준다. "처음 '금강삼매경론'을 대할 때 솔직히 한 구절도 이해할 수 없었거요. 원효의 저작을 읽는 사람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얽히고 설킨 '금강삼매경론'의 구조를 도해로 만들었습니다."

〈금강삼매경론〉은 '금강삼매경'에 해석을 붙인 주석서.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주석서 차원을 뛰어넘어 원효 스님의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고 은 교수는 설명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원효 스님이 늘 강조한 '자리와 이타'이다. 이 글귀는 본문에는 없지만 열반에 머물지 않고 중생과 함께 한다는 부주열반(不住涅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은 교수는 이 책에서 다른 역자와의 번역상 차이를 밝히는 세밀한 주석을 달아 신뢰도를 높였다.

불교학자를 천직으로 택한 은 교수이지만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깨달음인 이상 수행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번역하는 일에 매달리다보니 따로 수행(참선)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더군요. 생활 속에서 매순간 조용동시(照用同時 · 본성을 비춤과 본성의 작용을 동시에 한다)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조용동시, 즉 수행(참선)과 공부(번역)는 둘이 아니라는 말이다. 번역에 매달리다 보면 따로 수행할 시간은 없지만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 나를 비춰보는 것이 수행의 본래 목적이 아니겠느냐"고 은 교수는 되묻는다.

은 교수는 원효의 저술을 모두 번역한 뒤 원측 · 지눌 스님 등의 한국불교사상사나 한국고승의 유식학을 시대별로 정리해 보겠다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값 2만5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불교교리 일목요연 정리

주선 편역 '해탈의 즐거움'



부처님의 가르침은 굳이 불자가 아니더라고 되새긴다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절실하게 다가 올 것이다. 일상 속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번민들이 부처님 가르침 앞에서는 한낱 부질없는 욕심과 집착에 불과함을 깨닫기 때문이다.

도서출판 중명에서 펴낸 〈해탈의 즐거움〉(주선 편역)은 바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책이다. 특히 불교를 잘 모르는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설했는지, 〈법화경〉은 어떤 경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눈밝은 이는 책 속에서 그 동안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생활의 진리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모두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님 생애'를 시작으로, '근본교리', 〈법화경〉 28품의 핵심부분을 요약해 실었다. 그리고 마지막 4편에서는 '법화경 현증영험록'을 실어 이 경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값 7천8백원. 김중근 기자

왜곡된 불교이해 바로잡기



'주자의 선불교…'

윤영해 지음

주자(1130~1200)는 성리학의 중심 축인 존재론, 심성론, 수양론의 측면에서 불교를 비판했다. 불교가 일상을 떠나 초월만을 지향한다는 것, 즉 불교는 세상의 일상사를 위해서 살지 않고, 개인의 위안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자의 불교비판에 대한 연구서 〈주자의 선불교 비판 연구〉(민족사)가 나왔다.

이 책은 크게 '주자와 중국불교', '주자의 불교비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자와 중국불교'는 주자 이전까지 중국사람들이 불교를 비판해온 역사와 성격에 관한 예비적 고찰과정이다. 이어 주자가 불교를 배우게 되는 과정, 불교를 비판하게 된 동기와 목적, 그가 불교를 평가하는 태도와 이해의 수준 등도 적고 있다. '주자의 불교비판'은 주자가 불교에 대해 사상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행한 비판에 대한 논구다. 글쓴이는 주자의 불교비판을 이론 · 실천 · 사회적 기능으로 나눠 탐구한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몽산스님 간화선이 고려에 온 까닭은



'몽산덕이와 고려후기…' 인경스님 지음

남송과 원대에 활약한 몽산덕이의 선사상을 살피고, 고려말 간화선 태동에 미친 그의 영향을 고찰한 〈몽산덕이와 고려후기 선사상 연구〉(불일)가 출간됐다.

몽산덕이(蒙山德異 · 1231~1308)의 〈육조단경〉은 국내에서 51회나 간행될 정도로 중국 선사의 어록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고 있으며, 그가 편집한 덕이본 〈육조단경〉 역시 국내 강원에서 교재로 삼을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몽산덕이의 선사상이 중국 선사상사에 어떻게 형성 · 전개 · 융합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다시 이것이 고려후기 선사상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심도 있게 규명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몽산덕이가 새롭게 편집한 덕이본 단경은 기존의 다른 단경들과는 달리 〈경덕전등록〉 등 송대 선사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오조법인→대혜종고→무문혜개로 이어지는 중국의 전통적인 간화선을 계승 · 전개하고 있다. 또한 반야와 정토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덕이본 단경은 고려 태고보우의 무자화두와 인가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글쓴이 인경 스님은 조계산 송광사에서 출가하여 강원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몽산덕이 선사상연구'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값 2만원.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부처와 중생, 삶에 대한 사랑 노래

무산스님 시집 '그리운 님에게'



8년만에 내놓은 주옥같은 시 48편 구도의 열기 승화

〈한국역대 고승의 다시〉를 통해 한국 불교 다담선의 맥을 밝혀 화제를 모았던 무산 스님(경주 해회선원)이 시집 〈그리운 님에게〉(명상)를 내놓았다.

부처와 중생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노래한 이번 작품은 〈초극〉, 〈반야〉에 이어 8년만에 내놓은 세 번째 시집이다. 수록된 시는 모두 48편. 글쓴이인 무산스님과 '그대 님 다화(茶花)'가 주제어로 시 전편에 등장한다.

"순간이 영원으로 / 이어질 수 없다면야 / 화석으로 굳어진들 /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 그대 님 다화의 / 눈빛 하나로 / 마음놓고 만년 살리라." 〈'천만년 함께 사는 님' 중에서〉

무산 스님이 '그리는 님'은 시를 읽는 이에 따라 때로는 부처로, 때로는 중생으로, 때로는 이성의 연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시인의 삶에 내재돼 있는 구도자로서의 고뇌와 한 중생으로서의 고뇌가 상황에 따라 달리 표현된 것일 수도 있겠다.

부처에 대한 글쓴이의 사랑은 점차 중생에 대한 사랑으로 전이된다. 사람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며, 시간도 공간도 또한 사랑임을 나아가 삶 자체가 사랑임을, 세월의 무게가 늘수록 깨닫게 되는 까닭이리라. 값 5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마음 하나에 펼쳐진 우주	정 화	법 공 양
3	일반송 수행일기	강 옥 구	동쪽나라
4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틱 낱 한	지혜의나무
5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6	운명을 뛰어넘는 길	원 황	불 광
7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정 세 채	모 색
8	빠빠지 면담록	데이비드 가드먼	탐 구 사
9	단박에 윤회를 끊는 가르침	김 지 수	불 광
10	부처님 말씀	성 열	현 암 사

도서 안내:(02)737-0695

E-mail : pubms@chollian.net pubms@netsgo.com
110-3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 B/D 503호 명상
TEL. 733-4277(代) FAX. 733-4279

다담선(茶湛禪)을 알고 다도(茶道)를 하는가

"다담선의 선맥(禪脈)을 밝힌다"

다담선이란 차를 마시면서 선수행을 하는 것으로 고려의 대각 국사 의천 스님이 9백여 년 전 우리 나라에 들여왔다

일천 년 동안 맥을 이어 내려온 26분의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남겨 놓으신 다선시를 이번에 설선당 무산 스님이 십수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책으로 세상에 내어놓는다 하니 참으로 큰 불사(佛事)요 기쁨입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옹

종문(宗門)과 세간에 있어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남기신 다도와 선의 진수인 다시(茶詩)를 한 곳에 모아 방대한 책으로 발간하게 됨은 종문의 대불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통도사 영축총림 방장 월하

- 고승들이 중생에 전하는 찻잔 속 깨달음의 향기들 —조선일보
- 우리나라 다담선의 맥을 처음으로 정리해낸 보고서이자 다담선의 부흥을 알리는 선언문 —연합뉴스
- 끊어졌던 다담선의 선맥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책 —국제신문

"고려의 대각 국사로부터 조선 말기 범해 선사까지"

한국 역대 고승高僧의 茶詩

설선당 무산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272쪽
값15,000원

명상 시선 11

그리운 님에게

한 출가 수행자의 고뇌와 그리움,
그리고 중생과 부처에 대한 끝없는 사랑

삶은 사랑과 함께 시작해서 죽음과 함께 끝난다.
죽음이 올 때 사랑의 에너지는 마지막 한판 승부를 겨룬다.
그것은 확 타오르는 불꽃이 된다.
그 섬광은 그대를 다음 생각으로 이끌고
수레바퀴는 다시돌기 시작한다.
시집 전편에 등장하는
'그대님 다화(茶花)'는 진정 누구인가.

그대 님 다화
홍조 띤 수줍음이
노을처럼 타고 있네.
밀회의 시공(時空) 사이
입술마저 타들어간 다화
당신의 숨결 하나로
나 설선
넋을 놓고 천년 살리다.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없다면야
화석으로 굳어진들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다.
그대 님 다화의
눈빛 하나로
마음놓고 만년 살리다.
(「천만년 함께 가는 님」 전문)



설선당 무산 스님 지음
변형4×6판/96쪽
값5,000원



◇인터넷 사이트 무불선원대학원.

인터넷 불교강좌 '무불선원 대학원'

무불선원(이사장 법장)이 무불선원대학원(www.moobool.com)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온라인 강좌 시대를 열었다.

1천 1백만여 명에 이르는 국내 네티즌들에게 선(禪)의 본래 모습을 보여줄 무불선원대학원에는 현각(동국대 교수) 스님의 '선학의 이해', 종호(동국대 교수) 스님의 '중국선종사상사', 혜거(금강선원장) 스님의 '육조단경', 성묵 스님의 '참선실수', 강건기(전북대) 교수의 '선정개설', 황미향(동국대 박사과정) 씨의 '인도선정사상' 등 6개 강좌가 개설됐다. 이들 강좌는 동영상으로 제공되며 현각, 종호 스님의 강좌는 요약 노트도 함께 제공돼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불선학대학원의 온라인 강좌는 두 번의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3번째 강좌부터 매 강좌당 1천 원의 수강료를 인터넷상에서 결재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법장 스님은 "참수행을 추구하는 한국불교의 전통이 알려지지 않아 애석했다"며 "현대인 특히 도시인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고 또 적은 노력으로 포교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어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선학회 18일 월례발표회

한국선학회(회장 종호)는 18일 오후 1시 30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홍성민(종합경제사회연구원장) 박사가 '선과 경제', 김호귀(동국대 강사) 박사가 '조등오위에 대해'를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정기문(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승원(서시대불교포럼 대표) 씨, 범해(조등종문도회장) 스님, 김태완(부산대 강사) 박사 등이 참여한다. (02)2260-3135

"황룡사 목탑 설계도면 만들자"

권종남 교수, 신라문화연 학술회의서 제안

197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8년간에 걸친 발굴 조사 끝에 조성 당시의 사격을 드러낸 황룡사지(사적 제6호). 이제는 연구 대상이라기보다는 역사 유적으로 더 친숙한 이곳에 대해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 소장 학자들이 있어 주목된다.

화제의 학자들은 10일 '황룡사의 제조명과 보존정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신라문화연구소의 제22차 학술회의에서 황룡사 목탑의 설계도면 제작을 제안한 권종남(세경대) 교수와 황룡사를 중심으로 세워진 천여 년 전 경주시(당시 왕경 · 王京)의 모습을 추적한 박방룡(국립경주박물관 학예사) 박사.

이날 '황룡사 목탑의 건축제도에 관한 고찰'을 발표한 권 교수는 "문헌으로만 알려진 목탑 가운데 유일하게 평면 규모와 층수 그리고 높이 등을 알 수 있는 게 황룡사 목탑"이라며 "황룡사 목탑의 설계도면을 그릴 수 있다면, 연구의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한국 고대 목탑 연구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이 정보들을 토대로 우선 시작해야 할 연구는 목탑의 구조 방식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 교수는 〈황룡사사찰주본기〉 내용 중에서 신라 문성왕(839~856) 대의 기록에 주목했다. 여기에는 황룡사 목탑이 동북쪽으로 기울어졌으나, 목재가 부족해 30여 년이 지나도록 수리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권 교수는 "현대 건축에서도 그 견고성을 인정받고 있는 법주사 팔상전, 일본의 법륭사오중탑, 중국의 불궁사 석가탑의 건축 방식을 연구하고, 황룡사 목탑의 구조 방식을 추론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홍 스님 등 당대 중국 유학승들이 황룡사 목탑 건립을 처음으로 제안한 만큼 운강석굴과 같은 동시대에 조성된 중국의 석굴 건축 방식을 토대로 황룡사 탑의 특징을 추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권 교수는 "황룡사 목탑의 초석간 간격으로 처마의 길이를 역산하면 무려 4.7미터에 육박한다"며 "처마를 떠받드는 공포 역시 당대 사찰 건축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공포였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권종남 교수


◇박방룡 박사

"황룡사 중심으로 도로-월성 등 배치"

박방룡 박사

'신라 왕경(지금의 경주)의 조성과 황룡사 창건'을 발표한 박방룡 박사 역시 "황룡사는 기존의 학설과 같이 왕경의 남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있었다"며 "황룡사를 중심으로 한 왕경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황룡사지 남북도로 발굴은, 신라의 왕경이 황룡사의 창건과 함께 직선형의 도로가 건설되면서 형성됐음을 시사하는 유적이라는 것이다.

10미터의 너비로 확인된 왕경대로는 이 지역에서 유례가 없는 초대형 도로인데, 신라의 왕궁인 월성과 황룡사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다. 즉 황룡사는 왕경대로를 중심으로 월성과 마주보는 중요한 자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왕경의 남쪽이 아닌 중심부에 위치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 박사는 〈삼국유사〉의 중악(中岳),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진산(鎭山)이라는 산 이름에 주목하고 "황룡사지와 인접한 낭산이 '중악'이나 '진산'으로 불렸을 뿐만 아니라 황룡(黃龍)의 '황(黃)'은 오방위(五方位) 정중앙을 상징하는 말"이라며 "신라인들이 왕경 전체를 불국토로 보았고, 따라서 그 중앙에 있는 낭산을 수미산과 같이 생각하고 사찰을 세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국보 제11호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석탑 해체 '착수'

보존처리실 등 건립 2007년까지 복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석탑인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의 해체 복원이 착수됐다. 7일 전북도와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이 탑의 전면 해체 복원을 결정함에 따라 해체 뒤 복원을 위한 정밀 사진 촬영과 실측 작업을 마쳤으며 석탑 해체를 위한 가설 덧집과 석재 보관창고, 석재 보존 처리실 등을 이달부터 짓고 있다.

석탑 해체는 이 같은 준비 작업이 모두 끝나는 내년부터 착수되어 2007년까지 복원 공사를 마치게 되며 이를 위한 총사업비로 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현재 6층까지 남아있는 이 탑을 해체해 붕괴위험을 제거하고 현 상태로 복원할 것인지, 원형인 9층으로 복원할 것인지는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복원 소위원회'의 추후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 탑은 1915년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붕괴 직전에 있던 탑의 보존을 위해 콘크리트 보수작업을 한 뒤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탑을 지탱해주고 있는 콘크리트 부식과 석재의 균열 등으로 인해,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탑은 서기 600년에서 641년 사이에 축조된 국내 최고(最古)의 탑일 뿐 아니라 국내에 남아 있는 탑 가운데 최대 규모다.

오종욱 기자

"종교 쇠퇴론 잘못됐다"

이원규 교수 주장

종교는 쇠퇴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와 비교해 오늘날의 사람들이 더 종교적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달 30일 박이문(美 시몬스대) 명예교수(본지 292호 16면)에 이어 이원규(감리신학대) 교수 역시 4일 열린 한국종교학회 학술회의에서 '성의 복귀-종교쇠퇴로서의 세속화이론'을 발표하고, "현대 종교의 성격과 기능을 설명하는 이론인 '쇠퇴이론'을 잘못 이해해 제도종교의 약화를 곧 개인 신앙의 약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쇠퇴이론이란 1960년대 이후 종교의 세속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종교가 쇠퇴하여 그 교세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종교성은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 즉 쇠퇴이론을 개인의 종교성에까지 확대해 오늘날 개인의 종교 신앙마저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이 교수는 서점가의 베스트 셀러 목록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달라이 라마의 저술이 올라가고, 레코드 가게에서 명상용 음악 CD가 날개돋친 듯 팔리며, 할리우드의 영화대본에 종교 관련 이야기들이 끼여드는 현상을 들었다.

그렇다면 쇠퇴이론은 그 비판론자들의 말대로 쓸모 없는 논쟁일 뿐이고 성(聖)은 복귀한 것일까?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종교는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인데, 성(聖)은 항상 인간 사회에 있었고 종교 또한 항상 인간 세계에 있어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사찰 편액을 찾아서

㉗ 만공의 수덕사 · 부석사 편액


◇예산 수덕사 '백련당' 편액.


◇서산 부석사 '부석사' 편액.

백 련 당

유려하고 통쾌한 행서

부 석 사

담대한 기상 잘 나타나

만공 월면(滿空月面 · 1871~1946)은 전라북도 태인 출생으로, 1883년 김제 금산사에 갔다가 환희심을 느껴 출가를 결심하고, 이듬해 공주 동학사 진암(眞巖)의 문하에서 유발동자로 행자 생활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그는 서산 천장사에서 태허(泰虛)를 은사로, 경허(鏡虛)를 계사로 삼아 사미계를 받고 득도하였고, 그 뒤 수년간 천장사에 머물다 아산 봉곡사, 서산 부석사, 부산 범어사 계명암, 공주 마곡사 등을 돌며 오로지 참선에 전념하였다. 그는 1905년 다시 덕숭산으로 돌아가 수덕사 금선대에 머물면서부터 40여 년간 수많은 납자들을 지도하며 선풍을 진작하였다.

만공은 경허의 의발을 받아 한국불교의 커다란 선맥을 형성한 근대를 대표하는 선승으로, 그의 글씨는 그의 성품만큼이나 지정(至精)한 서미(書美)를 특징으로 한다. 그는 당시 제일가는 서예가로 꼽히던 김돈희(金敦熙)와도 글씨로 교유하였다고 하는데, 예산 수덕사 〈백련당〉, 〈청련당〉, 〈향운각〉, 정혜사 〈쌍수루〉, 견성암 〈견성암〉, 아산 강당사 〈관음전〉, 서산 부석사 〈부석사〉 편액 등 주로 수덕사를 중심으로 한 사내 암자와 인근 사찰에 글씨를 남겼다.

예산 수덕사 〈백련당〉 편액에는 '2961(二九六一)'이라는 관지와 두인을 비롯한 '송월면인, 만공(宋月面印, 滿空)'이라는 백문, 주문의 방인 2과가 찍혀 있다. 백련당은 대웅전 우측에 청련당과 마주하여 자리한 ㄷ자형의 요당으로, 편액은 만공이 수덕사에 머물며 절을 중창하던 시기인 1934년에 쓴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방필(方筆)로 통쾌(痛快)하게 써 내린 행서이다.

서산 부석사 심검당에 걸린 〈부석사〉 편액에는 '칠십옹(七十翁)'이라는 관지와 두인을 비롯한 '송월면, 만공(宋月面, 滿空)'이라는 도서가 있다. 나무결이 드러난 느티나무 액판의 가장자리를 파서 변죽을 대신 한 이 편액은 만공이 덕숭산 산정에 전월사(轉月舍)라는 띠집을 짓고 지내던 1940년에 쓴 것으로, 아마도 그 무렵에 절을 중창했던 것으로 보인다. 편액의 글씨는 강직(剛直)한 성정과 담대(膽大)한 기상이 잘 드러난 심후(深厚)한 필선의 행서이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中 난징서 비천문 발견 전래루트 재조명 필요

실크로드를 거쳐 한반도로,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비천문(飛天紋)이 실크로드와는 관계없는 중국 난징(南京)에서 발견됐다.

난징에서 발행되는 〈양자만보〉에 따르면 350여 개의 석굴로 구성된 시샤산 천불암 제102호에서 발견된 비천문은, 조사 결과 돈황 막고굴의 제321호 석굴의 쌍비천문과 아주 비슷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음악의 신'을 뜻하는 이 비천문은 지금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지금의 신장(新疆)지역인 서역과 하서회랑(河西回廊)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와 다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게 통설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난징의 '시샤비천' 발견으로 이 같은 전래루트에 이견이 생겼다. 중국학자들은 "100년 전 돈황의 장경동(藏經洞) 발견에 버금가는 것"이라며 "실크로드를 따르는 비천문의 전래루트에 이견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시안에 도착한 비천문이 난징을 거쳐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직접 전래됐다는 것이다. 전래루트에서 한반도가 빠진 것이다. 비천문은 과연 한반도를 통해 일본으로 전래됐는가, 아니면 중국에서 직접 건너갔는가. 이는 올해로 탄생 100년을 맞은 돈황학의 난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오종욱 기자

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신간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게,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과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달마라는 이름은 큰 법보 통했다는 뜻"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⑦

(6) 속인(俗人)에게 이어진 법통(法統)

보리다라는 반야다라와 두 형이 나누는 대화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입을 꾹 다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반야다라는 그런 태도를 내심 기이하게 여겼다. 그러나 셋째 왕자의 범상치 않은 기품에 무엇인가 느끼는 바가 있었다.

반야다라는 정색을 하고 셋째 왕자 보리다라에게 물었다.

"왕자님, 왕자님은 이 보물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보리다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왕과 두 형을 한 번 쳐다본 후 조사를 향해 합장하며 고개 숙여 대답했다.

"조사님께 아룁니다. 세속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이 보물은 아주 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보물 가운데서 으뜸은 법보(法寶)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물의 빛깔을 보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빛깔 가운데 으뜸은 지혜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이 보물은 밝음을 뿜내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제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밝음 가운데 마음 밝은 것이 으뜸가는 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쟁반 위에 담긴 보물의 광명은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야 겨우 그 가치를 발하니 광명이랄 수 없습니다. 또 이 보물은 스스로 보물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 관단케 되니 보물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으뜸가는 보물은 사람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도(道)가 있으면 마음의 보배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확신합니다."

입 꾹 다문채 침묵

반야다라는 깜짝 놀랐다. 호탕하게만 보이는 셋째 왕자의 법보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이렇게까지 깊다니, 다만 감탄할 따름이었다. 과연 불조(佛祖)의 재목이 틀림없다고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보리다라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 보았다.

반야다라는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하며 계속 질문을 퍼부었다.

"그렇다면 셋째 왕자님께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 사물 가운데서 어느 것이 상(相)이 없습니까?"

보리다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조사님께 아룁니다. 저의 짧은 견해로는 여러 사물 가운데서 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무상(無相)입니다."

"여러 사물 가운데 무엇이 최고입니까?"

"여러 사물 가운데 인아(人我), 곧 남과 내가 최고입니다."

"여러 사물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큽니까?"

"여러 사물 가운데 법성(法性)이 가장 큽니다."

반야다라의 물음에 보리다라의 대답은 거침이 없었다. 국왕과 두 왕자는 생전 처음 듣는 문답이 신기하기만 했다. 다음은 어떤 물음이 터져 나올지 자못 긴장하며 반야다라를 주시했다.

반야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알아차렸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연신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론 보리다라의 공부 경지에 혀를 내둘렀다. 자기의 이상적인 계승자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했다.

드디어 반야다라가 입을 열었다.

"셋째 왕자께서 선(禪)의 여러 법에 대하여 깊은 이치를 깨치신 것을 감축합니다. 진주나 보석같이 지혜롭게 설명하고 마음의 요체를 확실히 드러내니 정말 대단합니다. 노승은 진실로 감복해 마지않습니다!"

국왕은 대단히 기뻤다. 얼른 두 손 모아 공수(供手)하며 얼굴 가득히 웃음을 담고 말했다.

"하하…, 셋째 왕자가 함부로 늘어놓은 이야기를 가지고 조사께서 칭찬이 지나치십니다."

셋째 왕자도 옷소매를 가볍게 여미며 반야다라를 향해 공손하게 머리 숙여 말했다.

"조사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이토록 평가하여 인도해 주시니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컨대 조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반야다라는 즉시 합장하면서 향지국왕에게 말했다.

"셋째 왕자님께서 저를 스승으로 삼겠다고 하니, 노승이 건의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받아들여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님께서 무슨 가르침을 내리실지 모르겠사오나 마땅히 귀담아 들어야 겠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다라는 셋째 왕자님를 매우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했다.

"노승이 셋째 왕자님의 이름을 새로 지어 드리고자 합니다."

"예에?"

국왕은 잠시 망설였다.

"조사께서는 무슨 이름을 지어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즉시 합장하고 큰절

반야다라는 생각할 틈도 주지않고 바로 대답했다.

"노승의 생각으로는 보리다라의 '다라(多羅)' 두 글자를 버리고 '달마(達摩)'라고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달마라구요?"

"예."

반야다라는 차근차근 이름의 뜻을 설명했다.

"달마라는 이름은 바로 큰 법보에 통했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왕은 왜 그렇게 이름을 고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보리다라는 듣자마자 마음 속으로 희열을 느꼈다. 즉시 합장하고 큰절을 올렸다.

"조사님께서 법호까지 내려 주시다니…,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좋아하자 국왕도 덩달아 좋아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때 이미 보리다라는 반야다라 존자에게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인가를 받아서 깨달았다. 보리다라는 출가도 하기 전에 속인으로 법을 이어받은 최초의 인물이 된 셈이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 진법(眞法)이 비승(非僧)에게도 전해지는 선례가 되었다.

반야다라는 애시당초 향지국왕에게 보리다라를 거두어 자신의 뒤를 이을 28대조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렇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야다라는 속마음을 감춘 채 은쟁반의 보석들을 국왕에게 돌려주었다.

반야다라의 계속된 물음에
거침없이 대답하는 보리다라
"깊은 이치 깨치신 것 감축"

"노승은 천지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처가 없습니다. 대왕께서 시주하신 이 보물은 잠시 궁 안에 맡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와서 가져가면 어떻겠습니까?"

향지국왕은 긍정의 뜻을 표했다.

"이미 조사께서 이곳에 오셔서 진리의 비를 뿌려 주시고 잘못된 방향을 잡아 주셨으니, 이 보잘것 없는 보석들은 여기에 잠시 두었다가 필요하실 때 마음대로 처분하도록 하십시오."

"노승의 뜻을 두루 받아 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반야다라는 말을 마치자 불자를 한 번 털고는 몸을 돌려 위풍을 풍기며 표표히 사라졌다.

세월은 화살같다고 했던가. 어느덧 10년이 흘렀다. 향지국의 궁성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녁 노을이 찬란하게 물들고 있었다. 그러나 왕궁 안에선 갑자기 묵직한 종소리와 함께 떨리는 듯한 나팔 소리가 하늘을 향해 울려 퍼졌다. 모든 신료들은 황망스런 표정으로 옷깃을 여몄다. 숙환 중에 있던 향지국왕이 운명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온 나라에 알려졌다. 지금까지 국왕은 영명한 군왕으로 추앙받아 온 터였다. 백성들은 부음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사방에서 궁성으로 몰려들었다. 궁성 앞은 슬픔에 잠겼고 백성들의 눈물은 홍수를 이루었다. 하늘도 무심치 않아 해와 달조차도 잠시 빛을 잃은 듯했다.

국왕의 시신은 왕궁 대전의 용탑 위에 안치되었다. 그곳엔 향불이 자욱히 피어오르고 촛불이 곡(哭)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왕후와 첫째, 둘째 왕자 그리고 문무백관은 슬픔을 못 이겨 관 앞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뿌렸다. 특히 큰 왕자와 둘째 왕자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했다. 그러나 유독 셋째 왕자 보리달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다. 고요히 관을 마주하고 가부좌를 튼 채 합장의 자세로 미동(微動)도 하지 않았다. 그의 왕방울 같은 큰 눈은 굳게 감겨 있었고, 얼굴엔 큰 자비와 함께 보기 드문 고요함과 평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사방에 애통해 하는 소리가 넘쳤지만 그는 듣지도 의식도 하지 않는 듯 싶었다. 그의 부동자세는 현묘의 경지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다. 뭇사람에게 입정(入定)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나 진배없었다.

향지국왕의 운명 소식

이와 같이 하기를 연 이레, 보리달마는 곡기를 끊은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다만 한밤에 맑은 물을 조금 마실 뿐이었다. 셋째 왕자의 이런 모습은 모든 사람을 놀라움과 충격 속에 빠트렸다. 국상 중에도 불구하고 보리달마의 일은 하나의 기적인 것처럼 궁성 안팎에서 회자되었다.

이레째 되는 날 오후, 왕궁 대전에 목탁 소리가 유달리 크게 울리면서 '나무아미타불'의 염불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다. 풍채가 늠름한 반야다라 존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의 염불 소리는 흔히 듣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다. 뱃속에서 솟아오른 맑고 은은한 우주의 소리 그 자체였다. 반야다라는 보리달마가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드디어 인연이 이르렀음을 알고 보리달마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거라! 일어나, 어서…."

보리달마는 몸을 일으켜 다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말했다.

"제자는 조사님을 앙모한 지 실로 오래 되었사온데 예기치 않게 오늘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뵙게 되었으니 이제 저는 조사님의 문하에 들어가 출가하고 선(禪)을 구하여 세속의 인연을 끊기를 원하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일찍이 그대의 천부적인 자질을 알았거늘, 오늘 마침 불문에 귀의하고자 하는 것을 어찌 거두지 않을 수 있으리…."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조사님께서 제 머리를 삭발해 주시옵소서."

반야다라는 보리달마가 한시라도 속히 탈속하여 보리(菩提)를 증험(證驗)하기를 바랐으므로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좋아, 그렇게 하지! 오늘 당장 시행하지."

왕자에서 스님으로, 왕궁에서 불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반인의 처지에선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미 명리(名利)에 냉담하고 초연한 셋째 왕자에겐 그런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래 전부터 마음 속으로 원하던 것이기에 버리지 못할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보리달마는 미련없이 떠났다. 스승 반야다라를 따라 한 조각 구름처럼 아무런 매임없이 소매를 떨치고 홀연히 사라졌다.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 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나 쓰는 흉내만 낸 돌침대가 아닙니다. 최고급 원목, 최고의 기능
리빙스톤 돌침대 는 선택받은 귀하만의 것입니다.
▶ 쿵쿵 뛰면서 온돌방처럼 쓰는 리빙스톤 돌침대!!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 좋은 잠자리의 잠이 보약입니다.
원앙 202
봉황 201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구요? 핀드기, 먼지, 알레르기, 습기에서 완전 해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쓴다구요? 온도는 자유롭게 … 4계절용 돌침대
■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베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화조
101 싱글보료
옥스톤
리빙스톤 돌침대의 효능…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특허받은 전자파 완전 제거장치 침대에 설치◀
아침건강 - 베게가 좌우합니다!
뇌 혈액순환 촉진으로 머리를 맑게하는 옥숯베게
▶ 자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깨가 버근 합니까? 베게를 바꾸십시요.
▶ 통풍이 잘되고 세탁도 간편한 옥숯 베게
35,000→12,000원 【택배비는 별도 소박스 3500원】
서두르십시오 부담없는 가격~
※단체 주문 환영※ 침대 3대이상 단체 구입시 특별 할인 가격 우대!! ☎ 02)424-9427 / 2203-7821



◇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 파필리오' 오픈식 장면. 사진 중앙에 김홍국씨와 황영조 선수가 보인다.

"어려운 불자선수 후원합니다"

김홍국 등 스포츠마케팅사 '파필리오' 설립

불자가수 김홍국씨가 불자 스포츠 선수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2002년 월드컵 홍보대사 김홍국씨는 6일 스포츠마케팅 회사인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 파필리오'를 설립해 어렵게 운동하고 있는 불자 운동 선수들을 돕고 있다. 김씨가 후원하고 있는 첫 번째 주인공은 前 WBA 슈퍼페더급 챔피언 백종권(28)씨. 불자 선수인 백씨가 소속사가 없어 권투를 그만두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 설립과 함께 후원회를 결성했다. '파필리오'는 불우 스포츠 선수 후원 사업을 비롯해 축구, 스포츠웨어, 골프 용품 등 다양한 전문 스포츠 용품도 판매하고 있다. 김홍국 회장은 "가정 형편과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운동을 그만두는 불자 선수들이 의외로 많다"며 "스포츠 사업을 통해 남는 수익금은 그들을 후원하는데 회향하겠다"고 밝혔다. (02)786-4011

김주일 기자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⑤

■ 엄마손은 약손

며칠 전 출근 길 전철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손을 보았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의 손이었다. 그러나 그 손이 아름다운 이유는 젊음이나 고울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옆 자리에 선 그 학생은 쉼없이 이상한(?) 손놀림을 하고 있었다. 수화였다. 가끔씩 공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아 노래를 수화로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공연에서 손으로 부를 노래 연습을 하는 것 같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씨가 느껴지는 손이었다. 그 손등 작이 무얼 뜻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손을 한참이나 지켜보았다. 나에게도 그 아름다운 마음씨가 그대로 전해왔다.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이 있다. 배 아픈 아이의 배를 쓱쓱 어루만지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을 노래처럼 흥얼거리고, 안색이 안 좋아보이고 열이라도 나는 것 같으면 이마에 손부터 얹고 보는 엄마의 지극한 사랑이 담긴 손. 그 손이 바로 '약손'인 것이다. 쓰다듬기의 약리 작용은 두고라도, 마음의 안정이 주는 심리적 효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자비담긴 손 질병치료 효과

이웃돕는 사회적 약손 절실

원수 사이라 할지라도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는 적개심을 내려 놓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손의 접촉이 주는 인간적 친화력은 불안·분노·증오 따위의 감정을 일거에 거두어갈 만큼 큰 것이다.

추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사회적 약손'이 절실해지는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가족끼리 나누는 사랑의 손길이 이웃에까지 미친다면 다가올 겨울이 마냥 춥지만은 않을 것 같다.

겨울 녹이는 '사찰음식'

김치·부각·장아찌 등 영양 많고 조리 간편

날씨가 추워지면서 각 가정마다 월동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주부들은 쌀과 함께 우리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김치를 비롯해 월동음식 준비에 부담을 느낄 시기다. 물론 인스턴트 가공 식품이 발달한 요즘은 언제든지 구해 먹을 수 있지만 무조건 사 먹지만 말고 올 겨울만큼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겨우내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산사에서도 12월초부터 김치, 부각, 장아찌 등 겨우내 먹을 월동 음식을 장만한다.

적문스님(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소장)은 "산사에서는 보통 오래 곰삭여 먹을 수 있는 장아찌나 김치류, 보관하기 쉬운 부각 등이 겨울 식탁에 많이 오른다"며 "이런 것들은 조리법이 어렵지 않아 각 가정에서도 조금만 신경쓰면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이여영 소장(사찰음식연구소)도 "마음을 맑게 해준다는 사찰음식은 야채만 사용하면서 양념은 적게 쓰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며 "이 시기에 각 가정에서도 월동 음식을 장만해 두면 겨우내 영양가 있고 풍성한 식탁을 꾸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장김치

▶**재료**= 배추 1/4포기, 무 1/2개, 진간장 1컵, 갓 50g, 미나리 50g, 배 1/2개, 표고버섯 3장, 잣 1큰술, 밤 2개, 생강 2쪽, 설탕 2큰술

▶**만드는법**= 배추는 속대만을 3㎝ 길이로 썬다음 씻어 물기를 빼고 무도 3㎝ 토막으로 잘라 배추와 비슷하게 썬다. 배추를 진간장으로 절이다가 무를 넣어 함께 절인다. 무를 넣어 2시간 정도 절인 후에는 진간장 물을 따라 낸다. 미나리, 갓, 실고추를 3㎝길이로 잘라 절여놓은 배추와 무를 넣고 간장물에 설탕과 소금으로 간을 하며 버무려 섞는다.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2~3일 후에 먹는 것이 좋다.

호박김치

▶**재료**= 늙은 호박 1개, 무청 1kg, 굵은 소금 2컵, 고춧가루 2컵, 생강 2쪽, 찹쌀가루 1컵, 감초물 2컵

▶**만드는법**= 늙은 호박 껍질을 벗겨 반을 갈라 속을 파낸후 도톰하게 썰어서 소금에 절여둔다. 이때 무청도 소금을 약간 넣어 절여둔다. 감초물에다 찹쌀가루를 풀어 풀을 쑤어서 차게 식혀둔다. 절여놓은 호박과 무청을



◇미역·김부각



◇들깻잎 장아찌

씻어 건져두고 여기다 고춧가루 생강 등의 양념을 해둔다. 고춧가루 색깔이 어우러지면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익혀 먹어도 좋고 찌개로 끓여 먹어도 좋다.

미역·김 부각

▶**재료**= 튀각미역, 김, 찹쌀풀, 실고추, 통깨, 소금, 식용유

▶**만드는 법**= 튀각미역을 깨끗이 씻어서 모래 또는 이물질을 제거해 말려둔다. 찹쌀을 매일 한번씩 물을 갈아주며 5일간 담가둔다. 찹쌀을 건져 곱게 빻아 조금 묽직하게 죽을 쑨다음 소금간을 한다. 미역을 알맞게 썰은 후 그 위에 찹쌀풀을 발라 실고추와 통깨를 뿌려 햇볕에 바짝 말린다. 160도~170도의 기름에 미역을 넣고 찹쌀풀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도록 튀겨 건져낸다.

들깻잎 장아찌

▶**재료**= 들깻잎, 고추장(또는 된장), 소금

▶**만드는법**= 들깻잎을 한 장씩 씻은 다음 소금물에 노랗게 삭혀 무거운 돌을 눌러 물기를 뺀다. 의울베에 모두싸서 된장이나 고추장 항아리에 1개월 정도 박아두면 장아찌가 된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생활단신

무의탁 어른돕기 공연

삼천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무의탁 어른을 돕기 위한 '자선 공연'을 마련한다. 이날 행사는 가요 공연, 레크리에이션, 식사 대접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가요공연 프로그램 시간에서는 현숙, 배일호, 김혜연 등 불자가수들이 출연해 신명나는 시간을 꾸며줄 것으로 기대된다. (02)385-1351

'약초와 건강관계' 강좌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18일 오후 3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불교귀농학교 건강강좌'를 연다. 이날 강의에서는 홍원유통 윤복규씨가 '약초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일본 공동체 야마기시즘을 보급하고 있는 서혜란씨가 '함께하는 즐거움, 공동체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한다. (02)733-1884

불자련 간병인 교육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상계동 사천왕사에서 '간병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간병사례발표와 기본 간호 이론교육 및 실습 등이다. 노귀남 교수(경희대 국문과)를 비롯해 국립의료원 간호사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02)733-3221

주부 신행담

마음닦기 ③

그러면서 가정도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의 오랜 간호로 나의 건강은 악화됐다. 병원에서는 산후풍이니 별로 신경쓰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했지만 팔과 허리의 통증은 계속되었다.

고통스러울수록 독경을 더욱 열심히 했다. 4개월이 지난 뒤 꿈을 꾸게 됐는데 꿈에 여러명의 스님들이 공양을 준비해 놓고 먹을 것을 권했다. 하지만 내가 팔이 아파 못 먹겠다고 하자 스님들이 큰스님 돌아오시면 치료를 부탁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다.

큰스님이 돌아오시자 내 입안에 큰 주사기를 넣어 치료를 해 주셨다. 그 주사가 너무 아파 꿈에서 깨어 일어나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어깨에 올려은 무사히 끝났다. 의사 선생님도 결과가 좋다고 말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이었다. 나는 언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결같이 〈금강경〉을 독송하며 부처님께 귀의하겠다는 부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인 수술 결과를 듣고도 계속 감사의 독송을 올렸다. 병원 통로의 계단에 앉아 희미한 조명을 의지해 〈금강경〉을 읽고 또 읽었다. 지나가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도 이러한 나의 행동을 방해하는데는 역부족 이었다.

목이 쉴 정도로 〈금강경〉을 독송하니 힘이 들고 목이 아파 오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만은 날아갈 듯이 상쾌했다. '아, 이런 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부처님의 가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의 수술도 잘 돼 많



그림 · 이준석

'미륵존…' 염송에 대수술 성공

져 있던 쇳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기분처럼 팔과 허리가 가벼워졌다. 팔과 허리를 아무리 만져봐도 통증이 느껴지는 곳은 없었다. 너무 좋아 남편에게 꿈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함께 좋아했다.

4월에 아이의 마지막 입수술을 했다. 다리의 물렁뼈를 잇몸에 이식시키는 수술인데 5~6시간 걸리는 대수술이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신경이 쓰이거나 두렵지 않았다.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미륵존여래불'을 염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아이가 수술하는 동안 내내 〈금강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수술이 끝난 뒤 회복실로 옮겨 잠시 면회가 허용됐을 때도 의사 선생님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미륵존여래불'을 계속 진언했다.

6시간 이상 장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병세가 호전됐고, 남편도 나를 많이 이해해 줄 정도로 가정도 안정이 되었다. 사실 현재로서는 남부러울게 없을 정도로 행복에 넘쳐 있다.

하지만 요즘도 나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닦는 일이다. 평상심을 유지할 때 오히려 자만하지 말고 어떤 시련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마음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금강경〉을 손에서 떼지 않는다. 현재 어려움에 처해 좌절과 실망속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금강경〉 독송을 통해 마음의 응어리를 녹여 밝게 살길 발원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독송 수행은 계속될 것이며, 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극 권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싶다. 〈끝〉

이경순〈포항시 남구 지곡동〉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입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101 - 교리 · 입문편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 값 5,500원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102 - 교리 · 입문편
법수로 배우는 불교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201 - 생활불교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펠 스님 편역
B6 변형 176쪽 값 4,000원

'계율'을 통해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202 - 생활불교편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혜능 스님 엮음
B6 변형 330쪽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301 - 선(禪)편
참선요지 (參禪要旨)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B6 변형 276쪽 / 값 5,500원

깨달음 자체보다는 어떻게 궁극에 도달할 것인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302 - 선(禪)편
방편개시 (方便開示)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B6 변형 276쪽 / 값 5,500원

한글 세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303 - 선(禪)편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6쪽 값 6,000원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401 - 문학편
허공의 딸꾹질
이중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 5,000원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501 - 문학 · 학술편
불성이란 무엇인가
전지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황폐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 '천상천하유아독존'
502 - 문학 · 학술편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자기 세우면 '苦' 근본에 맡기면 '자유'



그림 · 최주현

관음 지장 칠성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
마음으로 쌓은 업보 녹여야 편히 살죠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요

문 정말이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 모든 것을 '내가 한다, 내가 살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근본에서 이끌어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나는 거짓 자기이자 환상일 뿐입니다. 그런 중생심, 이기심, 자만심에 빠진 거짓 자기를 믿는다면 항상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해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은 참나, 수억겁을 거쳐서 나를 이끌어 온 나의 근본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실로 나의 근본을 믿고 모든 것을 나오게 한 근본에 다 놓아나가는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공부의 재료라는 사실을 진정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가슴 절절히 느낄 수밖에 없는 진실...

그리고 언제나 나의 근본이자 나의 스승인 주인공은 진심으로 믿고 맡겨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생명의 근본이 없다면 어떻게 움직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송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의 근본, 영원한 근본을 믿지 않고 자기가 뭐가 되려고만 하니 이게 됩니까.

어떻게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느 나무가 자기 뿌리더러 하는 소리가 '뿌리야 뿌리야, 너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누렇게 떠있으니 네가 네 싹을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하고 말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하는 소리가 '너가 나를 알고 있었니?' 하면서 "그러면 내가 모든 영양분을 올려 보내마."하고 좋아하더니만 그렇게 싹이 푸르러지더랍니다.

그러니 자유는 나의 근본,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진실하게 영원한 친구이자 스승인 나의 근본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맡겨놓고 자유스럽게 사십시오. 왜 자기를 세워서 스스로 자유스럽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어떤 부처님을 믿어야 할지…

문 삼보에 귀의합니다. 저희는 현재 교도소 내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소내의 불교교리 방에서 지내는 재소자입니다. 현재 이곳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조·석으로 예불을 드리면서 지낸지도 어언 6년이 되어 갑니다만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스님마다 법사님마다 지장보살이 좋다 관세음보살이 좋다 나무묘법연화경이 좋다고 서로 다르게 말씀하시어서 재소자 불자님들에게 뭐라고 답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제가 재소자 불교회장이라서 저에게 문의를 해오는 실정인데 저도 딱 꼬집어서 대답을 못해 방편설과 비유설을 이야기하면서 그대 그때 설명을 해주는 실정입니다. 좀 상세하게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현대불교 신문은 잘 받아 보고 있으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답 자기 안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노력없이 그저 바깥으로 "지장보살이 좋다, 관세음보살이 좋다, 아미타불이 좋다."고 남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면서 흔들린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한다고 할 수 없겠지요.

왜 부처님께서 수억의 깨우친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하나의 부처라고, 일불(一佛)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이 깨우쳤다 하더라도 그 깨우침에 있어서는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래 둘이 아닌 진리인데 바깥으로 그렇게 자꾸 찾는다면, 스스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 채 진리의 길과는 천리만리 멀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속에서, 깨달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부처인 것이고, 마음을 냈다 하면 법신인 것입니다. 즉 문수죠. 내가 생각을 했으니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움죽거림은 보현입니다. 화신이죠, 자꾸 바꿔지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 하나가 이 세상을 다 쥐고, 굴리고,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살다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여러 가지를 듣고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렇게 한순간에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하면서 자꾸 변해서 돌아가는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의 마음은 있으면서도, 어떤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없으리만큼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 전부 부처 아닌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할 때 부처라 하겠으며 또 나라고 하겠느냐. 아내를 만났을 때는 남편이지만 자식을 만났을 때는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화해서 돌아가는 것을 법신이니 화신이니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근본의 능력으로써 심성의 능력으로써, 순간 순간 이게 됐다가 저게 됐다가 이게 됐다가 저게 됐다가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으로 끄달리는 사람은 칠성부처님에 놓고 빌면 명이 길어진다는 것이 아주 상식처럼 돼있어요. 지장보살에 놓고 빌면 좋은 데로 간다, 관세음에 놓고 빌면 밝아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 용신한테 놓고 빌면 용왕이 도와준다, 지신한테 놓고 빌면 지신이 도와준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공식처럼 다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한마음으로 뭉쳐서 통과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마대사도, 양무제가 '내가 이런 불사도 하고 저런 불사도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왜 공덕이 없다고 하셨겠는가. 그 이유가 뭔가? 내 마음으로 나를 다스리면서, 나를 이끌고 가는 나의 근본인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맡겨놓고 발현이 돼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들어가고 닿지도 않고 그저 바깥으로 여기다 놓고 빌면 좋아진다더라, 저기다 놓고 빌면 좋아진다더라 하고 헤나간다면 다가오는 고난을, 병고액난이니 뭐니 고통스럽게 닥쳐있는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심이 있어야, 말하자면 맷돌이 심봉을 꽂아야 돌아가고 또 물건이 갈려져 나오는데, 심봉을 꽂지 않으면 그 맷돌인들 온전하며 물건인들 제대로 갈아져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좀더 나를 이끌고 다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내 한마음 주인공을 믿고셔야 합니다.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의식들을 몽땅 한데 합쳐서 한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의식도 다 한마음이라고 관한다면, 한마음 속에서 모두 나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다스리는 내 마음이 자꾸 알아지니까, 저절로 '아! 나하고 둘이 아니로구나'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된다면 몸이 아파도 자기가 자기를 낫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몸의 세포 하나 하나에도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바깥에 두고 있는 모든 걸 안으로 두면서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하면 전부 한마음으로 이끌어지게 되거든요.

한마음으로 이끌어지게 되니까 몸 어디에 파업이 일어나서 좀 힘들더라도 그걸 메꿔주게 되죠, 자기니까. 바로 자기니까 맡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깥으로, 나 따로 부처님 따로, 되는 거 따로 안되는 거 따로, 이렇게 모두 갈라놓으니까 갈라질 수 밖에요. 일일이 쫓아다녀도, 일일이 해롭게만 돌아오지 이익된 게 없어요. 그러니 부처든 관세음이든 지장이든 이름만 다르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부처님 마음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각자 다른 이름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처를 통하면 자연히 용도대로, 필요한 대로 쓰이는 이치를 밝게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태교를 잘하는 방법

문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주위 친구들을 보면 태교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본인들의 분신이고 본인들이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스님께서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몸은 부모를 빌고 영식은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태교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나요? 그저 그 생명에게 주는 좋은 마음만으론 안될 것 같습니다.

답 어느 두 부부가 쌍꺼풀도 하고 얼굴도 아주 미인으로 고치고 미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를 낳았는데 보니까 아주 못생긴 겁니다. 자기네들 원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보고는 부모는 잘 생기고 미인인데 어째서 애는 이렇게 메주 덩어리같이 생겼느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는 어느 누가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당신은 당신 그림 그려 가지고 나온 것을 생각지 말고, 당신 할아버지가 참 잘 생겼으니 할아버지 얼굴과 몸집 그대로, 태교할 때에 생각해 넣고 그렇게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그래서 마음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그 할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잘생기게 나왔더랍니다.

이것은 즉 마음입니다.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내 몸뚱이도 없건만 마음으로 그렇게 잘 그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태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안에 있는 어린애, 그 자리는 어린애의 마음이나 우리 산 사람들 마음이나 모든 게 같이 늙어서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이든지 어린애를 원하면 '어린애 있기 이전부터 모든 걸 관하라.' 하고 일러줍니다.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익히 아는 삼신한테 관하라 이거죠. 삼신은 즉 말하자면, 우리의 자삼보를 말하는 겁니다. 자삼보에 연결이 돼있는 삼신, 즉 말하자면 관결을 낼 수 있는 삼신이라는 말이죠. 삼신이라니까 어린애만 받는 소임을 갖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어떤 차원에서 차원끼리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용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게 관해야죠. 관해서 어린애를 가지면 태교는 백일이 지날 때까지는 보살피거든요. 배 안에서도 삼신이 보살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있을 때에 태교로 잘 이끌어간다면 그대로 알아듣게 되고 그대로 실행하게 되고 그대로 과거의 어떠한 유전성,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이 모든 것들이 다 겹쳤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런 것이 다 없이 세상에 나오게 돼야하지 않겠느냐고 할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태교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본래 업보가 묻혀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마음에 의해서 쌓이고 쌓인 거죠. 그거를 벗어내뜨리고 나오게 해야, 그 업보성과 인과성이 없어야 큰 병도 안 앓고 또 그 인연에 따라서 악의 선근을 갖지도 않고 악의 인연을 갖지도 않고 편리하게 인연을 가지면서 선으로서의 인연을 갖게 하고, 효도라고 할거는 없지만 부모에게 귀찮게 하지 않고 악한 일 생기지 않게 하고 그러면 효도죠, 뭐. 그렇게 되면 그게 효도예요.

그런데 어린애를 낳기 이전에 태교를 생각해 보지 않고 어린애를 가져서도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노력 없이 좋은 아들을 보려고 하고 좋은 딸을 보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 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만큼 추수를 해 들이는 거 아닙니까? 거름도 줘야 하고 풀도 뽑아야 하고 맡입니다. 그렇게 추수를 해 들이듯이 자식을 낳기만 했다고 자식이 아니라 자식을 하나하나 낳는 데도 그런 소임이, 그런 역할이 들어 가야만이 소중한 아들을 낳을 수 있고 소중한 딸을 낳을 수 있으니 어느 것 하나 공부 아닌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플때 통증 멎게 하려면

문 며칠 전에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중에 생각이 일어나기를 이 공부는 죽는다 산다를 다 놓는 공부인데 아픈 것을 왜 못 놓고 아파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주인공, 아파도 네가 아픈 거잖아.' 하고 관해도 여전히 몸은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어떻게 두어야 할 지 몰라 '주인공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아무 생각없이 아프고 말았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데 아픈데도 통증을 못 느낀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제가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되겠는지, 무엇을 알고 가야하는지 크신 가르침 바라옵니다.

답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이 없이 놓고 그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만 하면 고통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옵니다. 다만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하느냐가 문제죠. 내가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공심이 되고 공식이 되니까 안에 있는 생명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살 양으로 모두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 몸이 모든 생명들이 사는 집이니까요. 그러니 그 집이 무너지면 자기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한데 합쳐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리가 삐긋해서 아프다 이럴 때 '허리가 이렇게 아프면 너의 집이 고달플텐데 그렇게 되면 안되잖어?' 하고 관하면 그냥 저냥 나아서 다니게 되는 거죠.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만이 잘못하고 나만이 잘하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면 자성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으로서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보살로 화하게 만들어서 전부 응신이 되게 하시죠. 그러면 첫째 싸움이 없으니 병이 안 걸리죠. 싸움이 없으니 또 화목하죠. 몸이 화목하면 마음이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하면 가정이 다 편안한 겁니다. 어디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파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공부로 알고 공한 도리를 안다면 괴로워도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아파도 아픈 그것이 어디서 왔나 하고 분잡하게 야단하지 않고 편안하단 얘기예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병도 병이 아니라 그냥 공부죠. 아프지 않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묘법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 벌써 사방 팔방으로 돌아 치면서 이젠 죽었다고 야단들을 하죠. 내 육신이 차라고 생각한다면 차가 고장이 났으면 누가 고칩니까? 그 주인인 운전수가 고쳐야죠. 딴 사람이 고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고쳐야죠. 그러니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고쳐줄까봐 그렇게 야단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 마음이 야단을 하니까 몸이 더 아플 거 아닙니까. 모르는 분들은 어떡해서 그런가 하고 산란하겠지만 모르더라도 무조건 그렇게 하십시오. 무조건 그렇게 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모든 애고·병고·유전성·영계성·세균성 등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흥'하고 코웃음을 탁 치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가 또 생겼네. 네가 공부하라고 내놓은 거니까, 아프지 않고 고가 닥치지 않게 하는 것도 너잖아.' 하고 맡겨 놓고 모든 것을 타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재료로 알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수행차원 높이고 싶어요

문 무라는 책을 통해서 스님의 참된 법문을 접한 지가 십 여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은산철벽 속에서 헤매는 느낌입니다. 몇 년 전에 정진하다가 내 자신이 작아지면서 몸 속에서 몸이 아닌 황금빛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의 모습을 경험한 이후 몸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은 확고해졌지만 또 다시 현실생활에 끄달리면서 요즘은 명상을 하면 정신은 조금 맑아질 뿐 좀더 높은 경지로 나아간다는 느낌이랄까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수행처를 찾아 나설까 생각도

☞ 20면으로 계속

기쁘든 언덕을 넘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더불어 죽고 더불어 나툴수 있게

☞ 19면에서 계속

해보지만 그것도 결국은 장소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니 주인공을 찾고 있지만 체 없는 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좀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감히 여쭙니다. 그리고 생활이 불법이고 수행처인데 출가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답 믿음입니다. 진짜로 믿는 것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통신이 됩니다. 나온 구멍에 진짜로 놓았는지, 그 구멍으로 진짜 들어갔는지, 그래서 통신이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실로 믿어서 통신이 된다면, 그러니까 대뇌 소뇌를 거쳐 사대로 통신이 된다면 자기 마음이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수습할 것은 수습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부처될 자격이 있는데, 제 부처를 진짜로 믿는다면 마음은 천차만별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몸을 먼저 생각합니까? 몸 따라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따라 몸이 편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잘 되려고 하지도 말고 못 될까를 염려하지도 말고 어차피 믿고 맡길 것이라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충실한 하인이 되어야지 될 자구 따지겠습니까?

하인은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지 잘 됐느니 못 됐느니를 따지지 않죠. 주인도 따지지 않는데 하인이 왜 따지느냐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과거의 종문서에서 풀려나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맡기세요. 믿는다면 말입니다. 아니, 못 믿겠다 싶어도 이치가 그러하니 그렇게만 맡기세요. 종 노릇을 철저히 하란 말입니다. 예전엔 한번 종이 되면 자식까지도 전부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요.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종문서에서 벗어나려면 종답게 종노릇을 해야 풀려날 기회를 잡게 될 게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종이 주인 노릇을 해보세요. 주인 역할에 끼어들고 참견을 하다가는 그냥 맞아 죽기 십상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지도 못하고 주인도 찾지 못하니 자자손손 종노릇을 면할 길이 없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치와 같이 제 부처, 부처 아닌 부처가 본래 있으니 그것을 진짜로 믿어라. 그래야만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출가를 했든지 안했든지 그걸 떠나서 하는 거예요. 또 출가를 하더라도 마음으로 출가를 해야지 몸만 출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출가를 하는 것은 가정을 버려야 하고 형제들이나 부모님에 대한 애착도 버려야 하고 안에 들어와서는 나까지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가를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도 이 자리, 살아도 이 자리. 하지만 살아 나온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갈 자리도 없어요. 생사윤회를 몽땅 치워버렸거든요. 내 몸뚱이가 공해서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오는 건 어디서 왔으며, 그 자리에서 가는 건 또 어디로 갈 것이 있겠습니까. 그 뜻을 잘 생각해보시면 이 공부하는 데는 얼마만큼 열심히 진실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출가를 하게 되면 얽히고 설킨 문제가 적으니 공부하기가 좀 나은 점이 있죠.



그림 · 최주현

법망은 무엇을 뜻합니까

문 스님의 말씀 중에 나오는 '법망'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매우 궁금해하면서 잠들었더니, 꿈에 크고 넓은 산하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고기잡는 그물처럼 되어 있었고, 저는 거인이 된 듯이 그러한 산하를 발로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흡족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만 풀어내려고 해서 부끄럽습니다만, 법망이란, 자연의 과학적인 법칙인지, 부처님의 뜻인지, 신의 섭리인지, 고정되지 않게 돌아가는 데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어떤 사람이 아침에 도둑이 들어와서 전부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친정에 와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 같으면 항시 보이지 않는 법망을 쳐놓고 두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을텐데 이런 도리를 모르니까 안절부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는 더욱더 이 마음의 도리를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놓는 이유가 우선에 내가 만나면 놀라니까, 죽지는 않겠지만 놀라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그저 모두 놀라지 않게, 무섭지 않게, 둘이 아니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놓으면 들어올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내 한생각에 의해서 법망을 쳤다가 폈다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지구의 대기권이라고 하는 것도 망이 쳐져 있는 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몸에도 법망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세포가 법망이죠. 이 법망이 없으면 사방 군데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못 삽니다. 세균성도 들어오고 영계성도 들어오고 유전성도 들어오고, 전부 끼어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법망이 없는 데는 없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잘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나가는 것도 잘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카바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법망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이구나' 하고만 끝이 나면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 내 마음의 근본을 진실하게 믿고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응용하고 실험해 보시면서 이 마음 도리를 체득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의 도리가, 꽃나무도, 무정물도, 생물도 모두 내가 말하는 대로 알아듣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알아듣게 돼 있어. 하다 못해 집안에서 기르는 고양이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다 알아듣는단 말이야. 뜻으로 알아듣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상대에게로 가기 때문에 알아 듣게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는 못 알아듣는데, 상대가 지극하게 마음을 내면 알고 느끼게 되는 이유가 뿌리는 원래 둘이 아니기에 뿌리를 통해서 모두 연결이 되고 전달이 되기 때문이야.

종문서 벗으려면 무조건 맡기세요
뿌리는 둘 아니기에 마음내면 전달

동생이 듣고 말하지 못해요

문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선원에 동생들과 다니면서 주인공을 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해서 관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주인공을 관하는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답 이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하다 못해 병원에 가서 진찰할 돈도 없었대요.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뱃속의 아이는 바로 선 것 같지를 않고 그래서 하루는 돈을 빌려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거꾸로 어린애가 서 있다고 의사선생님이 그랬대요. 거꾸로 애가 서 있다고 그러는데 또 어디 가서 돈을 빌릴 때도 없고 아주 망망하더래요.

그런데 누구한테 선원 얘기를 듣고 여기를 찾아 왔거든. 그래서 스님들이 이 마음의 도리를 얘기해 준거야.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마음이 편안하게 되면서 마음으로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나와 너와 둘이 아니요, 모두가 한마음인데 그렇게 지금 돈도 없고 생활도 어렵고 그런데다가 너까지 거꾸로 서서 이렇게 힘들면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몸과 몸이 다 불편하니까 너 알아서 해' 하고선 막 뱃속의 애한테 사정 얘기를 하다시피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는데 한 서너 시간을 지내고 보니 이상스럽게 배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그러더니 정말 낳을 때 보니깐 애가 똑바로 섰다는 거야. 뱃속에 있던 어린애가 엄마가 마음으로 하는 말을 알아들은 거지.

그래서 동생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진실하게 동생에게 마음으로 이끌어 주면 동생도 너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고 알게 돼. 그러니 어린이법회에 함께 다니면서 마음으로 이끌어 줘. 네가 너의 주인공에게 동생의 문제를 모두 믿고 맡기면 그 뿌리끼리는 통신이 돼서 전달이 되는 것이니까.

이 마음의 도리는 머리로 알고 생각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실행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문제를 주인공에 맡기고 착하게 살아가기 바란다.

나는 놓고 상대가 놓지 않을때

문 스님이 말씀하신 '인생은 고가 아니다'라는 책을 읽고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의문나는 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일들을 모두 놓았다고 생각했고 놓았다는 생각조차 놓았는데 저와 그 상황에 공존했던 다른 이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나와 함께 하는 지금 상황에서 다른 어떤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가는 생활선은 외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만 비우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선을 행하고 있는 제 자신과 다른 일반대중들과는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또 가끔 생활속에서 모든 것을 놓고 가다보면 지난 일들을 망각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와 함께 했던 다른 이가 그 상황을 기억해주길 원할 때 대답해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도 모두 주인공자리에 놓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간혹 당황스럽습니다. 이러다가 믿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걱정입니다. 스님의 넓고 큰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그렇기 때문에 물리가 터지고 지혜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지. 네가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려고 걸음을 걸을 때 한발짝 걸어갈 때마다 내가 걸어간다는 생각을 해야 하나, 걸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하나 하고 왔어? 그냥 학교 갔다가 집에 오려고 걸었으면 그대로 그냥 그냥이지. 그것을 일부러 생각을 해서 이거를 놓으랬는데 한다면 그건 안되지. 걸어왔든 걸어갔든, 친구와 다투어서 화가 났든, 모든 게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대로 놓으라는 소리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냥 놓고 돌아가는 거다. 이거지. 그러고 나쁜 일을 하고 나쁘게 상대방에게 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잘못을 남에게 떠다 넘기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모두에게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을 해라. 그럼으로써 나쁜 게 다 싹 가시고 화목하게 된다는 거야.

누가 뭐, 잘살지를 말래나, 돈을 벌지 말래나, 사랑하질 말래나, 춤을 추질 말래나, 친구와 놀지 말래나, 누가 하질 말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까 그게 하면서도 하지 않는 거다 이런 거야. 즉 말하자면 내 몸뚱이 속에 지금 생명들이 다 작용을 하고 가는데 한 귀퉁이에서 작용을 안 해 준다하면 내 몸뚱이가 쓰러져.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작용을 하고 가는 그 자체에서 볼 때에는 내가 화를 냈다, 이런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 업식 속에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화를 안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돌려 놓으라는 소리지. 어느 것 하나인들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필요할 때 재깍재깍 튀어나와서 일을 하는데도 남들보다 뒤쳐지지 않고 남들을 리드해서 이끌어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당신만이 할 수 있다고 자꾸 관해. 무슨 일을 하든 요량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을 요리해서 맛있게 모두 나눠먹을 수 있을 것 아닌감.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모두가 귀합해서 돌아가는 생활이 그대로 여여함이다. 그대로 여여함인데, 함께 돌아가는 걸 모르고 나 하나 개별적인 것이 그냥 사는 건 줄 알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더 마음의 폭을 넓혀서,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치가 바로 우리 생활에서 돌아가는 이치라는 것을 알아야만 둘 아니게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다는 거야. 우리가 본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음에 티끌 하나 없이 자유스러워 질려면, 나 혼자만 죽어서는 안되고 더불어 함께 죽어서 더불어 함께 나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더불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요량이 생길 수 있도록 가는 거 잡지말고 오는 거 막지 말라. 닥치는 대로 내가 편안하게 받아 들이라는거야. 믿고 맡기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득해 나가기를 당부해요.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동자승의 세계(大·小)


산사의 향기(大·小)


연화의 세계(大·小)


탑이 있는 풍경(大·小)


산사의 꽃향기(大)


신비의 달마도(小)


석 굴 암(小)


백 련(小)


북한의 사찰(小)


선의 세계(小)


금강산의 사계(小)



■ 사진 : 안 장 헌
산사의 향기, 탑이 있는 풍경, 선의 세계, 석굴암은 한국불교사진 예술의 독보적인 안장헌교수의 작품이다
안교수는 월간 영상 편집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불, 국립공원, 석굴암, 영겁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 작품집이 있으며, 현 한국 사진작가 협의회원 및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자문으로 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5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 크기 : 대(30×31cm) 국6절, 가격 : 1,600원
소(26×26.5cm) 사륙12절, 가격 : 1,400원
■ 매 수 : 표지포함 13매
■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 주문부수 : 100부 이상
■ 미니 차걸이 달력은 200부 이상

8절 대지 마닐라(14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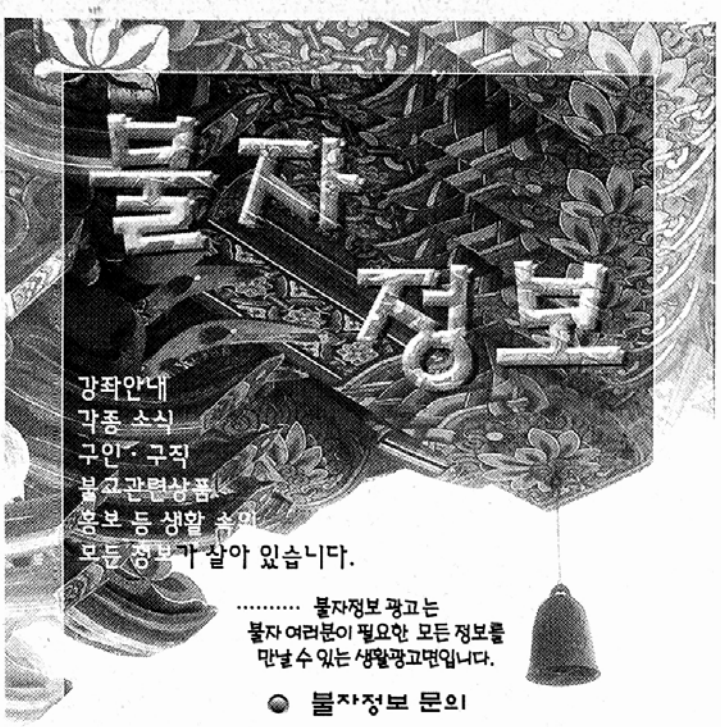
◈ 종 류 ◈
1. 미소동자
2. 지혜동자
3. 천진동자
4. 동심동자
5. 환희동자
6. 홍련
7. 백련
8. 금강산 보덕암
9. 해금강 일출
10. 묘향산 보현사 일출
11. 금강산 표훈사
12. 만다라
13. 금산사 미륵전
14. 탑이 있는 풍경
15. 석굴암
16. 낙산사 해수관음
17. 동화사 통일약사여래불
18. 보리암 해수관음
19. 달마도



미니 차걸이 달력 ➡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제작문의 : (02)723-4306 팩스 : (02)738-8682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 - 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黃印七子餠茶, 七子鐵餠茶
六安散茶, 보이散茶,
육보차, 벽돌전차, 소타차,
고산오룡, 철관음
도매가 판매
"山中禪房 · 전통찻집 특별상담"
02)911-6798
017)406-6682
茶 道 里

과거(科擧)시험 합격 비법(秘法)
◎ 사법고시 · 행정고시 · 각종국가고시 · 자격시험
◎ 주소, 성명, 생, 월, 일, 시 전화롤 접수하시면 신척법(神尺法)비전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卍 지장 禪院 053)982-6778 011)812-3679

수맥(水脈)강의 안내
• 과정 : 기초부터 강의 • 강사 : 유준철(수맥전문가)
• 과목 : 수맥 양택 음택(수강료 6개월 5만원)
•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4시
• 본회연혁 : 1983년 국내 최초로 설립 2000년 9월 현재 3,500여명 수강
• 위치 : 지하철 7호선 상도역 1번 출구 30m 직전 기아 자동차 옆 순천학회 세종수맥학회 수맥이 지나가는 곳에서 잠을 자거나 공부하면 건강이 점차 악화되며 정신력이 약해지고 무기력해 집니다.
문의 : 02)817-9996
www.suyo.co.kr



벼락맞은 양류목
(精靈 기거하는 나무)
⊙ 규격 : 130cm×60cm
⊙ 수령 : 약 300년 안동 수몰 지구 ⊙ 양도기 : 180만원
◆ 벼락맞은 양류목을 가지고 있으면 소원성취는 물론 무소불성(無所不成)이요
◆ 능히 미래 과거 길흉(吉凶) 화복(禍福)을 판한하여 선견지명을 통달 함이요
◆ 앉아서 천리보고 서서 만리를 볼 수있음 알지라.
그외 기문 장신법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음 알지라.
Tel : 053)985-4675 018)512-5544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 과정 :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 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저녁 7시~9시(월~금 주5일)
• 강사 : 엄윤문 원장 (명학비해 外20여권 저술)
• 위치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하남빌딩5층 서울역 지하철 3번 출구
• 문의 : 02)752-9013
청운역리 학원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39,000
환 (250g)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산속 암자에서
기도수행하실
처사님, 보살님,
노스님 구합니다.
043)542-2239

부전 스님
구합니다.
◆ 50세 이하 ◆
051)508-6779
051)508-5165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16)249-6973

급
▷ 강원도 졸업하신 스님을 초대합니다.
▷ 유학하며 인재를 꿈꾸시는 분 더욱 환영합니다.
▷ 위치 : 미국 시카고 불심사
▷ 희망자 : 원주스님 · 부전스님
불심자 주지 혜인
02)907-1643
016)243-1643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벽 조 목
(벼락맞은 대추나무)
108염주 스님 = 12만원
신도용 = 6만원
■ 워낙 희귀하여 진품이 어려운데 600년된 진품이 여기 뜻있는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좋은 물건은 인연따라 주인을 만납니다
053)982-4976/011)813-3679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소재지 : 울산 ◁
052)211-1009

도심 포교할 스님
3만여 세대가 넘는 신시가지에 위치한 시설 최상급 포교원입니다. 현재 5백여 세대가 등록되어 있고 법회가 진행중입니다. 유학관계로 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보증금 : 삼천만원(45평)
위 치 : 광주 광역시
011)320-8541

사찰 안내
• 위 치 : 강원도 태백산 도량
• 평 수 : 약 830평
• 특 징 : 법당 20평(목조), 요사채 3동 각 30평씩, 방6개, 사신각, 조각, 3층탑, 5층탑, 미륵불, 지장전, 납골당불사주읍내 수재지 기차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스님이 몸이 안좋으신 관계로
• 가 액 : 답사 후 결정
02)2618-0767/011)753-0768

사찰 안내
• 위 치 : 대전 보문산 케이블카 입구 위로 700m거리 산밑에 위치
• 건 물 : 임법당15평, 방 7개, 사무실, 산신각, 주방, 화장실 2개, 건평 40평 대지 100평 국유지(사용허가 필)
• 특 징 : 부처님 3분, 탱화, 호신불 108분 모셔져 있음
• 가 격 : 4800만원 부처님, 탱화등 빼고 3800만 (매매) 세 가능
042)255-5063/011)498-6694

사찰 안내
• 평수 : 3층 50평, 4층 5평
• 위치 : 안양 박달 1동 內 주택은행 4거리
• 법당 : 삼존불, 약사여래불
• 특징 : 시설일체 제공
• 가액 : 4천만원 (보증금 포함)
031)464-156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서구청 4거리 (한빛은행 맞은 편)
• 평수 : 4층 건물 3층 46평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천만원
• 특징 : 시설 A급 위치 최고
(법당 시설 일체, 방3개)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2자 반 칠성 부처님 3자반 후불탱화 53부처님 지장전 문수보살
053)565-0430/016-875-0934

사찰『급』매매
• 위치 : 경남 남해군 소재
• 평수 : 약 1000평
• 법당, 요사채 2동
• 가액 : 7천만원
055)862-6199
017)856-3617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대지 : 720평
• 법당 : 50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 종각, 미륵, 요사채, 고시 공부방 (각각있음)
• 가액 : 3억 5천
011)675-9828
063)453-2970

사찰부지 임대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 2리 37-1번지 (평창-영월간 31번 국도 인접)
• 면적 : 준농림지 1,700평
• 특집 : 사찰부지로 최적지
• 가액 : 협의 결정
011)213-4608

경남 진주시 관내
사찰 부지
저렴하게 파실 분
연락요망!
011)830-2880

사찰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25×10×8m) 코너
• 건평 : 120평
• 붉기구 5천만 무상 제공 (포교원 최적)
• 융자 포함 매 5억 2천
시정상 급매
031)454-1133
011)386-6467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신림동
• 법당 12평, 요사, 방 2개, 주방, 마당 50평
• 특징 : 40년된 절
• 가액 : 4.000만원 보증금 월 50만원
02)853-8612/856-3405

사찰 양도
• 위치 : 경북 김천 • 대지 : 600평
• 법 당 : 28평 (사무실 포함) 산신각/창고/주차장 요사채 55평, 방 7개
• 특 징 : 경관이 수려하고 산속 맑은 계곡을 끼고 있으며 기도처로 최적지
054)436-5036
011-805-7738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근교
• 부지 : 480평
• 건물 : 35평
• 가액 : 2억 3천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
• 대지 : 271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특징 : 좌청룡, 우백호, 산신각 유명, 약수가 나옴
• 가액 : 8천 5백만원
011)526-1824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
• 구조 : 3층 건물 2층 40평 (법당, 방3, 주방)
• 시설 : 삼존불, 원불 108, 신중, 칠성 탱화
• 가액 : 보증금 5백, 월 5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2)489-5465 / 011)258-1147

사 찰 안 내
• 위 치 : 456평 (종교용지)
• 법 당 : 30평 (단청완료)
• 요사채 : 60평 (현대식)
※ 시흥시 최고요지의 산세 좋은 도량이며, 주지있으며, 매일 수백명씩 보이는 유명한 도량임
• 양도가 : 8억(분할가능)
•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 부 지 : 산세 좋은 자연녹지임야 6,000평
• 법당 및 요사채 : 건축허가유
• 주차장 있음
※ 부산시내에서 사찰불사 및 납골당 건설할 스님께서는 최고조건임
• 양도가 : 18억 (분할 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영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양양
• 법당 : 10평(목조)
• 요사 : 20평
• 부지 : 1,600평
• 가액 : 1억 9천
• 위치 : 충남 연기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9천
• 위치 : 경기 이천
• 법당 : 26평(주삼포)
• 지장각 : 12평(목조)
• 요사 : 35평
• 부지 : 250평
• 가액 : 2억 8천
※ 부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사찰 양도 · 인도 할 분
⊙ 군위 고로 (인산월드 저정농장)
⊙ 공기 좋고 약수물 나오는 계곡 마을
⊙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장수촌
⊙ 휴양지로 최적 (차량진입 함)
⊙ 양도가 2,500만원 (집 2채)



⊙ 경북 성주땜 인접 (인법당)
⊙ 대지 55평 (토담집 2채)
⊙ 밭 550평 산세좋은 기도 정진 도량임
⊙ 양도가 4천만원
주인 011)506-12545
사찰, 창건 지도 불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방동 신대방3거리 전철역 (7호선 5번 출구)옆
•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방 3개, 부엌, 욕실 및 다용도실
• 가액 : 보증금 5천만원(월60만원) 전세가능, 시설비 1천만원 또는 보증금 3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741-208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 보문산 공원 입구
• 구조 : 52평 한옥건물 2채
• 특징 : 불교용품점 운영 가능
• 시설비 3000만원 (절충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42)253-5037/016)327-5037

토굴 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시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3천만원 (가격 절충)
019)545-2962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주시내에서 20분 거리
• 대지 : 법당 10평, 산신각 6평, 주방(2), 방(4), 목욕탕시설 일체 완비
• 특징 : 교통이 편리하면서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좋아 기도정진 하시기 적합.
• 가액 : 5,200만원
052)292-3297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최 요지
• 쑜 : 250평 이상 建 : 120평 이상
• 법당 : 50평 포교당 최 적지
• 가액 : 답사후 결정 부산시내 사찰허가 있음
• 쑜 : 1,300 평당 50만원
051)208-1122
011)874-8122

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치 : 서울 중랑구 신내동
• 평수 : 40평, 4층건물 4층 방2 주방1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 3,000만원(법당시설 완벽함)
• 특징 : 주변대단위 A.P.T.단지 및 주택지역 도심포교에 적합함
02)436-3647

전망좋은 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송계면 서하리
• 가격 : 토굴터 347평, 700만원
• 특징 : 도로, 평토, 측량, 전용허가 완료
• 위치 : 상동
절터 5000평, 평당 2만원, 도로 완비
055)963-3068
017)301-1970

포교원 (급) 안내 (합 800만원)
• 보증금 4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400만원
• 위 치 : 서울 마포구 망원2동 474-15 (2층건물에 2층)
• 평 수 : 20평 (6호선개통지역) 방1, 부엌1, 법당1
02)332-3726

사찰 안내
• 위치 : 광명시 소이리 지하 자동차 공장 옆사
• 부지 : 750평 • 법당 : 주사포 목조 30평, 시설 A급, 지하 30평
• 요사채 : 목조 20평, 지하 20평
• 산신각 : 5평, 최공실 조립식 17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물 좋고 납골당 그린 시설 유지. 남서울 고속철도 터미널 공사중이며 서울시내 버스 124번 종점 5분거리. 차량 - 사찰까지 진입가능 주차장 40대분 완비
• 양도 가액 : 13억 5천만원 (운영하실 스님만 연락바람)
02)899-4281

토굴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상동면 조일리 보삼마을
• 평수 : 150평, 옛집 2채
• 가액 : 3천 7백 5십만원 절충 가능
051)508-677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천시 오정구 고강 본동 고강시장 입구
• 법당 : 32평3층, 삼존불, 신중, 칠성, 후불, 산신
• 즉시 법회가능 도시가스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35만원
금강 선원
032)678-7464

사찰 (급)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인터 체인지에서 5분거리) 경관 수려하고 명당 임
• 부지 : 대지 300평 종교부지 800평 총 1100평
• 법당 : 목조 29평, 요사 30평
• 절충가액 : 7억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41) 557-8815

사찰부지 혹은 전원주택지 (급) 매매
• 위치 : 울산광역시 은양
• 부지 : 과수원 2600평 田 530평
• 임야 : 8천평 (준 농림지)
· 경관이 수려하고 전원 주택지 혹은 사찰부지로 즉지 임 대행 차량 진입 가능
• 가액 : 10억
011) 568-4417

사찰(급) 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 대지 : 60평
• 건물 : 1층 요사 36평 2층 법당 25평
011)234-5967

사찰 안내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치악산)
• 부 지 : 대지 204평 田 110평
• 건 물 : 방 4개 25평 법당 10평 산신각 3평 창고 有
• 특 징 : 계곡 있고 산세 수려 함 교통 편리
• 가 액 : 1억 2천
031)575-5831
017)378-8380

포교원 안내
• 위 치 : 방학 전철역 부근
• 평 수 : 20평 2층
• 가 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50만원
02)955-6609

'황토 달마' 무료로 드립니다

부산 김휘철씨 3천3백여구 빚어 보급

"수행정신 본받아 역경극복 기운얻길"

"달마스님은 9년 면벽을 통해 깨우친 분으로 높은 수행력과 신통력으로 추앙 받는 지혜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황토 달마 상을 통해 달마스님의 내면을 향한 수행력과 지혜의 가르침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삶 속에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숨쉬는 흙 황토로 달마 3천 3백 구를 15개월 동안 조성해 무상으로 보급에 나선 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문화개발연구원 '옥수봉'의 김휘철(48) 원장이 그 주인공.

김원장은 7년전부터 황토달마 제작기법 연구를 시작하면서 황토달마 3백3십만구 조성을 발원하고 일차로 3천3백 달마 조성을 마무리 했다. "삼천대천세계에 달마의 빛, 광명, 위력이 두루 비치게 하고 싶다"는 김원장은 3천3백 달마 완성으로 금생을 다 바쳐야 할 원력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황토 달마 조성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산방토굴 작업실에 들어가 황토 달마가 완성되지 않으면 작업실을 나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봉사였다. 지장황토를 구하고 말리고 가마솥에 볶고 맷돌로 갈고 풍구로 날려 일체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미립자의 황토를 만드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혼자의 몫이었다. 입술이 부르트고 손이 갈라지면서 완성한 달마가 마르는 과정에서 갈라지고 무너지는 숱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원력이 컸기에 가능했다. 실패 끝에 처음 황토 달마가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은 '우주를 다 얻은 듯' 했다.

조성 과정이 어려워 외면당한 황토를 굳이 고집한 것은 "황토의 자연적 힘을 달마의 기운에 더하고 싶어서"였다. 황토는 예로부터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신비의 흙으로 알려져 왔고 현대에서는 원적외선 방출, 천연 가습 효과, 공기청향 등 과학적인 효능이 입증되고 있기도 하다.

황토와 씨름하며 이 땅에서 함께 숨쉬며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일체감을 맛보았다는 김원장은 달마에 삿갓을 씌워 친근한 달마를 조성했다.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느껴오던 달마를 나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내면의 스승으로 자신의 정진을 채찍질하고 싶었기 때문.

김원장은 3천 3백 달마 조성을 회향하면서 황토 달마 무상보급을 발원했다. 조성이 그러했듯 보급 또한 정성을 다할 생각이다. 삿갓 속에 세속을 초월한 형형한 눈빛을 감추고 인연을 기다리고 있는 21cm, 25cm 크기의 황토 달마는 무상으로 보급된다. 제작비를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김원장은 "맑은 마음으로 하는 일은 옹색하지 않고 반드시 성사된다"고 일축한다. 오히려 달마를 조성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이라고.

"혼과 정성을 다해 조성한 달마를 정말 소중히 모시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운을 얻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김원장은 "조성할 때의 정성 그대로 한분 한분의 가슴에 직접 안겨 주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김휘철원장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달마상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다. 황토달마는 신심깊은 불자들에게 '무주상보시'로 전달된다.



◇삼소회 회원들이 정성을 다해 바자 소품을 만들고 있다.

"자비로 굶는아이 도웁시다"

부산삼소회 24~25일 바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3대 종교의 여성 성직자들의 모임인 부산삼소회가 24~25일 부산진구청 1층 전시실에서 삼소바자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에 한창이다.

종교간 울을 터 한마음으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삼소회는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으로 결식아동 돕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9일 2차 준비 모임을 가진 삼소회 대표들은 바자회에 출품할 소품 준비 작업을 분담했다. 불교는 다포, 차상보 2폭병풍을, 천주교는 종교 구별 없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연하카드 양초공예품을, 원불교는 한지공예품 생활도자기 차도구 등 생활용품을 맡아 출품한다.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성 성직자들이 손수 만든 한지 소재 쟁반, 찻상, 보자기, 시장 바구니, 연하카드가 보는 이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름부터 조용히 행사를 준비해온 삼소회 회원들의 꼼꼼하고 정성어린 손길로 마련한 바자회 소품들은 지난 여름부터 비구니, 정녀, 수녀님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직접 오려 붙이는 등 정성을 다한 수작들이다.

김정덕 교무는 "한가족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 어려운 이들을 위한 봉사를 펼쳐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051)817-8488

부산=천미희 기자

삼화사 재정신청 기각

중앙환경조정위 "건물균열 노후화 탓"

동해 삼화사가 쌍용자원개발(주)을 상대로 제기한 채석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조정신청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각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하 재정위원회(위원장 안영재)는 지난달 31일 삼화사가 8억6,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신청한 재정사건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삼화사의 건물 피해가 쌍용측의 화약발파 진동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목재의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갈라짐으로 보이며 건물의 노후화 및 관리부실의 영향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한편 쌍용자원개발의 석회석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건물 균열 피해 등이 발생했다며 지난 3월 8억6,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낸 삼화사는 발파시험 결과를 참조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이의신청을 관할 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관음사 천불보전 낙성

청주 관음사(주지 이두)는 5일 천불보전 낙성식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83년 현 주지 이두스님이 부임하면서 중창을 거듭, 임시 법당과 퇴락한 요사를 헐로 40평 목조건물인 극락보전을 건립하고, 10년만에 전통양식으로 콘크리트 3층 천불보전을 완공했다.

낙성식에 앞서 하루전인 4일 저녁에는 관음사합창단, 풍물굿패 씨알누리, 실내악단 신모듬 등이 출연한 가운데 '산사 음악회'를 열어 시민축제의 한마당을 펼쳤다.

관음사는 천불보전 낙성을 계기로 불자들에게는 수행과 기도의 공간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쉼터의 자리가 되도록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강릉 법왕사 대웅전 준공



강릉 법왕사(주지 정암)는 5일 아미타불, 노사나불, 약사여래불 등 7불봉안 및 대웅전 준공식을 거행〈사진〉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 호계원장 월서스님, 삼화사 주지 원행스님, 심기섭 강릉시장, 황학수 의원 등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전유진 강릉지사장

존자암 세존사리탑 도문화재 지정



제주석 다공질 현무암으로 조성된 제주도 유일의 장구형 사리탑인 존자암지 세존사리탑〈사진〉이 1일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됐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제주도기념물로 43호로 지정된 존자암지 정비와 더불어 존자암지 세존사리탑을 제주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보존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존자암(중창주 진아스님)은 세존사리탑 문화재지정을 기념해 15일 오전 10시 한라산 영실 존자보궁 부처님점안 대법회를 봉행한다. (064)749-1414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청동미륵대불 개금불사

제5교구 본사 법주사(주지 지명)는 7일 통일호국 청동미륵대불 개금불사를 착공했다. 제1단계로 연말까지 부처님 겨드랑이까지 개금을 완료하는등 내년말까지 총 4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개금불사는 금박지 20~30매 두께의 순금 3미크론씩을 전기도금해, 준공후 50년이상 광택을 유지하고 균열 및 비틀림 현상을 방지하는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충북불교신도회 창립



조계종 충북불교신도회가 창립됐다. 충북지역의 법주사와 교구 70개 말사 신도회, 20개 신행단체들로 구성된 충북불교신도회는 지난달 28일 불교방송 10층 문화센터에서 창립기념법회를 갖고 초대회장에 김정길씨〈사진〉를 추대했다. 초대회장 김정길씨는 충청북도 교육위원, 청주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국산악인불자연합회 부총재, 5교구본사 법주사 신도회장을 맡고 있다.

천태종

삼양사 종합회관 낙성식

밀양 삼양사(주지 월장)는 23일 오전 11시 종합불교회관 낙성 및 관음불상 점안식을 갖는다. 이번 행사에는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055)354-3267

진각종

회당 100돌 엠블렘 확정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봉행위원회(이하 기념사업회)는 6일 이원자주사상과 승속동행의 화합종단을 지향하는 엠블렘〈사진〉을 확정 발표했다.

기념사업회에 따르면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 기념 엠블렘은 한글 '회당'과 '100'을 조합한 것으로 회당대종사가 주창한 이원자주사상과 미래지향적인 승속 화합종단의 의지를 표한 한 것이다. 이원자주사상의 이원은 '100'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열린 원으로 나타내고, 자주는 '100'을 구성하고 있는 1로 표현했다.

법륜종

사미(니) 29명 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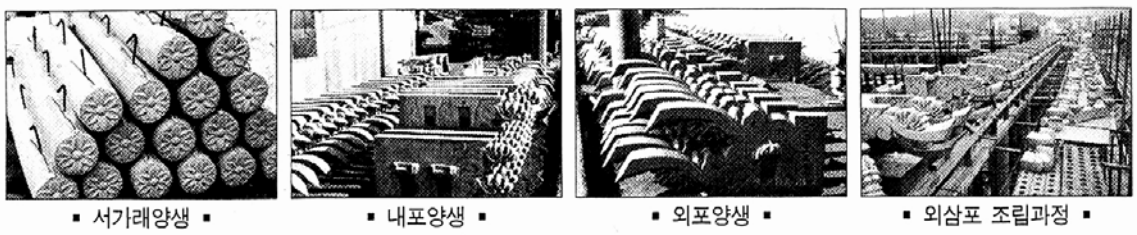
5일 목포 보현정사 금강계단에서 제1회 사미(니)계 수계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증정 정각스님이 전계아사리, 혜봉스님이 갈마아사리, 혜안스님이 교수아사리로 봉행된 이번 수계법회에서는 사미 19명 사미니 10명 등 총 29명이 사미(니)계를 받고 수행자의 삶을 살 것을 부처님전에 서원했다.

조동종

영월 명수사 미륵불 점안

영월 명수사(주지 혜광)는 19일 오전 10시 미륵부처님 점안식 및 관등불사 회향대법회를 갖는다. 이번 대법회는 지명 종정스님과 학봉 총무원장스님, 서운 서곡정사 조실스님의 증명하에 봉행된다. (033)372-5485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바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 아바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시멘트법당
스님! 내년에 지으실 장엄불사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완벽한 시공은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천년대계의 문화유산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성형제작과정

▪ 서가래양생 ▪ ▪ 내포양생 ▪ ▪ 외포양생 ▪ ▪ 외삼포 조립과정 ▪


현대불교건축의 새로운 역사!
한국불교건축공예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 징
▪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 조립공정으로 간편하여 시공이 빠릅니다.
▪ 섬세한 조각성형으로 작품성이 풍부합니다.
▪ 목조건축에 비해 선이 굵고 정밀해 우아합니다.
▪ 화재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업안내
● 콘크리트 법당
● 요사채
● 콘크리트 성형조각 판매
스님의 주문평수에 따라 서가래에서 포작까지 일체 제작판매

▪ 초익공 ▪

▪ 이익공 ▪

▪ 외삼포내오포 ▪

▪ 외오포내칠포 ▪
시공사찰
정법사 삼각사 용주사
만불사 혜광사 쌍용사
지장사 반야암 전통사
원각사 영탑사 등
한국불교건축공예
본사/서울 중랑구 망우3동 518-34(효성빌딩) 대표전화 (02) 494-4890/1
제1공장/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완장1리 · 제2공장/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리 237

참선수행-백일기도… '참 나' 꼭 찾으리

재가불자도 '동안거'

전국 시민선방 10일 일제히 결제

태산을 움직이겠다는 용기. 이 길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삶을 이어 갈 수 없다는 간절함. 빈 손, 빈 마음으로 하두 하나 달랑 들고 들어선 선방엔 나도 없고 너도 없다. 오직 '찾아내야 할 나'만이 있을 뿐.

10일 등안거 결제와 함께 전국의 많은 시민선방과 사찰들이 재가불자를 위한 동안거 및 참선수행을 마련하고 있다. 또 재가불자들의 겨울철 수행을 돕기 위해 선 수련회 등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사찰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표 참조〉

겨울수련회는 참선이나 교리, 신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여름 수련회와는 달리 말 그대로 '선수행'에 몰두한다는 것이 특징. 단순히 세상사를 벗어나 '선'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아집을 떨어내고 철저히 자신을 단련하기 위한 수련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동안거나 참선수행 참여자 대부분이 수행 자체를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근기'있는 사람들이라 수행의 집중력과 효과도 높다. 그래서인지 해가 거듭될수록 겨울 수행의 깊이를 맛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결제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선방과 사찰에서는 참선수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전통 재가선방인 통도사 보살선원, 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 부산 해운정사 금모선원은 10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스님들의 동안거와 마찬가지로 재가불자 동안거를 실시한다. 3개월간 숙식을 이곳에서 해결하며 참선수행을 해야하는 엄격한 과정이다. 다만 금모선원은 출퇴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선학원 중앙선원과 도선사 무차선원, 봉은사 봉은선원, 대구 보현사 시민선원, 부산 범어사 포교원 여여선원,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 수선회 등도 이 기간동안 안거수행에 들어간다. 이들 시민선방들은 모두 참가자들이 필요한 시간에 와서 선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중 중앙선원과 수선회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 해제 때까지 기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무불선원은 오전시간에 스님의 지도아래 참선체조와 호흡, 참선실수, 화두공부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불광사, 부산불교교육원도 참선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은 동안거 기간중 매일 저녁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부산불교교육원은 11월30일부터 6개월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참선기초이론과 생활참선법 등의 강의와 함께 참선실수를 한다. 불광사는 지난 5일 '겨울철 50일 기도'를 입제해 12월17일 해제한다.

◇사찰 · 단체 재가불자 겨울수련

사찰명	기 간	연락처
무불선원	동안거 11.10~2001.2.7	02-541-0002
수선회	동안거 11.10~2001.2.7	02-732-5960
부산 해운정사 금모선원	동안거 11.10~2001.2.7	051-746-2256
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	동안거 11.10~2001.2.7	055-932-7308
통도사 보살선원	동안거 11.10~2001.2.7	055-383-8334
도선사 무차선원	동안거 11.10~2001.2.7	02-993-3162
선학원 중앙선원	동안거 11.10~2001.2.7	02-732-3327
봉은사 봉은선원	참선수행 11.10~2001.2.7	02-516-5652
대구 보현사 시민선원	참선수행 11.10~2001.2.7	053-254-6966
부산 여여선원	참선수행 11.10~2001.2.7	051-853-5486
안양 한마음선원	참선수행 11.10~2001.2.7	031-470-3100
부산불교교육원	참선수행 11.30~2001.5.30	051-466-4080
불광사	참선수행 11. 5~12.17	02-413-6060
통도사	화엄산림 11.25~12.25	055-382-7182
백양사	선수련회 12.17~2001.2.4	061-392-7502
구례 연기암	선수련회 12.4~2001.2.20	061-782-0588
직지사	백일기도 10.27~2001.2.7	054-436-6174
법련사	백일기도 11.10~2001.2.16	02-733-5322

백양사는 서옹스님의 법문과 화두간택, 선종사 강의 참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2월17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네 차례에 걸쳐 '참사람 수행결사'를 준비하며, 구례 연기암은 12월4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8차에 걸쳐 매일 8시간씩 참선하는 '선 수련법회'를 연다. 또 통도사는 26일부터 12월25일까지 참선과 〈화엄경〉을 공부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며, 이밖에 조계사, 직지사, 법련사 등의 사찰은 '백일기도' 법회를 연다.

한명우 · 김두식 기자 (mwhan@buddhapia.com)

"매장문화재 보호 목적 개인 재산권 제한 가능"

대법원 '경주 선도산 일대 개발 불허' 판결

매장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는 6일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유적발굴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 학계는 이번 판결을 한국 문화재 정책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문화유산보존운동이 진일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 역시 이번 판결로 문화재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의료시설 공사를 위해 경주 선도산 일대를 개발할 경우 이 지역에 널린 신라시대 고분 등 문화유적이 파괴 및 멸실 될 수 있다"며 "원고가 공사를 하지 못해 입을 경제적 손해에 비해 유적 보존으로 달성하는 공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계명기독학원은 지난 97년 4월 선도산 일대에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던 중 신라시대 고분 5기가 발견되자 공사진행을 위해 문화재청에 유적발굴허가신청을 냈으나 불허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다른 유적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백제 하남위례성으로 확정된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을 비롯해 경주, 부여, 공주 등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도 매장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지난해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발굴된 유적은 245건인데 반해, 이 중 단 1건만이 보존됐을 뿐이다. 오종욱 기자

"장경사 송전선로 백지화"

12개 교계단체 요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불교환경교육원 등 12개 불교단체는 6일 용인 장경사 인근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경사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송전선로 계획에 대해 산자부와 한전의 책임있는 사과와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고려말 창건된 장경사와 그 일대는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의 초안이 완성된 쌍운암의 사지가 발견된 문화유적지이며, 장경사 뒷산인 쌍령산은 집중호우시 산사태의 전력(91년 주민 1인 사망)이 있어 자연환경의 보존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산이"이라며, "높이 90m가 넘는 송전탑은 소중한 문화유산의 전승의 기회를 박탈하고 자연경관의 훼손은 물론 인명피해마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단체들은 "산자부와 한전은 송전선로 노선안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며, "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장관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환경 · 시민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200여명은 8일 한전 본사 앞에서 '장경사 및 쌍지리 인근 송전탑 설치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한전측은 항의방문한 비상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정식 협상단을 구성하고 조만간 주민들과의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경 기자



조계사에 온 수녀들 천주교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소속 수녀 40명은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새만금 갯벌 살리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8일 밤 농성현장을 방문, 성가를 불렀다. 한편 지리산살리기댐백지화범불교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2000여개 환경 · 시회 · 종교단체들은 10월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새만금농성 선포식'을 갖고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26일간의 농성에 들어갔다. 이 농성은 정부가 새만금 민 · 관 공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등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사진제공 중앙일보〉

불교인권위 10주년 기념 인권상 시상-선서화전

불교인권위원회(공동위원장 진관 · 지원 · 한상범)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고승 선서화전, 인권상 시상, 민족민주열사 천도법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불교인권위는 5일 부산 문수사에서 모임을 갖고 2000년도 인권상 수상자에 라창순 제10차 범민족대회 고문, 이성우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의장을 선정하고 인권법당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고승 서예 · 그림 작품 전시회를 27일부터 12월4일까지 서울 웅전갤러리에서 갖기로 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석주 화엄 석정 법흥 지선 일장 중광 진관 스님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불교인권위는 또 창립10주년 기념제로 12월 19일 불교인권상 시상 및 진관스님 및 지원스님 시집 출판기념회를 갖고, 20일 민족민주열사 가족초청 사찰순례(범어사 통도사 운문사), 21일 민주열사들을 위한 동지 천도법회(문수사) 및 영호남화합을 위한 김치축제를 연다. (02)734-6401 김재경 기자

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기석씨 선출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는 4일 임시총회를 열고 김기석(56 · 주택보증기금 상임감사)씨를 5대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나섰다.

신임 김기석 회장은 "모든 불교단체를 초 종파적이고 범 불교적으로 재결집해 훌륭한 신행단체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불총은 회원 상호간 교류확대와 기관지 발간 및 중앙회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화순 만연사 대웅전 낙성

화순 만연사(주지 오안)는 5일 송광사 회주 법흥, 송광사 주지 현봉, 임흥락 화순군수, 임호경 전남도의원, 조영길 화순군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및 명부전 낙성식을 거행했다.

법흥스님은 이날 법어에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불자들은 더욱 더 부처님과 나라, 부모님, 스승에 대한 은혜를 갖도록 정진하자"고 말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 · 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임실 신흥사 나한상 절도범 '검거'

지난 9월 말 전북 임실 신흥사 나한상(사진)을 훔친 절도범이 지방 경찰관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건발생 20여일만인 10월18일 검거됐다.

99년 6월 전북신흥사부도 도난범을 검거해 총무원장 표창을 받았던 임실경찰서 배영근 경사는 20여 일간에 걸쳐 사찰을 드나드는 차적 등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18일 범인 오모, 이모 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23일 검찰에 이송했다.

한편 이를 매매한 청주 이모 씨의 집에서는 20여 년 전 임실 복성암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탱화를 비롯해 목조사자상, 코끼리상, 고서 등이 다수 발견됐다. 오종욱 기자

(주)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

노벨상의 영광을
월드컵으로 꽃 피우자!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동반자를 찾습니다.

축! 김흥국의 스포츠랜드 파필리오 papilio 오픈!

papil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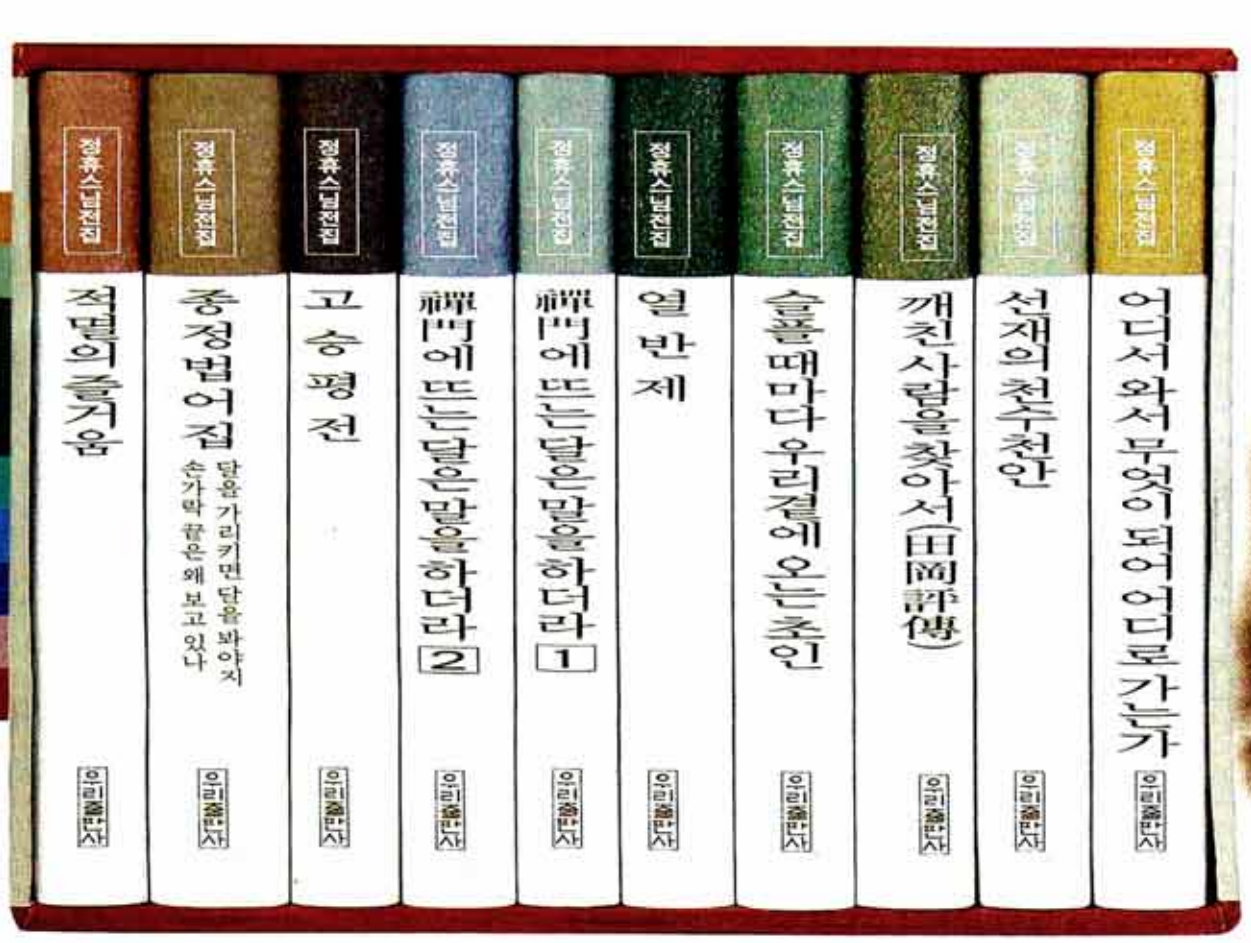
http : //2002asia.co.kr 상담전화 / 02)761-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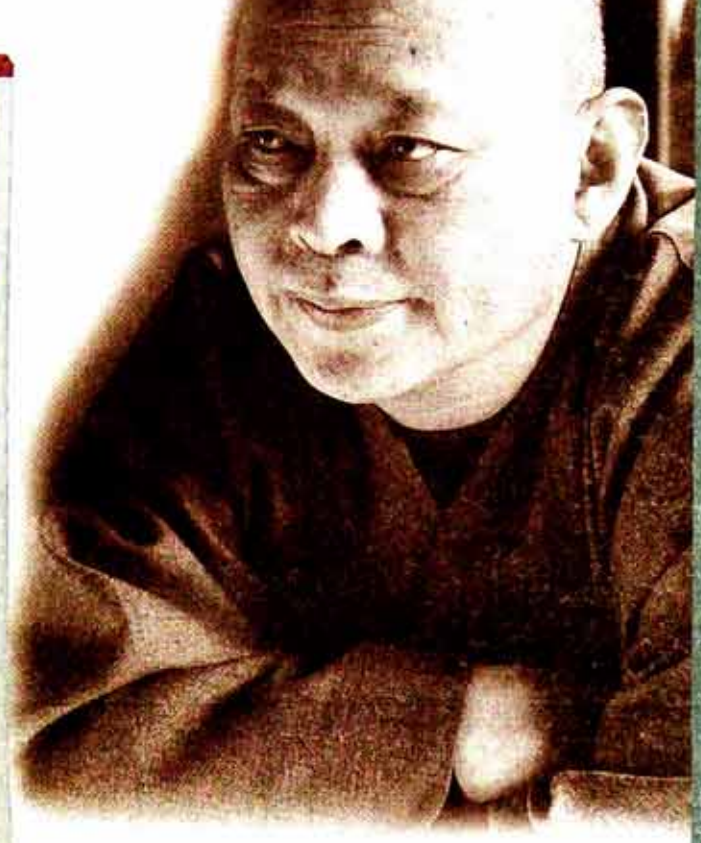
사무실 이전 행사안내
■ 본사이전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8 동성빌딩 2층 (KBS본관 정문 앞)
■ 이전행사일자 : 2000년 11월 18일 (토) 정오
■ 행 사 장 소 : (주)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 본사

정휴스님전집(전10권) 간행

정휴스님 40년 수행과 문학 집대성

"이제 깊은 山에 들어가 그리운 사람을 기다리겠다.
아, 그리운 사람 그는 일체의 속박을 떨쳐버린 인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나는 오랫동안 깨달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설악산이 제 몸을 풀어
눈을 녹이고 속살을 데워서
잎이 피고 꽃을 피우면
나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내 스스로 적멸이 되는
연습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 속에
맑은 영혼이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기다림을
갖지 못했다.

❶ 어디서 와서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

신국판/294면/10,000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마음은 모든 생자의 근원이며 일체 악의 모체(母體)다. 열반의 즐거움도 자기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윤회의 고통도 또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선기(禪機) 서린 관찰력과 영혼을 일깨우는 필력으로 불교문학을 주도해 온 정휴스님의 전집 제1권 수상집으로 전작인 〈흙과 바람으로 가는 불빛〉과 여러 잡지에 발표했던 글들을 모았다. 스님의 '자화상' 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❷ 선재의 천수천안

신국판/300면/10,000원

신(禪)이 든 집중(集中)을 통해 존재의 실상(實相)을 깨닫는 행위다. 명상과 사유(思惟)가 없는 사람일수록 살고 보면 정신이 메말라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음식은 육신을 살찌우게 하지만, 순수한 집중의 사유는 정신을 살찌게 하고 올바른 정신을 형성케 한다. 사유가 깊을수록 인간은 밝은 정신의 뜰을 지닐 수 있다. 필자는 '맑은 정신과 깨달음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불교적 시각으로 담고 있다

❸ 깨친 사람을 찾아서(田岡評傳)

신국판/316면/10,000원

탄공 · 한암 · 용성스님 등 당대의 대선지식들에게 '관지생모' 의 화두로 깨침을 인가받고 또한 그들과의 법거량을 통해 선풍 진작의 한 획을 그었던 전강대선사의 평전이다. 냉엄하면서도 한없이 자비스런 마음으로 깨달음의 길을 열어 주었던 전강스님은 중국 선사들의 선풍을 모조리 배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틀과 방을 스님 특유의 선풍으로 진작시켜 간적했고 이를 통해 후학들을 제접했다. 이러한 그의 선과 수행세계를 정휴스님이 한치 빈틈없이 재구성하여 전강스님의 법어를 들려주고 필자의 견해를 곁들여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❹ 〈소설 경허〉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신국판/340면/10,000원

평범한 일상을 거부하고 야성적 풍기로 살다간 근세 한국불교의 거목 경허선사. 차라리 폭력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경허선사의 무애한 삶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김정휴에 의해 최초로 과혜처진 경허의 오도적 비밀은 무엇인가. 지옥과 아귀, 축생의 삶락도를 거리낌없이 살았던 경허의 삶은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자 경이를 안겨준다. 경허는 단순한 기인이나 놀새의 달인도 아니었다. 그는 몇 세대를 앞당겨 산 슬픈 초인이었고 근대 선종의 가장 뛰어난 선사였고 중흥조였다.

❺ 열반제

신국판/316면/10,000원

한 수행인의 재가와 출가의 고통을 구도적 측면에서 적나라하게 파헤친 존재 탐구를 즐거리로, 중생과 부처의 갈등 그리고 존재의 아픔을 극복해 보려는 데서 출발한 이야기. 참다운 삶이란 무엇이며 또 어떠해야 하는가, 진정한 도구란 무엇이며 그 궁극적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를 끈질기게 천착하고 있다. 〈열반제〉는 이 땅의 종교가 당면하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투시하면서 보다 올바른 인간의 길, 신앙의 길을 조심스럽게 제시한 데서 참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인간성 상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교적 명상 속에서 참된 인간 발전과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다

❻ ❼ 선문에 뜨는 달은 말을 하더라 1, 2

신국판/316면/10,000원

자기 초극과 해탈을 위해 먹고 자는 일을 포기하거나 자기 몸 속에서 살점이 빠져나가는 정진을 한 선사들의 이야기. 선사들의 출가 동기에서부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몸부림친 과정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감동과 함께 경이를 불러 일으킨다. 선사들의 출가적 동기는 대부분 인간적 고뇌에서 출발하고 있고 고뇌의 밑바닥에는 삶의 절망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삶의 고뇌와 절망은 구도를 통해 극복되었고 존재의 아픔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선사들은 인간적 슬픔과 고뇌를 깨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비우는 일에 치열한 열정을 쏟는다.

❽ 고승평전

신국판/286면/10,000원

'불립문자(不立文字)' 의 세계인 선(禪)의 세계를 치열하게 실천하며 살다간 원효스님에서부터 항곡스님에 이르기까지 열아홉 선사들의 생애와 사상을 밀도있게 파헤쳤다. 불립문자의 세계는 생명이 길면 길수록 본질과 멀어지는 법, 그 세계를 실천하며 살다간 선사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고승평전은 불립문자의 세계로 향하는 징검다리라고나 할까. 존재의 문제에, 선(禪)의 세계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에게 이제 그 징검다리로 한발 한발 들여놓기를 권해 본다.

❾ 종정법어집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왜 보고 있나

신국판/437면/10,000원

거래의 지도자 역대 종정들의 삶과 가르침! 조사의 법어는 창조적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번뇌의 속박에서 빚어진 말이 아니고 마음의 세계를 여는 원초적 언어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의 어록 앞에서 어떨 때는 영혼이 상쳐나고 자성(自性)이 붕괴되는 충격을 만난다. 왜냐하면 실존적 자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개된 역대 종정스님의 법어는 한국 선종의 독특한 오도(悟道)의 육성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오도의 지평을 확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❿ 적멸의 즐거움

신국판/240면/10,000원

죽음이 이처럼 아름답고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생사를 초월한 선사들은 앉아서 열반하거나 서서하였고 또 걸어가다가 입적하여 즐거움이 되게 한 감동적 이야기. 육신이 불에 타 흙으로 돌아가 근원이 된다. 흙으로 돌아가 나는 다시 돌이 되어 태어나고 혼을 키우는 그릇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되겠는가. 삶도 죽음도 적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부도는 안으로 적멸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호
전화/(02)313-5047/5056 팩스/(02)393-9696
E-mail:woribook@chollian.net

출판기념회
때 : 2000년 11월 22일 오후 5시
장소 : 한국일보(13층)송 현 클 럽